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9월 5일(음력 7월 24일) 수요일 (주간) 제 644 호

제주에서 설악까지 '의혹과 송사' 투성이

조계종 잇단 악재에 '곤혹'

조계종이 잇단 악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공중파 방송에서는 동국대 신정아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인제 백담사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제주 관음사 검수인계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 등을 잇달아 내보내고 있다. 일간지에서도 연일 동국대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이 사안을 조계종 권력다툼의 산물로 보고 있다. 이제 '조계종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균열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최남단 제주도(관음사)부터 시작해 경상도(통도사, 은해사), 충청도(마곡사), 강원도(백담사), 경기도(봉선사) 등 문제가 없는 지역 찾기가 더 쉬운 지경이다. 또 최근 1~2년간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으며 사회법으로 번진 사안만도 관음사, 마곡사, 은해사 등 여러 개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대처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불교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동국대 문제에 대해 이사장 영배 스님을 비롯해 이사회 그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사회 차원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지만 그 뿐이었다. 동국대를 관리 · 감독할 책임이 있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도 '동국대 신정아 교수 채용 의혹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활동은 지지부진하다.

문제를 제기한 장윤 스님 또한 청와대 개입설을 흘려놓고 잠적해 버렸다. 8월 29일 종단 대변인인 기획실장 승원 스님의 입을 빌어 "누구에게도 외압 받은 적 없다"는 얼굴 없는 해명을 했지만 의혹만 더 커졌다. 또 이 문제에 종단까지 개입한 듯한 인상을 줘 역효과만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백담사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해명 기자회견도 의혹만 더 키웠다는 게 중론이다. 공중파 방송과 일간지에서 투서 내용을 바탕으로 백담사 주지 일문 스님이 국고보조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문 스님은 8월 29일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령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전 약속과는 달리 기자회견문만 읽고 자리를 떴다. 횡령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명쾌하게 설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관음사 또한 문제의 핵심인물인 중원 스님은 뒤로 빠진 채 몇몇 스님과 신도단체들이 대리전을 펼쳤다. 시몽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이 관음사와 보현사를 검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 모습이 여과 없이 공중파 방송에 보도됐다.

마곡사 주지 구속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불교환경연대 대표 수경 스님은 〈불교평론〉 봄호에서 "지금 조계종단은 '권력'과 '돈'이라는 두 바퀴의 수레를 타고 위태로운 질주를 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자정기구' 설립하고 '종립 율원' 세워 승풍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희욱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원장도 "조계종단은 10년 전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며 "성직자가 아닌 수행자인 스님들 또한 물질만능시대에 휩쓸린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또 "호법부나 호계원 등 종단 자정기구가 제 역할을 못해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종단 외부로 확산되고 있다"며 "종단의 수장인 총무원장 스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종단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의지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종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우 · 여수령 기자**



이 순간의 '초발심' 영원히…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8월 29일 김천 직지사에서 33기 행자교육원을 개원했다. 총 196명의 접수자 가운데 입방고사와 갈마를 거친 169명이 8월 30일 고불식을 봉행했다. 입교자 중에는 인도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캐나다에서 온 외국인 행자 4명도 포함됐다. 이날 고불식에서 청화 스님은 "교육기간 동안 출가정신을 견고하게 확립하고 수행력을 증진시킬 것"을 행자들에게 당부했다.
김천 직지사/글 · 사진=박재완 기자

문화재 관람료 논란 재점화

교계단체 등 잇단 토론회 개최…해법 마련 고심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온 구례 천은사 주지가 8월 28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또 합천 해인사와 보은 법주사도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는 등 관람료 징수 문제가 급박하게 다시 대두되는 가운데 조계종 종책 모임과 교계 단체들이 해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금강회 · 보림회는 8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관람료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별 해법을 제시했다.

금강회 · 보림회는 1단계로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문화재에 대한 입체적 보전과 관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2단계로 정부, 불교계, 학계,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형 조직을 구성하고, 3단계로 국가지정 불교문화재 현황과 사찰림 및 국립공원 훼손에 대한 포괄적인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단계로 사찰 소유 문화재 보호, 관람료 징수, 국립공원 · 사찰림 보호 대책을 포함하는 사회적 합의 및 제도,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강회 · 보림회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책임성이 강한 저명인사를 위원장으로 한 가칭 '불교문화보전과 국립공원환경보호를 위한 협의연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이 기구는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문제해결 진행단계'와 같은 로드맵을 설정하고 다중이 공감 가능한 대안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미래포럼(공동대표 도완 · 배영진)도 8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재 관람료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NGO리서치 윤남진 부소장은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은 상대의 입장이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기본적인 노력조차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조계종, 사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주장을 경청하고 상호 신뢰 속에 구체적 합의를 도출, 성실히 이행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부소장은 "문화재관람료 논란은 정부와 조계종, 시민사회단체 등 공동의 책임이며, 정부와 조계종이 주도적 입장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단순한 입장료 성격의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고, 중기적으로는 문화재관람료의 중앙 집중 관리 및 공익적 활용의 증대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문화재관람료의 징수위치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일 · 남동우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瑞安 법률사무소 서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평촌역 도보 5분)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새 연 재

송찬우 교수가 풀어 쓰는

천태지자 '수습지관선법요'

▶8면에 '지상강의'

중앙승가대 송찬우 교수가 '지관(止觀)'의 길로 독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천태지자 스님이 쓴 '수습지관선법요(修習止觀禪法要)'는 처음 발심한 사람이 수증(修增)하고 입도(入道)하는데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지관 법문을 총론적으로 밝힌 개론서입니다.

또 스포츠 한국의 장명수(張明洙 법명 如舟) 편집위원이 '쉽게 풀어 쓴 불교기본교리'를 연재합니다.

▶ '상담심리학과 불교' 11면

소중한클릭닉 소중한몸한의원

여동현 원장의 건강칼럼

소중한클리닉의 소중한몸 한의원 여동현 원장이 매주 여러분에게 한의학 건강 상식을 전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당뇨 · 비만 등의 성인병을 비롯해 수행자가 앓기 쉬운 척추질환 등에 대한 원인을 짚어보고 치료법과 예방법을 살펴봅니다. 금주부터 19면.

社 告

'현대불교신문' 지사장님 모십니다

불법홍포의 주역으로 포교 사업을 전개할 참신하고 역량있는 현대불교신문 지사장을 모십니다.

● 모집 지역(8개 지역)

.강원동부: 강릉 동해 삼척 일원
.강원서부: 춘천 원주 정선 영월 평창 홍천 일원
.경기남부: 안산 화성 용인 안성 일원
.경기북부: 포천 연천 동두천 파주 일원
.충남: 대전을 제외한 충남 전지역
.경남남부: 마산 창원 일원
.광주전남: 광주 및 전남 전 지역
.전북: 전북 전지역
.제주도: 제주 전지역

● 사업내용
- 지역 내 구독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 사업 전개.
- 기사 제보 및 취재활동 지원.

●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신분증 복사본.
- 제출기한: 2007년 9월 13일(목)
- 제출방법: 우편(13일 도착분만 유효)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처: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2004-8234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株)泙建이 열어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평건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개념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뒤쳐지게 됩니다. 이에 평건은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도량(道場)도 변화해야 합니다. 즉 수천년 전통의 美를 살리면서 현대에도 어우러 지는 멋들어진 도량 말입니다. 저희 불자님들은 물론이고 불교성향을 가지신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이야말로 불법홍포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불자님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정한 미의 건축 발전의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시공분야
고건축[사찰건축] | 현대건축 | 인테리어 | 건축 및 불사 컨설팅
(株)泙建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70-10 신교빌딩 4층 110-032
TEL 02)722-0094 / FAX 02)741-0096
http://pyeonggeon.com E-mail : pg@pyeonggeon.com
construction & design PYECONGKEON

영통사 성지순례 중단 위기

천태종 "제한조치 안 풀면 우란분절 법회로 끝낼 것"

천태종은 8월 25일 통일부가 월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25일 우란분절 법회를 마지막으로 성지순례를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천태종은 이날 영통사 성지순례 후 배포한 '성지순례 중단선언에 대한 결의문'을 통해 "순전히 종교, 문화적 교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지순례를 통일부가 '변형된 관광'이라는 자의적 굴레를 씌워 맘대로 틀어막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천태종은 "통일부의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 제한 방침은 종교적 자유에 대해 철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범불교도와 연합하여 이에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천태종은 2005년 개성 영통사 복원 이후 성지순례 정례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6월 영통사와 선죽교, 고려민속박물관 등 유적지를 하루 일정으로 시범순례한 이후 지난달부터 순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보성 스님 송광사 방장 재추대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 방장에 보성 스님(사진)이 재추대됐다.

송광사는 8월 31일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중총회를 열고 보성 스님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보성 스님은 1928년 경북 성주에서 출생했다. 45년 구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50년 상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73년부터 94년까지 송광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1997년 조계총림 제5대 방장에 취임. 남동우 기자

인묵 스님 봉선사 주지 선출



남양주 봉선사 주지에 인묵 스님(불교 어산학교학장 · 사진)이 선출됐다.

봉선사는 8월 31일 차기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했다. 121명이 투표한 결과 인묵 스님이 59표를 얻어 차기 주지 후보자로 선출됐다. 화범 스님은 57표를 얻었으며 무효는 5표.

인묵 스님은 1976년 사미계, 77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회암사 주지,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자재암 주지, 중앙승가대 강사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관음사 사태 일단락…불씨는 여전

제주 관음사 사태가 일단락됐다.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측과 조계종 총무원측은 8월 28일 관음사와 보현사 검수인계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저지하던 관음사 신도회 및 제주불자연합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1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몽 스님·총무원, 관음·보현사 검수인계 완료

신도회·제주불자聯 "불법 폭력 침탈" 반발 계속

▲관음사 문제 왜 불거졌나=문제의 발단은 200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 이하 중앙선관위)는 당시 관음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교구선관위)가 산중총회 개최 시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했다며 재선거 결정을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은 2007년 1월 진명 스님을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면서 '직무대행기간 동안 여법한 산중총회를 열어 본사 주지를 선출할 것'을 서약 받았다. 그러나 교구선관위는 산중총회를 공고하면서 후보자 자격을 '관음사 산중총회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선거 중지 및 재선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구선관위는 4월 20일 산중총회를 강행해 진명 스님을 주지 후보로 선출했다. 여기에 맞서 조계종 총무원은 4월 24일 시몽 스님을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중앙선관위도 5월 3일 제176차 회의를 열고 관음사 산중총회 무효 결정을 내렸다.

진명 스님이 시몽 스님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주지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문제는 사회법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6월 27일자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도 8월 17일 시몽 스님이 제기한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등 사법부도 시몽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걸)은 8월 17일 제52차 심판부를 열고 관음사 회주 중원, 前 주지직무대행 진명, 前 교구선거관리위원장 현공, 교구선거관리위원 오성 스님에게 '멸빈', 교구선거관리위원 세광 스님에게 '제적'의 징계를 내렸다.

▲향후 전망은=시몽 스님은 검수인계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주지 후보자 선출을 완료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 상처를 치유하고 지난날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소하기 위해 제주불자연합 및 신도들에 대한 형사상의 법적 소송을 즉각 취하하겠다"며 관음사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조계종 총무원도 대변인 기획실장 승원 스님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이제 시시비비를 떠나 제주의 모든 스님과 불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해 부처님 전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총무원은 관음사 정상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정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음사 신도회와 제주불자연합은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관음사 불법 폭력 침탈 사건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 △경찰의 수수방관과 일방 편들기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단호히 대처할 것 △관음사를 되찾는 노력을 경주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혀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내비쳤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한글통일법요집' 다시 다듬어야"

포교정책연찬회서 '오역·현장성 결여' 문제점 지적

조계종은 2006년 8월 의식의 한글화 대중화를 위해 <한글통일법요집>을 완간했다. 3년 2개월간의 노력으로 탄생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고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글통일법요집>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도신)이 <한글통일법요집>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이성운 정우서적 대표는 '문학적인 면에서 바라본 <한글통일법요집>' 주제발제에서 "우리말에 대한 오역 문제와 현장성 결여로 일선 법회 현장에서 우리말 의식이 외면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압축적이며 다의적이고 운문화된 기존의 한문과는 달리 우리말로 풀었을 때 길어지고 운율성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암송하기 어려워지고 의식이 길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성운 대표는 <한글통일법요집>과 한글법회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한글로 의식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익숙하지 않음 △한글번역의 비통일성 △우리말 번역 문제 등을 이유로 한글의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글의식을 사용하다 중단했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합송이 어렵다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성운 대표는 "현재의 불공과천도 의식은 촌음을 다투는 현대인들에게 길다"며 "의식의 차례와 선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율문의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방법과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며 "시제, 연결어미, 율격과 용어의 해석 등 불교 정서에 맞는 현대 우리말을 갈고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형 한국고전음반연구회 회장은 '음악적인 면에서 바라본 <한글통일법요집>' 주제발제에서 "<한글통일법요집>에 담긴 염불을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집단을 결성하고, 이들이 검증해 적절히 재편된 결과를 시연할 수 있는 시연집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산하의 범패연주단과 범패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범의식을 통해 보편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팡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02-2004-8279

바로 잡습니다

본지 643호 9면 '선지식을 찾아서' 향과 스님 이력 중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홍법사 관련 소위원회 구성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이사장 홍파)는 8월 29일 서울 수송동 사무실에서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정부 홍법사 문제와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사무총장 남정(총화종 총무원장) · 지원(조계종 사회부장) · 양산(조계종 前 사회부장) · 법종(보문종 총무원장) · 송정(미륵종 총무원장) 스님과 진각종 총무부장 수성 정사 등 6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법사를 관음종 사찰로 등기한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남정 스님은 "홍법사 취득 과정이 한일불교교류와 관계가 있으므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에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일 기자

지리산 약초 체험 참가자 모집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옥)가 지리산 일대를 찾아 약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동방대학원대는 9월 8일 경남 함양군과 산청군 일대를 찾아 야생 약초를 관찰하고 일대의 문화재를 탐방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나광영 교수가 '약초'를 주제로 한 현장강의를 실시하며, 함양 상림숲과 한방 휴양지를 방문하고, 인산죽염연구소, 대원사, 겁외사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김주일 기자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요강 발표

조계종 총무원은 '제15회 불교언론문화상' 후보작 및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불교언론문화상은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TV, 라디오, 신문, 출판 등 4개 분야에서 우수 작품과 공적이 뛰어난 언론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분야는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을 비롯해 불교언론인상, TV, 라디오, 신문, 출판 각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상 및 특별상으로 구성돼 있다. 김주일 기자

천태종 '창작등 경연대회' 개최

천태종 총무원은 전국 말사 및 단체를 대상으로 12월 5일 '제1회 창작등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천태종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창작성과 휴대성, 활용성이 뛰어난 작품에 대해 시상을 하며, 선정된 우수작품은 2008년도 연등축제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戒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대법회** 行

귀의삼보하옵고!
본종은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범망경의 계율을 수지하며 불굴의 승단이 되고져 바라제 목차를 존중하며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함을 제방에 고합니다.

本師佛和尙 석가모니불. **교수아사리** 미륵존불. **갈마아사리** 용종상존왕불
本證戒和尙 滅空. 銖性. 飛潭 大和尙 **本傳戒和尙** 三僧律 律師
尊證아사리 龍雲. 賢覺. 法壯. 法天. 正安. 正守. 石長 和尙

■ 행사일자
(세존응화 3034년 정해년)
입제일 : 2007년 9월 6일 (음. 7월 25일)
회향일 : 2007년 9월 7일 (음. 7월 26일)

■ 문 의
총무원 ☎ 055)338-0089(김해) / 총무부 010-8722-5177
법계고시원 017-554-1402 / 총무국 011-9542-1711
※ 전종도 각 15교구원 별로 문의 및 접수 바랍니다.

계는 무상보리의 근본이니 마땅히 구족정계를 가지면 능히 여래께서 찬탄하시도다. 승가단체는 율을 행하여 도덕을 지키며 세상의 참 지도자가 됩시다.

大韓佛敎 三寶 曹界宗 총무원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연내 설립

구호·복지 등 5개 분야 사업…자비나눔기금 3억 출연
9월 중 준비위 구성, 외부 전문자문위원 초청 공청회도

불교계에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기부재단이 설립된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8월 29일 "종무회의에서 불교계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 창구로 기부재단을 설립키로 결의했다"며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기업 ·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별도 법인으로 연내 설립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가칭)은 아름다운재단 · 월드비전 · 굿네이버스 등을 모델로 삼아, 구호 · 복지 · 통일 · 환경 · 국제 등 5개 분야 활동지원 기금을 조성 · 관리 · 감독하며, 사업실행은 불교계 사회단체가 맡게 된다.

조계종은 그동안 모금한 자비나눔기금 중 3억원 출연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70억원을 공익기부재단 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조계종 사회부는 9월중으로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외부 전문자문위원을 초청한 공청회를 통해 세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직 구성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이사장으로 각계의 저명인사를 상임이사로 추대할 예정이다.

김용구 조계종 사회부 행정관은 "그동안 불교계 사회 지원 사업의 기금 마련은 각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모금 혹은 조계종 예산을 통해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돼 온 점이 있다"며 "공익기부재단이 설립되면 사회활동지원법과 맞물려 불교계 공익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특성화 센터 건립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자연과학관 주차장 일대에 특성화 센터를 건립한다. 특성화 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동국대가 국고지원금 29억 원 등 총 40여 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시설이다. 특성화 센터는 에너지와 환경을 특화시킨다는 학교의 목표에 따라 강의실과 실험실습 공간이 마련되고, 특성화 사업단 연구공간으로 활용된다.

지상 4층에 건물연면적 3400㎡(1000여 평) 규모로 건립되는 특성화 센터는 일반연구실과 세미나실, 멀티미디어실, 강의실, 실험실 등으로 구성 된다.

김주일 기자



혜총 스님이 린첸 칸도에게 티베트 비구니를 위한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 초청하고 싶다"

혜총 스님, 린첸 칸도 예방 자리서 밝혀

비구니 기금 1만불 전달

"한국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달라이 라마 방한을 원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방한하지 못해 안타깝다. 양국 불교가 노력하면 머지않아 방한이 가능할 것이다. 나도 달라이 라마 방한을 초청하고 싶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달라이 라마 방한 초청 의사를 밝혔다. '남북분단'이라는 정치적인 한계를 단서조항으로 달았지만, 현직 포교원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하지만 단순한 '립 서비스' 차원인지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지는 미지수다.

혜총 스님의 이 같은 발언은 8월 30일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Tibetan Nuns Project, 이하 TNP) 총재 린첸 칸도 예방 자리에서 나왔다.

방한과 관련 린첸 칸도는 "스님처럼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달라이 라마가 방한하면 불자뿐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7면

이날 혜총 스님은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기금으로 1만불을 린첸 칸도에게 전달했다. 포교국장 오심 스님도 100만원을 즉석에서 기부했다.

남동우 기자

초일류재무컨설팅
MIRAE ASSET 미래에셋생명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투자의 길을 열어 드립니다
펀드 / 변액보험 / 연금
종합설계사 최상선 손전화 011-253-3747



용인 좋은절, 터널 공사로 피해

용인 좋은절(주지 법경)이 서울고속도로 3공구 구간의 낙생터널 공사로 건물 곳곳에 균열이 가고 문이 뒤틀리는 피해가 심각하다. 좋은절측은 8월 31일 스님 10여명과 신도, 불교환경연대 등과 함께 해 터널 공사 현장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글 · 사진=고영배 기자

교육 · 문화 등 9개 분야 토론

불교정책토론회 개최

불교의 미래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불교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정책기획단(공동단장 승원 · 허경만)은 9월 3~13일 오후 2시 불교인재개발원 2층 회의실에서 불교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에서는 교육 · 문화 · 환경 등 불교와 관련된 정책적 관심분야를 9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다.

9월 3일에는 불교관계법을 정리해 보는 것을 시작으로 4일 환경 · 생태, 5일 국제사회, 6일 불교콘텐츠, 7일 남북불교 관련 정책을 살핀다. 9월 10일에는 문화 · 문화재 관련 분야를, 11일 교육 · 청소년, 12일 사회 · 복지, 13일 불교미디어 분야를 점검한다. 14~15일에는 분야별 추진팀과 발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워크숍을 열어 정책 의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서로 작성할 계획이다.

불교정책기획단은 "토론회를 통해 정리된 정책 제안사항을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 관계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왼쪽)이 지관 스님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통도사, 北 수해복구 성금 전달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북한 수해복구 성금 3300만원을 8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전달했다.

성금은 통도사 본말사 차원에서 모금했으며, 특히 통도사 보광선원 대중들도 참여해 해제비 300만원을 모아 전달했다.

지관 스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남동우 기자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연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아산 한국증권연수원에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템플스테이 사찰의 브랜드화 전략(사무국장 마가 스님) △사찰건축의 이론과 실제(신영훈 한옥문화원 원장) △템플스테이 운영과 인력관리(유필화 성균관대 GSB 부학장) △템플스테이 홍보마케팅 전략(손상만 제일기획 인터랙티브 미디어 팀장) △불교문화콘텐츠의 지적재산권(김형진 국제변호사) 등 총 9개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은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I love Buddha / 생각을 쉬기

용정운(www.zentoon.com)



조계종 중신회, WFB 회원 가입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이하 WFB) 회원으로 가입했다. WFB 집행이사회는 8월 22~23일 일본 도쿄 프린스호텔과 증상사에서 제7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지난해 3월 회원가입을 신청했으며, 이번에 가입이 결의됨에 따라 2008년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WFB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회원으로 최종 가입하게 된다.



팬 와나메티 WFB회장(가운데)과 손안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

WFB는 1950년 미얀마 양곤에서 결성된 세계불교 국제협력조직으로 한국지부위원회는 1963년 결성됐다.(02)733-7277

여수령 기자

친공청소 · 물걸레청소 · 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문의 및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Intelligent Home Robotics
KM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전등록 강좌안내

출가스님들만의 공부모임 경전연구회가 창립 3년이 넘어섰습니다.

◆경 전 : 전등록
◆강 주 : 지리산 칠불사 통광큰스님
◆개 강 : 10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장 소 : 옥수동 미타사내 대승암
◆수강신청 : 9월 30일 까지(입금후 전화요망)
◆과 정 : 1년 전후
◆요 일 :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3시 - 6시
◆수 강 료 : 6개월 30만원(교재무료제공)

■ 경전 연구회 창립 목적

(1) 불조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법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2) 대덕큰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전통을 계승발전 시킨다.
(3) 조계종산하 불교대학의 교수사를 양성 전종도의 교육화, 조직화, 체계화에 기여한다.
(4) 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창조하고 포교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며 1년에 2번 이상 산철에는 전통선원에 입방하여 선원장 스님들의 지도아래 정진 수련하는 전통을 세운다.

※ 뜻을 함께하는 조계종(비구,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으로 옮겨 청정승가의 가풍을 확립하는 디딤돌이 됩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458701-04-155072 (예금주:김영희)
◆문의전화 : 회장 011-420-7838(지장스님)
총무 011-9038-9594(법정스님) / 재무 010-3825-2158(승지스님)

"수행과 삶이 하나 되는 길"
특강안내 : 9월 6일 오후 3시-5시. 충주 석종사 혜국큰스님
출가승 모두에게 개방합니다.(무료)
주 최 : 경전연구회 일동



"봉원사 도난문화재 되돌려 달라"

조계·태고종, 국가 대상 소유권 반환청구소송 공동 제기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서울 신촌 봉원사의 도난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조계종과 태고종 봉원사는 8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98점의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98년 도난당한 이들 문화재는 2000년 도굴단이 검거됨에 따라 현재 국가에 압수되어 있는 상태다.

2000년 당시 국가가 도굴단에게서 압수한 문화재는 수백여 점에 달한다. 하지만 당시 봉원사는 문화재의 도난 여부조차 알지 못했다. 범행이 워낙 완벽했던 데다, 복장유물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봉하지 않아 사찰에서도 어떤 유물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복장유물의 원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도굴범 중 한 명인 서상복씨(대구교도소 수감 중)가 지난 6월 '한국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1999년 여름 봉원사에서 파손되지 않은 <직지> 완질본을 훔쳤다"고 주장함에 따라 봉원사 복장유물이 도난당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서씨는 지난해 9월 삼성리움박물관이 경기도 가평 현등사에 반환한 사리와 사리기를 훔친 인물이기도 하다.

조계종과 태고종 봉원사는 서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복장유물이 도난당한 사실과 검찰에 의해 압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으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소장에는 조계종 봉원사 주지 법안스님과 태고종 봉원사 주지 환우스님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대상에는 <능엄경 언해본>을 비롯한 금사경과 다라니경 등의 성보가 포함되어 있다.

봉원사는 현재 법적으로 소유권은 조계종에, 점유권은 태고종에 귀속되어 있는 이른바 '분쟁 사찰'. 조계종과 태고종 두 종단 모두 소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잡음이 여러 차례 일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함께 힘을 모아 문화재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계종과 태고종 봉원사는 "도난당한 불교의 성보(聖堡)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문화재보존에 대한 연대책임의 중요성을 느껴 대승적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계종과 태고종 봉원사는 8월 8일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14일 참고자료를 제출했으며 20일 피고인인 대한민국에 소송안내서가 발송돼 23일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김형남 변호사는 "9월 20일경 쯤 회신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송이 승리하게 되면 해당 문화재는 신촌 봉원사에 모셔지게 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8월 27일 부산 동명불원 앞마당에서 열린 '어르신 초청 큰잔치'에 지역 어르신 70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백중, 孝정신 되새기는 날로"

부산 동명불원 '어르신 초청 큰잔치' 개최

부산 동명불원(주지 정산)이 백중 회향을 맞아 '동명 어르신 초청 큰잔치'를 열었다.

8월 27일 동명불원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700여명이 참가했다.

정산 스님은 이번 행사를 맞아 "백중은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가를 천도하며 효를 실천하는 날일 뿐 아니라 효 정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날이다"며 "이번 행사를 맞아 효를 실천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사물놀이와 양반춤, 장기자랑 등의 프로그램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동명선원은 9월 7일과 15일 수험생을 위한 무료 입시특강을 마련한다. 9월 7일 오후 1시에는 메가스터디 교육연구소 이석록 소장이 출제경향분석, 입시전략 및 요령을 소개한다. 15일 오후 1시에는 사찰음식연구회장 홍승 스님이 수험생에게 맞는 사찰 건강음식을 소개한다. 11월 10일 오후 9시에는 합격기원 촛불기원법회도 열린다.(051)626-4337

익산 제석사지 발굴조사 착수

문화재청, 2009년까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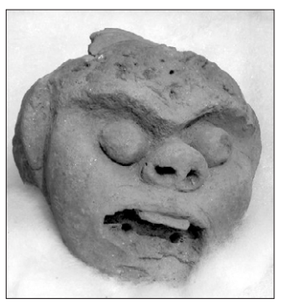
백제시대의 왕실 사찰로 추정되는 익산 제석사지(사적 제405호)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8월 30일 전북 익산시 왕궁면 제석사지에서 개토제를 개최했다. 발굴은 오는 2009년까지 계속되며 사역 중심부인 목탑지와 금당지, 강당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백제 30대 왕인 무왕(600~641년)이 수도를 금마로 옮기기 위해 세운 왕실 절로 추정되는 제석사지는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에 의하면 정관 13년(639)에 세워져, 같은 해 뇌우로 인해 불당과 낭방(廊房) 등이 모두 불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1993년 제석사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해, '제석사(帝釋寺) 명(銘)' 명문와와 백제 당초문 암막새를 비롯한 7세기 당시의 기와를 다량 발굴한 바 있다.

또한 2003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불에 탄 소조불상과 연화문 수막새 등이 출토되기도 했다.



제석사지 출토 소조악귀상.

여수령 기자

'탱화로 보는 불교 우주관' 특강

8월 26일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신용철 통도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초청해 '탱화로 보는 불교 우주관'이라는 주제로 대중 특강을 열었다.

신씨는 "불교문화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불교회화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보존해 나가지 않는다면 후손들은 그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며 "수백 수천 년을 이어온 불교미술의 제작법과 전통을 지키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을 주최한 홍법사 청년회는 앞으로 9월 9일과 10월 14일 각각 오후 2시에 걸쳐 총 3차례에 걸쳐 대중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051)508-0345

하성미 기자

일향미술사연구원 수강생 모집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원장 강우방)이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5일 개강하는 수요반은 '한국미술사 개론'을 주제로 고구려 고분벽화와 고구려 기와에 대해 알아본다.

9월 6일 개강하는 목요반은 '한국미술사 특강'으로 꾸며진다. 강의는 11월 8일까지 오후 7시에 열린다. 고려시대 건축과 단청에 대해 인문학적 미술사학적으로 접근해 살펴보며, 회화나 조각에 관한 특강도 마련된다. 수강료 어른 30만원, 학생 20만원.(02)363-1114

여성주의 상담 주제 월례 특강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9월 12일 오후 4시 조계사교육관 2층 제4강의실에서 여성주의 상담을 주제로 월례 특강을 개최한다.

여성주의 상담이란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을 개발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상담기법을 말한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담을 실시해 자신의 정체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강은 상담심리사인 전나미 아하섹스 상담팀장이 맡는다.(02)737-8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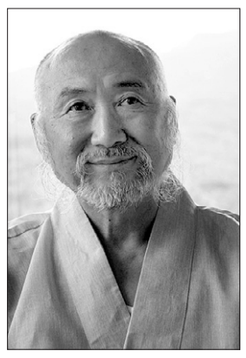
상원사, 대웅전 낙성식 봉행

양평 상원사(주지 호산)는 9월 13일 오후 3시 대웅전 낙성식 및 제7회 산사음악회 '상원사 맑은 물소리'를 개최한다. 오후 3시 대웅전 낙성식을 봉행한 후 오후 7시에 산사음악회가 펼쳐진다.

상원사와 양평사암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음악회에는 가수 덕림 스님과 심진 스님을 비롯해 장사익, 한영애, 이종만,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트, 아프리카 무용단 아닌카(AANINKA) 등이 흥겨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031)773-4634

'禪문화' 대중 속으로

범주 스님 '부산 선 문화센터' 개원



2005년 부산 APEC 때 범어사에서 달마 포퍼먼스로 세계의 영부인들을 놀라게 했던 범주 스님(사진)이 부산 금정구에 '부산 선 문화센터'를 개원한다. 개원 법회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범주 스님은 "선과 예술을 한 길로 추구해 왔다"며 "대중 가까운 곳에서 깨달은 바를 나누고 함께 수행하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선문화 센터를 개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얼핏 보면 화랑과 같은 분위기를 내는 선문화센터는 특별한 장식을 하지는 않고 담백한 공간의 맛을 최대한 살렸다.

범주 스님은 매월 1·3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정기 법회를 봉행하며 1·3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에 선에 관한 강의 및 수련 시간을 마련한다. 또 선다도(禪茶道)를 통해 '생활 속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다도 수업을 진행하고 선묵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범주 스님은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한 정법을 구현하지 못하고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생활과 선이 하나가 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진리라는 것은 시공이 없지만 형식과 방법이 그 시대와 공간에 따라 사람에게 맞도록 변해야 한다"며 포교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범주 스님은 1976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선묵화 초청전 및 퍼포먼스로 선문화를 알리고 자비의 집과 국제선센터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를 개최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및 만해 축전 기념 초대전 등에도 참여했다. (051)518-5900

하성미 기자

"동산문화재 훼손 막자"

문화재청, 보존·관리 교육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9월 5일 오전 9시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강당에서 동산문화재 소장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와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와 관련해 일반 동산문화재의 공개 활성화에 따른 문화재 도난 및 훼손의 우려를 해소하고, 소장자와 관리자의 보존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별 순회교육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개인소장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류·회화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방법과 도난방지 예방법 등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문화재 소장·관리자뿐 아니라 문화재 관련 업무종사자, 문화재 보존관리방법 등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042)481-4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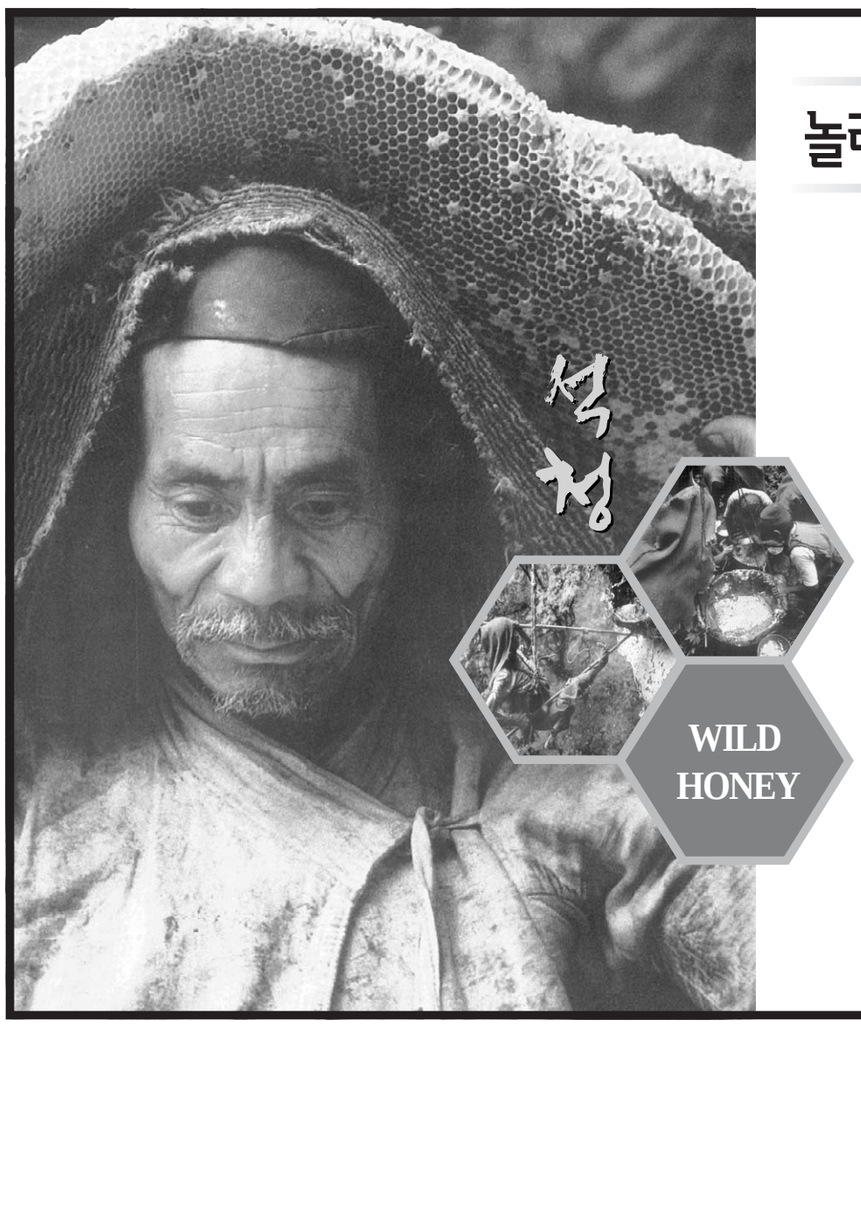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지장왕보살 김교각 스님 탄생 1212년 추모헌다례

지장왕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김교각 스님의 탄생 1212주년을 맞아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가 9월 8일 '제10회 지장왕보살 김교각 스님 성도 및 추모 헌다례'를 봉행한다.

백천사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헌다례 및 '지장왕보살 큰축제'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지장보살 김교각 스님 기념사업회'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오전 11시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영화 '구화산의 신화, 김교각 스님' 상영에 이어 월운스님(봉선사 조실)의 법문이 마련된다. 교각 스님 행장 및 지장보살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펼쳐진다.

무구 스님은 "신라의 왕자로서 중국 4대 불교성지 가운데 하나인 구화산 지장성지를 개창하신 지장왕보살 김교각 스님의 뜻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031)577-6433 **여수령 기자**



놀라운 NEPAL 히말라야 석청(꿀) WILD HONEY 효과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산 2500-4000M의 높은산에서 서식하는 '아피스 라보리오사(Apis Laboriosa)'벌이 만들어 내는 천연 꿀로서 옛날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다.

이벌은 덩치가 크고 사나우며 높은 바위에 벌집을 짓고, 벌집의 크기는 자동차 크기만한 것도 있다. 석청을 채취하는 사람을 '바랑케'라 부르며, 밧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높은 바위속으로 올라가 석청을 대나무장대로 채취하며, 밑에서는 연기를 피우며 거물로 떨어지는 석청을 받는다.

석청은 난치병 치료에 특효하며 히말라야 한의사들은 만병통치약이라 부른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며 네팔왕실에서는 국가를 방문하는 귀빈들에게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석청이 알려져 우리나라 KBS에서 2번이나 현지에서 석청 채취장면을 촬영하여 방영한 바 있다. 고질병, 난치병 치료에 효과와 체험 사례들이 알려져, 여성잡지「Queen」에 당뇨치료 효과가 특집으로 소개되어 국내에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 굳어있는 세포를 생성시키고, 15일만 복용해도 정력이 왕성해져 '비아그라'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 복용후 2~3주가 지나면 오장육부가 좋아져 피부가 윤택해진다.
- 암, 간염, 위궤양, 위염, 중풍, 당뇨, 고혈압, 야맹증, 아토피성피부, 관절염, 기관지천식, 신경통, 중이염, 만성두통, 변비, 성기능 장애등 고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혈액순환장애)
- 체질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아픈 부위가 화끈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롱아롱하고, 땀이 나고, 설사나 대소변이 대량으로 배설되고, 의식이 몽롱해지고, 눈물이 나기도하는 증세들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체질이 변하고 있고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면 된다.

KOREA.NEPAL EXCHANGE CULTURE ASSOCIATION
한국.네팔 문화교류협회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159-48
TEL : 02)2692-5363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690-1
TEL : 052)264-0126, 0577
M.P : 010-5559-5570 / 010-7159-4759
E-mail : JUNGRAN1227@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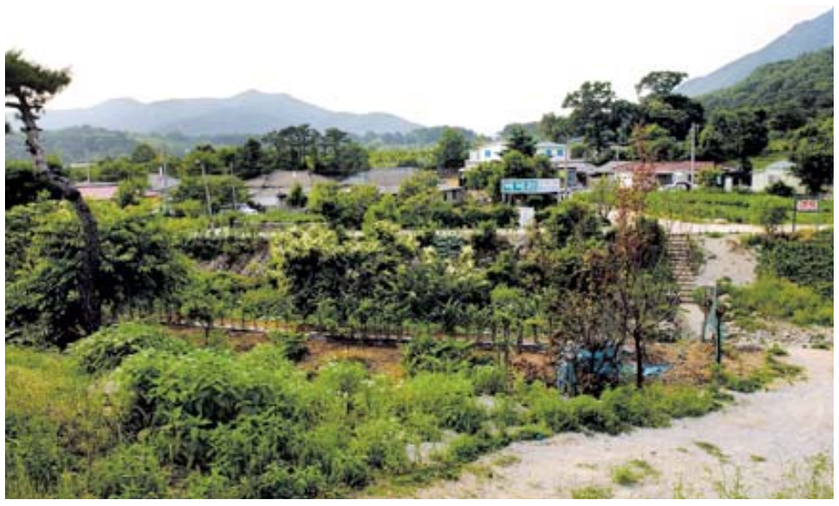
正品供給

- 가 격 : 600g(15일분) 30만원 / 1kg(1달분) 50만원
  ※현재 백화점 쇼핑몰에서 1kg(1달분)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문 의 : 010-6232-6295 / 010-5559-5570
  054-751-9755
- 온라인 : 신협 10115-13-032450 최정란 / 경남은행 540-21-0500183 최정란
  (입금후 2일이내 배송)

절·마을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길



영원전 뒤 누운 불상 모양의 산능선.



양화리 전경.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26 계룡산 신원사

그래서 계룡산에 왔는데, 계룡산에 개인 도량이 없어요. 땅을 샀는데, 길이 없다고 형질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 믿어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드라고."

이용우(65)씨는 내게는 어떤 답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내게 그가 원하는 답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는 그에게 그의 세계에 대해 묻는다.

"그게 내가 보기에는 믿어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잘 되드라고. 상대 아픈 곳이 내 몸으로 와서 아플 수도 있고, 말하자면 손이 청진기라. 아픈 데로만 가. 신원사에 몇 사람이 서울서 왔는데, 부유층 같

약사여래 믿는 당집 많아
원주민 대부분은 농사 일
절뒤 누운 부처님 모습 신비
중악단 등 민속유물과 '이웃'

아. 그런데 제일 나이 든 양반이 이상하니 시들시들해. 물었더니, 체했나 봐. 그래 만져주고 내려주니까, 고맙다고 막 그래."

자신이 치료했다는 사람들 이야기다. 그는 그가 받은 영으로 사람을 치료하였다고 한다. "계룡산이 쎄고 저희 같은 사람도 산에 갔다 오면 굉장히 시원해져요." 그는 한 때 사람의 병을 만졌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계룡산이 굉장히 영험하고, 여기는 병을 낳게 하는 약사여래의 기운이 굉장히 세요. 그래, 만지고 뭐 하는 사람이 많지요."

굿당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 "하늘의 빛과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 산에서 공기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해요. 등산할 때 얼굴에 쓰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건 가면이라. 하나님도 부처님도 땅님도 다 불러요. 그렇게 불러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런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해서 만약 다리가 아프면 마음으로 묻고, 다리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내가 어딘가 아프면, 계속 아프면 그런 손님이 오려나하고 나서면 그런 사람이 와요."

지금은 굿당을 아내에게 맡기고 자신은 직접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이용우씨. 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이 대신 아픈, 다른 사람과 한 몸처럼 느끼는 옴살(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이다.

신원사는 계룡산의 남쪽에 위치한 절이다. 절로 가는 길엔 참나무 종류가 많다. 참나무 몸통의 상처는 오래 전 열매를 채취하기 위해 사람들이 두드렸던 자국이다. 상처의 역사서를 간직한 참나무는 여전히 푸르다.

신원사는 조용하다. 신이 머무는 곳이란 이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절의 뒤쪽으로 누운 부처님 형상의 바위 능선이 보인다. 절 옆에는 중악단이 이웃집처럼 있고, 중악단 앞에는 고려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5층 석탑이 있다.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공사가 한참이다. 잔디가 심어진 앞마당에는 5층 석탑과 석등 각 1기가 있다. 백제 의자왕 12년(652) 열반종의 개종조인 보덕 선사가 창건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 흥망을 거듭하다가 고종 13년(1876) 보련 화상이 중건하면서 절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한다.

요사채로 보이는 건물에는 '新元寺'라는 현판이 붙어 있다. 낙관 자리를 파내고 새로 끼워 넣은 흔적이 역력하다. 현판을 기증하였을 원래의 이름은 사라지고, 도둑질한 이름만 남아있는 것인가? 역사에서 위증은 드러났는데, 진실을 알기는 힘든 경우가 있다. 이도 그와 같다.

노인 회장 집을 찾아 대문에 들어서려는데 손사래를 친다. 환자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기자라고 하였더니, 마침내 대문 안으로 들인다.

"이 마을이란 데는 무궁무진해서 나는 그 역사를 모릅니다."

정명산(79 · 양화리)씨는 퉁명스럽다. "우리 옛날부터 살아온 노인들 보면 먹을 거 없어 일본놈들한테 뺏기고 자운영 동사풀 삶아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는다하며 살았는데, 현 시국은 자손들이 너무 호화롭게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웃집에서 왔다는 박옥림(67)씨가 콩 터는 일을 도와주고 있다. 집에 있는 환자는 정씨의 아내인데, 정씨보다 한 살이 더 많고, 치매를 앓고 있다.

"똥오줌 다 받아서 하고, 그래도 이런 양반 칠을 해 가지고, 세상에는 이런 남자가 없어."

박옥림씨의 말이다. 무릇 사랑이란 그 사람이 아팠을 때 똥오줌을 치워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리라. 누운 부처를 다시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

공주=이대흠(시인 · 본지 객원기자)

중악단 **구증회** 회장



계룡산에는 나라에서 주관하여 산신제를 지냈던 중악단이 있다. 계룡산 중악단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계룡단을 만들어 산신께 제를 올렸던 곳인데, 1651년(효종2) 미신이라 하여 단을 폐지하였다가, 1879년(고종16년) 명성황후의 명에 의해 재건되었다. 그 후 국가 주도의 산신제를 지낸 곳으로는 묘향산의 상악단과 지리산의 하악단이 더 있었는데, 모두 소실되고, 지금은 계룡산 중악단(보물 제1293호만이 남아있다. 계룡산 산신보존회 구중회 회장(공주대 국문과 교수 · 사진)을 만났다.

"보통 나라를 세울 때는 5악이 있어야 해요. 일월오악도라고 아세요? 일월오악도는 왕 뒤에 있던 병풍 그림인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산과 강이에요. 그래 어깨에 산도 있고, 용도 있고 그래요. 흰 게 달이고 빨간 게 해야."

나라에는 오악이 있어야하므로 산신제를 지내려면 삼악이

국가 주도로 산신제 지내는 곳
산신하강일인 3월 16일 지내

아니라 오악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삼악밖에 없다. 그 이유를 구 회장은 건설하려다 중단된 것으로 본다.

구 회장은 민속학이나 복식 연구 등에 있어서 깊이가 남다르다. 이야기는 자유자재로 불교와 성리학과 우리의 전통사상 등을 넘나든다.

"봄에는 예축제, 가을에는 감사제고, 거의 틀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3월 16일 전후에 토요일, 일요일 끼고 하지요. 3월 16일이 산신하강일이라서 그래요."

입구엔 솟을삼문이 있는데, 중앙의 문은 오직 왕만이 출입할 수 있었고, 사람 중심으로 오른쪽 문은 스님이, 왼쪽 문은 나그네가 드나들었다고 한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 건물인 중악단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위엄과 무게가 느껴진다. 현판 글씨는 고종 때 토문 감계사로 백두산정계비를 답사하여 청과의 국경분쟁 해소에 노력하였던 이중하 선생의 글씨다. 담장엔 기와로 예쁘게 새긴 수(壽), 복(福), 길(吉) 등의 글자가 보인다. 추녀마루 위에 7개의 잡상이 있는데, 담장의 글자와 함께 궁전 건물에만 할 수 있었던 양식들이라 한다. 단청이 거의 벗겨진 중악단이지만, 구 회장의 관심과 애정은 남다르다.



중악단

www.njutcm.edu.cn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모집

조기유학생모집
초 · 중 · 고1,2학년(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 학교)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내신 80점 이상)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이상)	

2. 학교 소개
· 중국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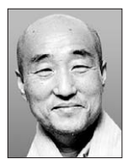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삼화불교대학 교학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9월 21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市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제출서류
· 최종 재학 및 졸업증명서 · 건강진단서
· 여권사진10매 · 입학신청서 1통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일주문



준·부사관 불자 수련회 개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은 9월 4~6일 인제 만해마을 일원에서 '제4회 육해공군 준·부사관 불자 수련회'를 개최한다.



북한 수해복구 지원 선적식
참여불교운동본부 이사장 정여 스님(부산 여여선원장)은 8월 31일 북한 수해지역에 라면 2만개를 보내는 '북한 수해복구 지원 선적식'을 개최했다.



대흥사 21대 주지 진산식 봉행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8월 31일 대흥사 대웅보전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다.(061)534-5502



불교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교육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송묵 스님은 9월 8일부터 3개월간 대각회 정토사분원 향천선원에서 26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과정을 진행한다.



사단법인 등록 기념 법회 개최
광주불교교육원장 영조 스님은 8월 29일 사단법인 등록을 기념하는 법회와 이재수 박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062)228-9098



제7회 총지종 경로법회 개최
총지종 효강 종령은 8월 29~30일 충주 호 리조트에서 제7회 총지종 경로법회를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잠실법당서 불상이운법회 봉행
서울지하철법우회 지도법사 화암 스님(양평 사나사 주지)은 9월 11일 서울지하철법우회 잠실법당에서 불상이운법회를 봉행한다.(02)520-5012



'행복하게 사는 법' 주제 법문
강릉 성원사 주지 주경 스님은 9월 7일 오후 2시 창원대 대강당에서, 10일 하동군청 평생교육원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주제로 법문한다.(033)661-5736



중앙신도회 임원 워크숍 개최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9월 7~8일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용맹정진, 비전 업 중앙신도회'를 주제로 임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관습의 정치> 출판 기념회
국회정각회원 이은영 의원(민주신당)은 9월 5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관습의 정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02)788-2101

"반세기 이어온 청년열정으로 재도약"

창립 50주년 맞는 마산불교청년회 송학찬 회장



"마산불교청년회는 1957년 불교 정화 운동이 일어나고 전쟁의 아픔을 안고 있었던 그 시대에 불법을 홍포하고 시대의 부름에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 회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지만, 21세기 대안 종교인 불교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원들을 보면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씨를 느낍니다."

8월 25일 마산 사보이 호텔 5층 연회실을 가득 메운 마산불교청년회 선·후배들 속에서 송학찬 회장(사진)을 만났다. 마산불교청년회의 5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하며 격려하고 축원하는 자리였다.

50년, 반세기이다. 격동하는 시대의 중심에서 역사의 아픔을 등에 지고 민주화 운동과 불교정화 운동에 동참해온 마산불교청년회다.

"1955년 불교 정화 운동으로 성장통을 앓고 있던 그 당시 마산에서는 <반야심경> 강의에 관한 포스터가 거리에 붙었습니다. 그 포스터를 보고 마산에 거주하던 중·고등학생들은 마산 추산동의 한 포교당(현재 정법사, 주지 지태)으로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이수산 거사님의 열정적인 강론과 당시 주지 스님이셨던 고암 스님과 이봉재 신도회장님의 도움으로 요사채를 쓰며 마산불교학생회를 결성하고 배움의 목마름을 적실 수 있었습니다. 2년 뒤 그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고 배움의 열정을 잇기 위해 1957년에 마산불교청년회를 창립한 것입니다."

송 회장은 창립 당시 배움의 열정을 강조하며 선배들의 역량과 활발한 활동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후 마산불교청년회는 회지 <설산(雪山)>을 펴내고 연극 '지옥도'를 순회공연하며 불법 홍포에 나섰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며 거리운동의 선두주자로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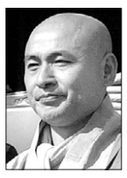
현재 마산불교청년회는 매달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을 지도법사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불교교리 공부 및 경전 학습은 물론 요가, 태극권, 단소 등의 문화활동과 사찰순례를 통해 모임을 꾸려가고 있다.

초창기에 비해 활동하는 청년이 줄어 안타깝다는 송 회장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정의 자립을 꾀하기 위해 수익 사업도 펼치고 있다.

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 청년모임 중 경남대학교 불교학생회와 연대하여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한 재도약과 청년포교 실현을 다짐했다. (055)245-6544 하성미 기자

"스님들의 노후복지 대책 마련 절실"

자선음악회 연 철안 스님



"스님들의 노후 대책은 일반 대중들 못지않게 절실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그동안 제방의 수행현장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열악한 노후복지문제를 보며 늘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노후 복지 문제만 제대로 해결된다면 각 사찰의 주요 요직을 맡으려고 욕심 부리는 일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지난 8월 25일 남양주 봉선사 옆 아프리카문화원에서 '승려 노후복지기금마련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연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사진)은 스님들의 노후복지 문제는 지금부터 해결에 나서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한다.

"올 5월, 봉선사 대중스님 43명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줬습니다.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자는 의도였지요.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도 4천여만의 기금을 마련했는데, 앞으로 교구 차원에서도 복지 기금 마련에 대대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철안 스님은 주지 임기가 끝나더라도 차기 집행부에 노후 복지 기금 마련운동을 인수인계해 줘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대선출마 선언한 불자 후보

"정보문명 시대 부응 새 비전 제시할 것"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구문명 대 신문명의 대결이 돼야 마땅하다. 신문명 후보가 당선돼야 오늘의 국가적 위기가 극복되고 정보문명시대의 새로운 비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월 9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사진)는 8월 23일 불교계 언론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보문명시대 곧 신문명의 관점에서 신문명 이념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표 대표는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 대통령 후보자 모두 산업문명시대 곧 구문명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라며 "대량실업과 비정규직 양산, 소득양극화, 외국상품 국내시장 지배와 중소기업 몰락, 유통업 대형화에 따른 영세상인 몰락, 노동시장의 경직화에 따른 청년실업 양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보문명시대의 이념과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 선암사에서 도성 스님(부산 태종사 주지)이 주지로 있을 때 1년 정도 출가한 적이 있는 장기표 대표(법명 우상)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1주일간 사찰에서 사분정진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전통사찰들이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받아내면 좋겠다"고 불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남동우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사경변상도 특별강연회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은 8월 29일 '사경변상도의 세계, 부처 그리고 마음' 기획특별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파 스님(통도사 서운암)은 '수행과 공덕으로서의 사경'을 주제로 강의했다.

마산금강노인복지관 어르신봉사단 발족



마산금강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곽인철)은 '따란마음어르신봉사단' 발대식을 8월 27일 복지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곽인철 관장은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자원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어르신봉사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055)221-8445

정토사, 정토회보 150호 발행 기념식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8월 29일 '불교 천자문 출판 및 정토 회보 150호 발행 기념식'을 정토사 설법전에서 개최했다. 덕진 스님은 "불자들의 화합과 대화의 창으로 마련한 정토 회보가 150호를 맞았고, 이를 기념해 <불교천자문>을 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052)258-9944

네팔 노동자 프렘라이씨 9월의 환우 선정



4년 전, 세살배기 막내의 울음소리와 아내의 얼굴을 뒤로하고 한국을 찾은 프렘라이(34·사진)씨. 불교국가 네팔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산업연수생이 됐다.

프렘라이씨는 3년간의 산업연수생 기간이 끝난 시점에 자가면역질환인 낙엽상 천포창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한번 투여에 350만원이 드는 약물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다.

1천만원이 넘게 드는 약값을 마련하지 못한 그는 하루빨리 병이 나아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0

공익법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교육원 부설

중앙불교대학원 남·여 <승려(행자) 모집>

<3개월 무료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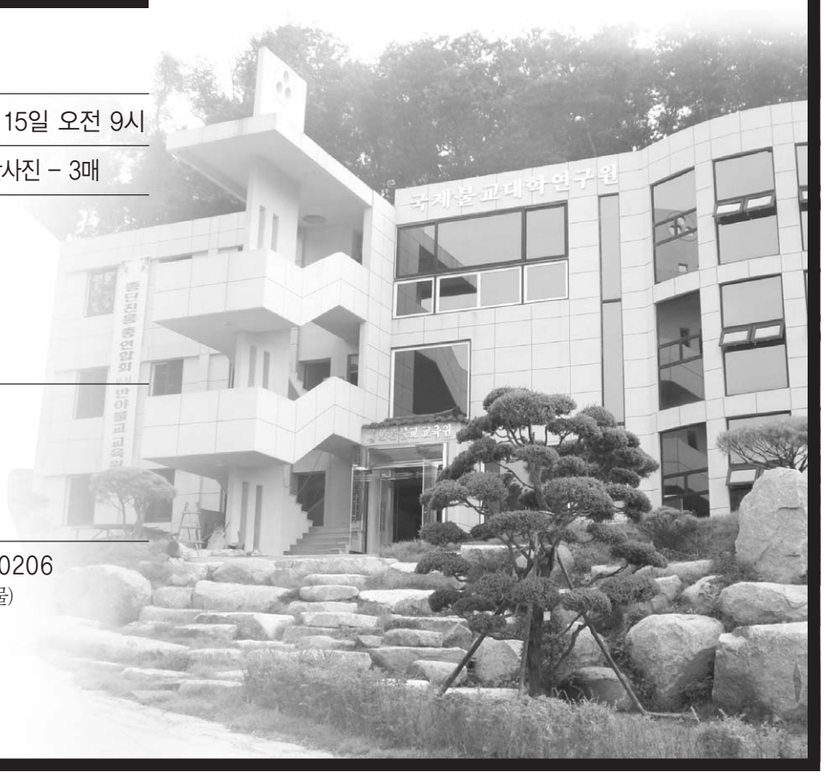
기본과정	사물(목탁,요령,태징,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범음,범패,작법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등
불교학 개론	소승과 대승불교, 근본불교, 화엄사상, 반야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선사상, 밀교사상, 유식사상, 선불교,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 불교학을 알아야 법문(설법)을 잘한다. 교육하면서 지도자적 발성 지도함.

◆ 모집인원 : 30명
◆ 원서접수 : 2007년 9월 10일까지 ◆ 개강일시 : 2007년 9월 15일 오전 9시
◆ 제출서류 : • 입학원서 – 1통 • 주민등록등본 – 1통 • 반명함판사진 – 3매
◆ 중앙불교대학원 교수진
– 회암스님 · 前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주지.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 연구학 출신. 철학박사
– 마정스님 · 종단진흥회 부회장 겸 임제선학원 원장. 철학박사
– 혜성스님 · 바라범패 전수자. 구화종 총무원장
* 기타 필요강사 초빙 강의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전사항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단 숙식 거주자만 접수함(한달숙박비 50만원)(지도강의료는 무료임)

◆ 문 의 : 본대학 사무국 : 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5-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영평사내 국제불교대학연구원 건물)



공익법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교육원 부설 중앙불교대학원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모두를 위한 구걸 매우 기쁘게 일해”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 총재 린첸 칸도 방한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 홍보 및 활동 지원 요청
대중강연 · 간담회 등 통해 종교 · 교육의 자유 호소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임원과 만나 문화 교류 논의도

66명의 여성들이 한밤중에 국경을 넘었다. 중국에 나라도 문화도 빼앗긴 이들 티베트 여성수행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2년간 걸어서 히말라야를 넘은 이들이 도착한 곳은 인도 다람살라. 그러나 티베트망명정부가 들어선 다람살라에 병든 그들이 편히 쉴 곳은 없었다. 망명자들도, 망명정부도 가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여성연합(TWA)의 대표였던 린첸 칸도(Rinchen Kando · 62)에게 이들을 돌보도록 했고, 끊임없이 탈출해 오는 여성수행자들을 돕기 위해 1987년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Tibetan Nuns Project, 이하 TNP)를 설립했다. 티베트망명정부 종교문화부 산하에 설치된 TNP는 티베트 여성수행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자신의 이름조차 쓸 수 없었던 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경전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이러한 TNP를 이끌고 있는 린첸 칸도 총재가 8월 27일 방한해 한국과 티베트 여성수행자 교류의 물꼬를 텄다.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린첸 칸도는 27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중강연과 간담회 등을 통해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의 활동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다.

린첸 칸도는 티베트 망명정부에서 장관이 된 두 번째 여성으로 1993년 내무부와 보건부 장관을, 1995~2001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 1984년 티베트여성연합을 창립해 다람살라에 정착한 티베트 여성을 돕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87년부터 TNP 총재를 맡아 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돌마링을 비롯한 여성수행자 사찰을 건립한 공로로 미국 평화유지상을 수상했다. 달라이 라마의 막내 동생인 켄도 최겔 린포체의 부인이자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린첸 칸도는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이 첫 방한이라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진 않지만 한국과 티베트는 생활과 문화, 신앙 등에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수행하고 있는 티베트 여성수행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TNP 운영을 위해 전 세계를 다니며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린첸 칸도는 “나 자신을 위해 ‘구걸(begging)’하는 것이라면 창피하겠지만, 모두를 위해 구걸하는 일이므로 매우 기쁘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하는 린첸 칸도.


8월 27일 열린 대중강연 모습.

TNP 총재로서 그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다. 비록 지금은 조국을 잃고 망명생활을 하고 있지만, 티베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린첸 칸도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강연에서 “역사적으로 여성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따라서 여성이 활발한 정신적 활동을 펼치는 것은 전세계의 평화와 조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TNP의 비전은 티베트 여성과 여성수행자의 정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TNP는 티베트 망명 여성수행자뿐만 아니라 교육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인도 여성과 아시아 여성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린첸 칸도는 8월 28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임원스님들을 만나 한국과 티베트 여성들의 문화교류를 논의했고, 29일 국회에서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국가정체성 보존을 위한 교육 · 문화정책 현황’을 주제로 간담회를 여는 등 짧은 일정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TNP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대중강연과 여성지도자 면담, 울진 불영사와 부산 통도사를 참배한 후 9월 4일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221-925855(예금주 한주영) 홈페이지: www.tnp.org (02)722-2101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티베트 여성수행교육기관

TNP는 현재 700여 여성수행자들의 생활과 교육 •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TNP가 지원하는 사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혼자서 안거하는 수행자에게는 TNP에서 별도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TNP는 △티베트의 문화와 종교적 전통 보존 △망명지에서 여성수행자들의 삶의 조건과 건강 향상 △티베트 여성을 위한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교육 제공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 스승 배출 △자활할 수 있는 여성수행시설 건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돌마링 승가대학

TNP의 후원으로 다람살라 근처에 세워진 여성수행도량. 최고의 여성수행자교육을 지향하며 종파와 인종을 초월해 티베트 종교전통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초적인 문자 교육에서부터 티베트어, 종교철학, 영어, 컴퓨터 등의 일반교육과 최고과정의 불교철학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년간의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졸업장이 주어지고 졸업생은 티베트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다른 여성수행자들을 지도할 수 있다. 티베트어나 불교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에 준하는 게쉬마(Geshema)를 획득할 수 있다.

■ 숙셉 승가대학

닝마파(Nyingmapa)의 전통에 따라 9년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찰이자 교육기관. 남부 인도의 남도링 대학과 같은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이 과정의 여성수행자들은 네팔 등지에서 안거와 수행을 하기도 한다. 교육과정을 마친 여성수행자들은 기초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졸업생들이 학업을 계속하면 탄트릭 철학 전통의 스승에게 주는 켄포(Khenpo) 지위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

■ 게덴 촐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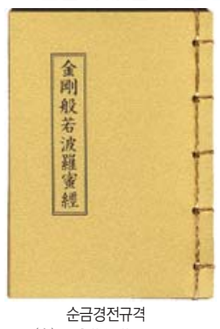
다람살라에서 가장 오래된 겔룩파(Gelukpa) 여성수행도량으로 다양한 연령의 여성수행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TNP는 이곳에 겔룩파 전통에 따른 정규 교육과정을 확립해 여성수행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교육을 통해 게쉬마(Geshema) 학위까지 받을 수 있다.

■ 티록푸르

카규파(Kagyupa) 전통 속에서 경전을 공부하고 의식을 익히려는 수행자를 위한 도량이다. TNP는 이곳에 티베트어와 영어 교사를 제공함으로써 티록푸르의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다.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氣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



순금경전규격
(소) 3.5 × 5cm
(중) 5 × 7cm
(대) 6.8 × 9.7cm
· 반야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대)
· 묘법연화경요품 (중,대)
· 금강경(소, 중, 대)
· 지장보살본원경요품(중)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소형금병풍 규격 :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정진, 영가천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연꽃액자 26 × 26cm


족자 60 × 20cm

금달마, 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은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도 널리 사용합니다. (불사용으로 단체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무늬목염주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소)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공예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약돌 금강염주는 1,500℃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氣와 93% 원적외선, 높은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욱 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마 염주입니다. 진밤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1SET (3EA) 245,000원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修習止觀坐禪法要)

序說 1

본서는 최초로 발심한 사람이 수증(修增)하고 입도(入道)하는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지관(止觀)법문을 총론적으로 밝힌 책이다. 천태지자(天台智者)대사는 일생에 지관법문을 총 네 차례에 걸쳐 설하였다.

그 첫 번째는 원돈지관(圓頓止觀)인데, 형주옥천사(荊州玉泉寺)에 있을 때 설하였다. 이때 원돈묘관(圓頓妙觀)의 이치를 밝혔는데 지금의 마하지관(摩訶止觀)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남경와관사(南京瓦官寺)에 있으면서 옅은 곳에서 심오한 경지로 들어가는 수행차제공부를 밝혔는데 지금의 선바라밀(禪婆羅密) 법문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심천이 일정치 않아 능소능대(能小能大) 할 수 있는 부정지관(不定止觀)을 설하였는데, 지금의 육묘법문(六妙法門)이 여기에 해당된다. 네 번째는 소지관(小止觀)을 설하였는데, 앞으로 지상을 통해서 연재할 수습지관좌선법요(修習止觀坐禪法要)이다. 이는 동몽지관(童蒙止觀)이라고도 한다. 지관법문을 통해서 시방제불과 역대조사가 지관좌선법요를 수습함으로서 성불견성하였는데, 지관법문이야말로 일체 불교수행의 이치를 포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처님 49년 일대장교 골자

'止觀' 두 글자에 포괄

이 책의 제목이 '소지관'이라고는 하나 실로 '마하지관'의 총론적인 개론서이며 수행 입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하지관'과 그 우열을 논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소지관'이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그 내용이 끝없이 질펀한 대부마하지관(大部摩訶止觀)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의 '소지관'은 최초로 발심한 사람의 근기에 맞추어 간략하게 그 작은 부분만을 설하였다. 그러므로 '大'에 상대적으로 대비해서 '小'를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다해도 가이없는 작음이므로 일체 지관법문 그 모두가 이 '소지관'으로 귀결한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환언한다면 '마하지관'은 대지관(大止觀)이라곤 하나 그도 역시 '小'에 상대적으로 대비한 '大'가 아니라 절대보편한 '大'인 것이다.

'小'라고 말하나 그 '小'에는 '小'라는 따로의 모습이 없고, '大'라고 부르나 그 '大'엔 '大'라는 따로의 차별상이 없다. 다시 말해서 '大'와 '小'의 차별이 끊어진 절대보편으로서의 평등법계의 이치를 드러낸 것이다.

대소가 모두 평등법계의 이치를 드러낸 지관으로서 이 둘은 서로가 하나의 이치로 융합하고 자세함과 간략함이 차이가 없이 동시에 모두가 불가사의한 중도지관(中道止觀)으로 귀의한다.

그런데도 대소의 명칭을 달리한 이유는 중생이 처한 차별적인 근기의 알맞음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대소광략(大小廣略)의 방편적 차별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소지관'이라고 했다.

모든 법은 아무런 조건없이 홀로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상대적인 조건을 의지해야만 그 상황에 걸맞는 도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연재하려 하는 소지관법문도 아무런 인연없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인연을 말해본다면 지자 대사에겐 진침(陳鍼)이라는 속가의 형이 있었다. 그 형은 중군참장(中軍參將)이라는 무인벼슬을 하고 있었다. 그의 나이 사십에 이르러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도교의 신선도를 닦은 장과노(張果老)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말하길 "그대의 상호를 보니 금생의 수명이 이미 다하여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했다.

형은 그 말을 듣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출가한 동생인 지자 대사에게 이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더니 지자 대사는 말하였다.

修增 · 入道 길잡이, 불도증득 생사초월 목표
마하지관이라고 大, 소지관이라고 小 아니다

"형님이 나의 말을 듣고 수행한다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이 가르침 받들기를 원하자 대사는 요점만을 간단히 요약한 '소지관'을 서술하여 지관공부를 부지런히 닦으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대사의 형은 이 소지관법문을 의지하여 절실한 마음으로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해가 바뀌어 다시 장과노를 만났더니, 그는 깜짝 놀라면서 "그대가 아직도 죽지 않을 것은 보니 필경 불로장생약을 복용한 게 아닌가" 하였다.

대사의 형은 "아닙니다. 저의 아우가 출가한 지자 대사인데 저더러 지관좌선 공부를 수행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살아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대꾸했더니 장과노는 탄식하며 말하였다.

"불법은 불가사의하여 기사회생을 시킬 수 있는 희유한 법이 있구려."

이로부터 다시 몇 해가 지난 뒤 진침은 꿈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궁전을 보았는데 그 궁전의 편액에 진침이 살집이 '진침당(陳鍼堂)'이다 하고 다시 '십 오년이 지난 뒤에 금생의 인연이 다하면 이곳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 진침은 그곳에 쓰인 대로 십 오년이 지난 뒤에 모든 친척에게 이별을 고하고 결가부좌한 채로 편안하게 임종했다 한다. 이를 통해서 '소지관'은 지자 대사가 그의 속가 형을 위해 그 인연으로 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관법문을 수행하는 자라면 반드시 그 근본취지를 알아야만 한다.

당시에 진침이 지관을 수행한 목적은 금생엔 수명을 연장하고 다시 다음 생에는 천상에 태어나는데 있었다. 이는 지관법문 가운데서 한 점 겉가죽의 이익에 불과할 뿐 지관의 본지는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대사가 설한 지관법문은 모든 중생들이 불도를 성취하고 생사를 벗어나게 하려는 데에 그 근본의미가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지관법문의 진실한 의미라는 점이다. 때문에 본서 제일 마지막장인 증과문(證果門)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듯이 구경성불이 목적이지 단순하게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관수행을 함에 있어서 행주좌와 사위의 가운데서 똑같이 지관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본서의 제목에선 '좌선(坐禪)'만을 말했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좌선을 통한 '정(靜)' 공부가 여타의 일체수행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최초로 발심한 사람이 행주좌와 가운데서 유독 '좌(坐)'를 통해서 지관을 수행하면 비교적 그 이익을 쉽게 얻는다. 가령 좌선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뒤엔 다시 상대적으로 경계를 마주한다 해도 그 모든 조건하에서도 지관수행이 가능하다.

범어 '선나(禪那)'는 번역하면 '정려(靜慮)'라고 한다. 이는 삼매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정(靜)'은 '지(止)'에 해당되고 '려(慮)'는 '관(觀)'에 해당된다. 담연적적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止'라고 하고 그 고요한 '止'에서 동시에 뚜렷하고 분명하게 삼라만상 전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관(觀)'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지(止)'수행을 통해서 '정(定)'이 얻어지고 '관(觀)'수행을 통해서 '혜(慧)'가 일어난다. 이러한 지관법문을 수행하면 바로 그 자리에선 삼매인 '정려(靜慮)'가 한 결같고 정혜(定慧)가 평등해진다. 그러므로 '좌선'을 통한 선 수행은 불가사의한 지관불이(止觀不二) 법문인 것이다.

'법(法)'은 법칙, 즉 궤지(軌持)의 의미이며 '요(要)'는 요도(要道)인데 이는 중요한 관건이라는 의미에 해당된다. 이것이 이 책 제목인 '좌선법요(坐禪法要)'의 간략한 의미이다. 좀 더 부연한다면 본서는 지관좌선을 수행하는 법칙이며 그 법칙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도 그 자체의 모습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軌生物解 任持自性)

'수습지관좌선요법(修習止觀坐禪法要)'라는 여덟 개 글자는 본서의 내용을 총론적으로 요약한 제목이다. 이를 통해서 지관수행공부를 전체로 밝혔다. 그러므로 수행인이라면 이상에서 대략 밝힌 지관좌선의 수행방법을 통해서 수행의 길잡이로 삼고 생사를 초월하고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세간 실상으로서의 苦海

불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흔히들 "불법, 불법이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무엇을 불법이라고 하는지 그 문제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불법이란 세간의 진실한 모습을 그대로 심도있게 끝까지 추구함으로써 그 해결점을 제시해 주는 가르침이라 정의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삼계유정(三界有情)들과 그들이 의지하는 신심(身心)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유정세간(有情世間)이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유정세간의 진실한 모습을 부처님은 과연 어떻게 관찰하고 계실까요.

부처님은 이 문제를 두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유정들이 탐닉하고 있는 세간, 그 진실한 모습을 추구해 본다면 온통 괴로움일 뿐이다.[一切皆苦]"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간에 대한 정확한 관점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삼계고과(三界苦果)로서의 괴로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심이 있는 한 근심 떠나지 않아
일체세간 괴로움의 원인은 업일뿐

첫째 태어나는 괴로움[生苦], 둘째 늙어 쇠잔해 가는 괴로움[老苦], 셋째 병들어 신음하는 괴로움[病苦], 넷째 끝내 죽어야 하는 괴로움[死苦], 다섯째 원한과 증오 속에서도 피할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괴로움[怨憎會苦], 여섯째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하는 괴로움[愛別離苦], 일곱 째 끝없이 추구하는데도 뜻대로 얻어지지 않은 괴로움[求不得苦], 마지막으로 무상하게 천류하는 오온신심의 집착에 의한 괴로움[無常五聚蘊苦]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여덟 가지 가운데서도 무상하게 천류하는 오온신심이야말로 나머지 모든 괴로움이 의지하는 근본입니다. 그 때문에 노자(老子)도 말씀하기를 "나에게 가장 큰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신심이 없다면 무슨 근심이 있으랴"라고 하셨습니다.

일체유정들은 모두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끝내는 사망으로 귀결됩니다. 그 중간에 간단없이 교차하는 원한 · 은애 · 탐구 등 어느 것 하나 괴로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간의 실체적 모습이 온통 괴로움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며, 무엇이 괴로움을 부르는 원인이 되는지 알아야만 하겠지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으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세간에 충만한 괴로움의 원인은 업(業)일 뿐이다"라고 단정하셨

고금대교개통 축원과 新해양시대를 기원하는

완도청정해역, 푸른바다(청해)를 위한 축제





◆일 시 : 2007년 10월 13일 (土) 오전 11시 ~ 오후 5시

◆장 소 : 완도군 고금면 항동 앞바다(원뚝) 특설무대

◆문의전화 : 완도 신흥사 061)554-2634, 수향사 061)553-0990 / 011-9616-1303

◆행사내용

① 푸른 바다를 위한 기도 - 용왕재 ②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재 - 수륙대재

② 푸른 바다를 위한 공연 - 축하공연 ④ 푸른 바다를 위한 소원 - 기원등 밝히기

⑤ 생명사랑의 실천 - 방생

외로운 섬사람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서해안과 남해의 섬들을 잇는 대교개설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전남 완도군 고금대교가 공사착공 8년만인 2007. 6. 29(금) 드디어 완공되었다. 이는 비단 고금면민들 뿐 아니라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완도군의 얼마전 신지대교 개통에 이은 또 하나 도약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완도군불교사암연합회는 완도군내의 바다와 육지의 주민들과 생명들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수륙대재를 봉행하려 한다.

◎ 주최 : 전남 완도군불교사암연합회 ◎ 주관 : 고금 수향사, 수효사, 연남사, 옥천사, 약산 황룡사, 해동사

◎ 후원 : 완도군,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완도군 고금면 지역발전협의회, 완도군 약산면 번영회, 완도군 고금 · 약산면 청년회, 완도군 고금 · 약산면 어류양식협회, BBS광주불교방송



華嚴 이해하면 모두가 '하나'



도업 스님 (화엄법계사 주지)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며 도업 스님은 이야기를 시작한다. 조용조용하게 들려주는 스님의 법문은 어렵지 않다. 딱딱하거나 아리송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화엄경>을 인용하며 스님이 풀어내는 화엄의 세계는 잘 정리된 수학공식처럼 간단명료하면서도 쉬운 일상의 언어가 되어 펼쳐진다. 일본 교토불교대학에서 화엄학을 전공하고 평생을 <화엄경> 연구의 길을 걸으며 후학들을 가르쳐온 스님이고 보면 일생을 통해 깊어진 이해만큼 전달은 쉬워지는 것이리라.

"화엄을 공부했다는 것이 내 일생의 큰 행운입니다. 화엄의 세계를 알면 세상 살기가 참 편해요. 화엄은 말 그대로 화장장엄의 세계잖아요. 잡화엄식(雜華嚴飾)입니다. 여러 가지 꽃들이 모여서 장엄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화엄의 세계에서는 우주 법계가 전부 꽃입니다. 스님의 꽃, 여자의 꽃, 남자의 꽃, 돌의 꽃, 나무의 꽃 등 전부가 꽃입니다. 우주 전체가 꽃이고 그 꽃들이 우주를 꾸미고 있어요. 만약에 장미꽃 한 종류만 있어서 이 방에 장미꽃만 가득하다면 심심하고 재미가 없겠죠. 그렇지만 장미꽃도 있고 여러 다른 종류의 온갖 꽃들로 꾸미게 되면 그 속에서 조화로움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와 같습니다. <육십화엄경>에서는 세간정안품(世間淨眼品)이라고 돼 있어요. 세상을 정안, 즉 깨달은 눈으로 보고서 묘사한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부처만 제일인 줄 알고, 왕만 제일인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고, 국민이 있기 때문에 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화엄의 세계에는 높고 낮음이나 우열이 없어요. 다만 다름이 있을 뿐입니다. 남자 꽃, 여자 꽃으로 다름이 있을 뿐이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이 화엄의 사상입니다. 이것을 <팔십화엄경>에서는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이라고 했어요. 즉 세상의 주인들이 장엄하고 있는데 그것도 묘하게 장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세상의 주인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다 주인인데 이것들이 얽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묘해요? 모든 것들이 연기의 법칙으로 서로 연관돼 있습니다."

스님의 방에 앉아 살랑살랑 불어오는 부채바람을 맞으며 법문을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이 아름다운 꽃밭이 된다. 그 꽃밭에 스님은 스님의 꽃으로 활짝 피어있고, 나는 나대로 꽃이 된다. 세상이라는 커다란 꽃밭에서 저마다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이웃한 다른 꽃들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며 사는 길이 불법 속에 있다는 것을 스님은 일깨워준다.

"불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세상의 이치, 즉 진리를 깨닫는 것이 불교입니다. 처음 출가했을 때,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확실한 발심 없이 출가를 했어요. 그때는 깨달으면 공중을 붕붕 날고 대단한 신통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그런데 스님이 되어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 하면 할수록 불교의 가치를 알게 되고 스님이 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깨달음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오해를 없애야 합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화엄에서는 깨닫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일의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일의제가 뭐냐? 연기의 법칙입니다. 연기의 법칙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법계 연기로 보면 이 세상에는 절대 가치가 없고, 결코 우열이 없고 상하가 없습니다. 다만 차별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걸 알면 남자가 여자를 무시할 수도 없고, 자식이라도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연기의 법칙을 깨달으면, 너는 나의 다른 모습이고, 동물도 사람의 다른 모습이고, 더 나아가면 나무나 풀도 부처의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연결되어 하나이고 나아가서는 나무도 풀도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오염시키면 나무가 죽고 나무가 죽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고 이것이 잡화의 세계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만 옳다는 독선적인 생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손바닥과 손등을 봅시다. 손바닥이 하는 일이 많다고 손등을 없앨 수는 없어요. 손등은 손바닥의 다른 모습임을 알고 둘 다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화엄의 세계관입니다. 화엄의 세계관이나 인간관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세상은 훨씬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25년 전 화엄법계사의 주지가 된 스님은 지금까지 매주 첫째, 셋째 금요일마다 신도들을 위한 법문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해왔다. 초하루나 보름 법회를 하지 않는 대신, 스님의 강의가 없는 금요일을 택해 신도들을 위한 법회를 연다. 그 법회는 신도들에게 진리의 길을 찾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 개인적으로 신도들과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어 신도들에게 무심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25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온 스님의 금요법회는 불자들을 부처님 가르침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었다.

인간 자연 등 전부 화엄세계 장엄하는 한 송이 꽃
연기법 깨달으면 차별 인정 · 상생의 도리 알게 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지 · 자비 · 행 갖춰야 불자

"신도님들이 공부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길을 배우는 공부가 있고, 또 하나는 실천하는 공부입니다. 길을 배우는 공부는 교리죠. 길을 알아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으니 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불교나 지식으로 하는 불교는 100점짜리 불교가 아닙니다. 요즘은 말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화엄경>에서 '가난한 사람이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보배를 센다 하더라도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없다. 많이 듣는 것도 그와 같다' 고 비유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리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행이 중요합니다. 땀 흘려 참회하고 기도하고 간경하고 참선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화엄적으로 얘기하면 십바라밀을 행해야 합니다. <화엄경>에서 보살이 닦아나가야 행의 길로 십바라밀이 나와요."

스님은 십바라밀을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덕목들을 나열하지는 않는다.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 하나를 알아도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등 십바라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알아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남의 보배를 하루 종일 세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따끔한 지적이다.

"종교를 믿는 것은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智)와 자비(慈悲), 행(行)이 갖춰져야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라는 것은 후득지가 되지 않으면 자비가 안 나와요. 단순히 무엇인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는 소리를 아무리 해도 자비심이 없으면 행이 따르지를 않아요. 오히려 아는 것만 많은 사람 옆에 가면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고통에 처한 상태를 알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자비심을 내고 실제로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행을 했을 때 진정한 종교의 가치가 발휘되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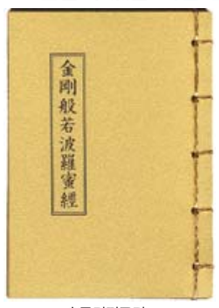
스님에게 불교는 삶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 이치를 따라 사는 길을 제시한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후회 없이 그 길을 걸었고, 지금까지 후학들을 가르치며 즐거이 그 길을 가고 있다. 스님은 '학자' 라는 수식어를 스스로에게 붙이지만 학자로서 살아온 스님의 일생은 남의 보배만 세는 시간은 아니었다. 경전을 읽고 또 읽으며 새기는 동안, 경전의 세계를 세간에 대비시키며 경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해왔다. 또한 경전 속에 무한히 펼쳐진 화엄세계를 넘나들며 아무나 근접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렸다.

글 · 사진=천미희 객원기자

도업 스님은 1944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1966년 범어사 동헌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해인사 지월 스님을 뵙고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곧바로 '이곳에 있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 출가를 결심했을 만큼 스님의 출가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1976년 동국대 불교대 승가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1979년 일본 교토불교대학에서 화엄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동국대 경주 캠퍼스 교수, 정각원장을 거쳐 일본 교토불교대학 교환교수와 동국대 불교문화대 학장,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로 활동 중이며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화엄경사상연구> <불교학의 이해> 등의 연구 서적과 <산하대지가 내 몸이다>는 수필집 등 다수가 있다.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氣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



순금경전규격
(소) 3.5 × 5cm
(중) 5 × 7cm
(대) 6.8 × 9.7cm
· 반야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대)
· 묘법연화경요품 (중,대)
· 금강경(소, 중, 대)
· 지장보살본원경요품(중)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소형금병풍 규격 :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정진, 영가천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연꽃액자 26 × 26cm


족자 60 × 20cm

금달마, 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은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도 널리 사용합니다. (불사용으로 단체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무늬목염주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소) 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공예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약돌 금강염주는 1,500℃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氣와 93% 원적외선, 높은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욱 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마 염주입니다. 진밤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1SET (3EA) 245,000원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수월 스님(2)

경허, 누구요 수월, 수월입니다

경허,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오

수월, (짚신 한 켤레 삼아 올리고 나온다)

만년에 갑산 웅이방 도하동에서 마을 훈장으로 살던 경허(鏡虛, 1849~1912) 선사는 열반이 가까워 병이 들어 누워있었다.

수월(水月, 1855~1928) 스님은 여기 저기 물어서 마침내 스승 경허가 있는 곳을 찾아왔다. 해질 무렵, 서당에 도착하여 섬돌 위에 가지런히 놓인 짚신을 보자, 그는 스승의 짚신임을 알아보고 인사를 드렸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에 있던 경허 선사가 문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제자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정색을 하고 물었다.

"누구요?"

"수월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모르오. 사람을 잘못 찾은 듯 싶소. 그러니 가던 길이나 계속 가시오."

"스님!"

경허 선사는 끝내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스승의 뜻을 알아차린 수월 스님은, 그냥 나올 수는 없어 스승에게서 배운 짚신 삼는 기술을 발휘하여 정성껏 짚신 한 켤레를 삼아 댓돌 위에 올리고 고마움을 표하며 서당을 나왔다.

치열한 보림공부를 통해 '진제와 속제가 원융무애(圓融無碍)하게 둘 아닌 중도(眞俗二諦中道)'를 요달한 경허 선사는 말년에 머리를 기르고 선비의 옷차림으로 티끌세상에서 중생을 교화한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삶을 살았다.

위의 문답은 천장암에서 주장자를 꺾어 던져버리고 '저자거리에서 보살행을 하며 삶을 회향한(入廛垂手)' 경허 선사와 그의 맏상좌 수월 스님과의 최후의 문답이다.

이 선문답은 "그대는 누구입니까?"라는 양 무제의 질문에 "모른다(不識)"라고 대답하고, 사후에 짚신 한 짝을 남기고 인도로 돌아갔다는 달마 대사의 선화(禪話)를 떠올리게 한다.

수제자인 수월 스님이 그토록 애타게 불렀건만, 경허 선사가 끝내 '모른다'고 한 뜻은 무엇이며, 수월 스님이 섬돌 위에 짚신 한 켤레를 삼아 올린 뜻은 과연 무엇일까?

'모른다'는 식·불식 초월한 개념

언어도단한 본래면목을 직지한 말

경허 선사가 수월 스님을 '모른다'고 한 것은 제자를 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모른 척한 의도가 아니다. 이것은 식·불식(識不識)의 대립을 끊고 그 분별의식을 초월한 '모른다'이다.

언어나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소위 언려불급(言慮不及) 언어도단(言語道斷)한 각자의 본래면목을 직지(直指)한 말이다.

고정관념에 의한 성인과 범부, 유(有)와 무(無) 등의 대립적인 사고방식을 없애기 위하여 한 말이었다.

집착·분별에서 나오는 상대적 인식을 없애고, '경허'니 '수월'이니 하는 '이름과 모양(名相)'을 떠나야만 '모른다'고 대답한 달마와 경허 두 선사의 속내를 알 수 있다.

경허 선사는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에게 '불식'의 가르침을 전하며 "가던 길이나 계속 가시오"라고 철저한 보림공부를 당부한 것이다.

스승의 뜻을 간파한 수월 스님은 짚신 한 켤레를 정성껏 공양하며 스승의 마지막 길을 전송한다.

그는 이러한 말없는 문답 그대로, 만주 송림산 화엄사에서 짚신을 머리 위에 이고 앉아 열반에 들었다.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그는 평생 참구했던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초발심 불꽃으로 수행의 길 밝히리

조계종 '간화선 입문-화두 참선으로의 초대' 참가자 입제



70세의 최고령 참가자 대광원 보살부터 33세의 최연소 참가자 임은숙씨에 이르기까지 간화선 삼매에 빠져든 시간이었다.

"1982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이제서야 용기를 냈어요."

"막상 참여는 했지만 간화선이라는 게 너무 무섭게 느껴져 지금 당장이라도 법당을 나가고 싶어요."

8월 27일 저녁 7시, 서울 조계사 극락전.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간화선 입문프로그램-화두 참선으로의 초대' 입제식을 마친 후, 35명의 제6기 참가자들이 저마다 불교 인연과 발심의 계기를 말한다.

놀라운 사실은 참가 대중의 다수가 불교에 입문한 세월이 평균 10~20년에 달할 정도로 오래되었다는 점. 유재철 연화회 대표처럼 20년 경력의 불교활동가를 비롯해 화계사, 한마음선원, 향천선원 신도와 동사섭 법회나 염불 수행을 경험한 수행자,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재가자 등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불교신행을 해 온 터이다.

이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고난에 처했을 때 불교에 입문한 뒤 여기 저기 사찰과 수행법을 찾아 헤매었지만, 수행에 대한 속시원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더구나 간화선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들어서지 못하고 문밖에서 서성이던 세월이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이들이 보아 온 것은 아무리 해도 화두가 타파되지 않는 답답함, 수행자의 깨달음 지상주의와 상기병, 생활과 수행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 수십 년 수행했다는 선객이 하루아침에 수행법을 바꾸는 모습 등이었다.

그러나 이날 새롭게 발심한 불자들은 그런 불신의 세월을 잊고, 그야말로 초발심 때의 간절함과 용맹심으로, 이번에야 말로 '문 없는 문'의 관문을 넘어서고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했다.

최고령 대광월(70·경기 고양) 보살로부터 최연소 임은숙(33·경기 포천)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대기업 중역, 방송위원회 간부, 중소기업 사장, 한의사, 교사, 간호사, 주부 등 여러 직업을 가진 불자들은 이날부터 11월 12일까지 총 11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에 2시간 30분씩 선(禪)·교(敎)를 함께 닦게 된다.

특히 10월 6~7일은 봉화 금봉암에서 이법회의 증명법사인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직접 참선을 지도하고 수행자의 근기에 맞는 화두를 결택(決擇)해 준다. 프로그램 기간 중에는 지도법사인 원철 스님(조계종 기획국장)과 3명의 지도사(박희승, 변희욱, 김준영)들이 수시로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

이날 입제식에서 신동인 불교인재개발원 이사는 "간화선 입문 과정을 마친 1~4기 수료생들이 중림회란 동문회를 만들어 매주 수요일 참선하고 있다"면서 "참나를 찾아 생사 해탈하는 궁극 목적과 일상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구가하는 삶이 조화되도록 정진하자"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오리엔테이션에 나선, 박희승 강사(총무원 기획차장)는 "불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로 정견을 세우고 신심과 발심을 일으켜 일상 속에서도 화두를 들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한 평화와 마음의 안정,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수행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오리엔테이션에 따르면, 간화선 입문프로그램이 강조하는 점은 무엇보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철저한 믿음이다.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절대 긍정 없이 수행하다면 그것은 간화선과 십만팔천 리나 멀어진다는 것. '본래 부처'라는 믿음은 나와 현실에 대한 대긍정이며, 이 본래 부처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화두를 통해 확인하는 데 간화선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11차례의 강의와 실참 실수를 통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수행일지 쓰기와 수행담 나누기 과정을 거친다. 수행일지 쓰기는 매번 각 주제(간화선과 중도, 연기, 무아, 공, 화두 등)별 강의가 끝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수행 과제를 주면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고 그 느낌을 적어보는 것이다. 이것은 일상속의 자기 점검을 통해 발심과 분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며, 깨어 있는 마음으로 정진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수행담 나누기는 도반들의 생활 법문을 들으며, 배운 내용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실천의 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느껴 보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2006년 5월부터 시작해 5기까지 250여 수료생을 배출한 간화선 입문프로그램은 어떤 성과를 일궈냈을까. 포교원 포교연구실 고명석 연구팀장은 "수료생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대인관계가 원만해졌고, 화를 다스릴 수 있었으며, 하심 하는 법을 배웠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으며 삶이 여유로워졌다"고 밝혔다.

또한 수료생들은 대부분 이전에 막연히 화두를 들고 공부한 것보다 훨씬 공부 진척이 잘 되었다고 한다. 화두가 성성하게 들리며 다양한 수행 체험을 해 너무나 기뻤다고도 하고,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확신이 섰다고도 한다.

물론 모든 참가자가 이러한 체험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화두가 잘 안 들린다는 사람도 있었으며, 일부 불자들은 중도에 그만두기도 했다. 이는 수행자의 발심 부족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미비 등에 원인이 있겠지만, 선지식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인듯 하다.

간화선은 실참과 지도·점검은 물론 법문에 있어서도 눈 밝은 선지식의 역할이 절대적인데, 선원장급 이상의 선사가 매번 수행자를 이끌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조계종에서는 지도인력 양성을 위해 '선 포교사' 제도를 본격 활용할 예정이지만, 현재 재가선원을 운영 중인 거사선의 리더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 간화선을 지도하는 데는 만 명의 장교 보다는 한 명의 장수가 필요하다. 출·재가라는 분별을 떠나 안목 있는 선지식을 모실 수 있다면, 조계종의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은 더욱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02)735-2428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10일 집중수행**=혜국 스님 '수행과 삶' 강연=경전연구회는 9월 6일 오후 3~5시 서울 미타사 내 대승암에서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을 초청, '수행과 삶이 하나 되는 길'을 주제로 창립 3주년기념 초청강연을 연다. (011)9038-9594

●**여래 심지요문 '능가경' 강의**=불교서울전문강당을 졸업한 스님들로 구성된 선교연구모임은 9월 15일부터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각성 스님을 초청, 여래심지요문인 〈능가경〉을 공부한다. (02)735-1053

●**숲속명상 템플스테이**=구미 도리사는 9월 14~16일,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이 지도하는 소나무 숲속명상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새벽 숲길 걷기명상, 타인을 존중하는 절 명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054)474-3737

●**천수다라니 108편 49일 독송**=일산 덕양선원은 9월 10일~10월 28일 제16차 신묘장구대다라니 108편 독송 49일 기도정진을 실시한다. 정진기간 중 목·금요일은 선원장 법상 스님이 집전하며 나머지는 자율 정진. (031)907-7172

한지원사로 만들어진 천연한지 제품들이 불자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향균력 99.9% 암모니아 소취율 98.7% 땀냄새 제거 탁월



한지섬유는 한국의 전통한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소재로 한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린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섬유를 만들기 위한 원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한지사다. 한지사란 닥나무 인피섬유인 닥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한지는 인체에 무해한 대표적 친환경적 천연섬유소로 황토수준의 원적외선 방출, 항균성, 소취성능, 흡한속건성, 용이한 염색성 등 다양한 기능성를 보유하고 있다.
한지를 이용해 제조된 한지사는 의류용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용, 생활용품,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실용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지섬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균성과 소취성능에 있어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분석결과 항균력이 99.9%유지되며 암모니아 소취율이 98.7%로 땀 냄세 제거에도 탁월하며 항상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준다. 원적외선 방사율이 황토와 참 숯 보다 높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경량소재로 타 섬유에 비해 월등히 가벼우며, 흙속이나 물속에서 있는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이 좋은 친환경 천연섬유이다. 이외에도 면섬유보다 흡습성이 3-5배 우수하며 건조성 또한 2배 이상 뛰어나 강력한 흡한 속건성을 보유하며, 한지만의 우수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유지한다.

문헌에 의하면, "한지인 신라의 백주지를 본 중국인들은 이렇게 희고 매끄럽고 영롱한 빛의 종이는 누에고치로 뜬것이 틀림없다고 여겨 견지, 잠견지, 금견지 등으로 부르면 예찬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한지는 통기성, 부드러운 감촉 유연한 접힘, 강인성, 색상발현이 뛰어나고, 우수한 흡습성, 방음성, 보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 패드, 베개커버) ₩860,000원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 패드, 베개커버) ₩860,000원



한지양말 ₩10,000원 (1켤레)

제품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8-1호 TEL 02)364-5047 / FAX 02)393-9696 www.jisarang.co.kr
◆ 지누리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2,5호선 충정로역 8번출구 →마을버스(오거리 방향)승차 → 경기대 후문역 하차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진실한 참회로 '업보의 짐' 벗어야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㉚ 업에서 벗어나는 법

나쁜 짓 하고도 무사한가요

재소자인 S씨는 배신한 동료에게 복수하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상담시간에 법사가 "복수보다 어려운 건 그를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었으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 다시 상담 때 묻기로 했다.

"법사님, 복수하지 말라는 부처님 뜻은 좋아 보이기는 한데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이 억울하세요?" " 불자들은 누구나 다 용서해 주라하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괜찮게요? 선하게 사는 사람만 억울한 것 아닙니까?" "언제 부처님께서 나쁜 일을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된다고 하신 건 아니지만 용서받으면 그냥 무효잖아요." 법사는 정색을 하며 "거사님, 무효란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다 그 과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한 일은 참회하지 않는 한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 누가 거사님에게 이유 없이 잘 못했다고 하면 언젠가 그 사람은 그 과보를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철두철미 인과의 법칙, 불교의 기본입니다."

인과는 우주의 법칙

"글쎄요, 법사님,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들어왔지만 솔직히 나쁜 짓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안 걸리면 그만인데…. 그래도 공평하다고 하시렵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자기 마음이 알고 마음에 입력되어 있는 한 우주를 속일 수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 드리지요. 누군가 오늘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잡혔습니다. 잡히기 전 6일 간은 아무 문제없이 살았어요. 게다가 부정한 남의 돈으로 사치부리며 잘 먹고 놀았어요. 그럼, 그 6일만 본다면 나쁜 짓 하고도 잘 사는 거지요?" 법사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이 생은 수없는 생 중에 단 하나에 해당합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부정부패, 혹은 남을 괴롭히고 악업을 저지르면서도 이 생에 문제없이 잘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어림없지요! 내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일 잡힐지 모레 잡힐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생에서 그 과보를 받는가, 다음 생에서 받는가의 차이 일뿐, 확실한 것은 한 치도 에누리 없이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윤회와 인과는 '우주의 법칙'
> 진리 모르는 무명이 유일한 '罪'
> '참회·정진·보시'가 업 벗는 길

"어떻게 아세요? 내생이 있는지 또 받는지 아닌지."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온갖 정신적, 육체적 고통들, 또 가슴 찢어지는 끔찍한 사연들. 거사님, 윤회와 인과는 자연의 법칙이자 우주의 실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셨고, 그대로 가르쳐주셨을 뿐입니다. 개인이 안 믿는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건 안 믿건 우주의 법칙은 그대로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에 죄는 단 한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네? 한 가지라니요?" "바로 모르는 게 죄, 진리를 모르는 무명입니다. 진실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을 안다면 돈 주고 하라고 시켜도 안 할 거니까요. 예를 들까요. 여기 음식이 있는데 보기는 좋아 보이고 맛도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독이 들어 있다면 거사님은 잡수시겠습니까?" "에이, 농담을요, 절대 안 먹지요!" "그와 같아서 자기가 하는 악한 일이 당장은 좋아 보이고 편해서 잠시만, 또 어쩌면 이 한 생 동안만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모르는 게 죄 아니겠어요?"

"법사님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업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도 법이자 진리입니다. 바로 진실한 참회와 마음 정진, 그리고 보시 등의 길이 있습니다. 업보와 짐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 살며 서로 자비심으로 공생하며 사는 게 불교입니다. 아니 종교 이전에 그것만이 사람 사는 길입니다."

S씨는 앞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했다. <천수경>을 사경하는데 유난히 한 구절이 가슴을 친다. "마음 비워 공하여야 이름 하여 진실한 참회라 하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앙게시판

●**대불련! 초발심으로 미래도약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전보삼)가 9월 8~9일 부산 범어사에서 '대불련! 초발심으로 미래도약을'을 주제로 제5회 총동문대회를 개최한다. 친목도모를 보다 중요시했던 다른 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는 팔재계를 수지하고 생활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8일 부산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으로부터 팔관재계를 수지한다. 9일에는 특강도 마련했다. 분따빠라 스님이 '미래사회와 근본불교'를, 우승택 센터장(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이 '유식을 알면 돈을 지킨다'를 강연한다. (02)720-1963

●**육조사 '육조단경' 강좌** =현웅 스님(육조사 주지)이 서울 육조사에서 9월 6일부터 4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육조단경> 강의를 한다. 현웅 스님은 <육조단경> 강의에서 종교적 이념의 갈등과 테러를 넘어설 메시지를 담아 <육조단경>을 풀어낼 계획이다. (02)953-5291

●**구룡사 성지순례 · 불교대학 야간반 개설** =서울 구룡사가 9월 13~14일 남해 보리암, 천안 각원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13일 오후 9시에 출발하는 무박2일 일정.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오면 된다. 한편 9월 11일 저녁 8시에는 불교대학 야간반을 개설한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구룡사 1층 회관에서 진행된다. 교재비 포함 수강료는 5만원이다. (02)575-7766

●**통도사 일요가족법회** =양산 통도사가 일요가족법회를 마련했다.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리는 일요가족법회는 불교에 관심은 많으나 시간이 없는 직장인 및 청 · 장년층을 위한 법회이다. 9일에는 통도사 주지 아산 정우 스님이, 16일에는 통도사 강주 혜원 우진 스님이, 23일에는 통도사 율원장 우성 덕문 스님이, 30일에는 백련암 원산 도명 스님이 법문한다.

●**화엄산림 천일기도** =부산 여여선원이 9월 13일 부산 화엄사 주지 각성 스님을 모시고 53선지식 초청 화엄산림 천일기도 대법회의 11번째 법회를 봉행한다. 부산불교회관 8층 대법당에서 오전 10시에 열린다. (051)853-5486

●**조계사 가사불사** =서울 조계사가 스님들께 가사를 공양하는 '가사불사(袈裟佛事)'를 봉행한다. 입제는 9월 11일, 회향은 11월 12일이다. 가사불사를 통해 제작된 가사는 종단의 원로 큰스님들께 봉헌할 예정이다. (02) 732-2187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7>

정신분석과 불교-7

"포크(pork)는 훌륭한 프랑스 말이야. 돼지(pig)는 색슨의 손에서 기를 때는 색슨의 이름으로 통용되지만 성 안의 넓은 방으로 운반되어 높은 사람들을 대접하게 될 때에는 노르만어로 불린단 말이야."

스콧의 유명한 소설 <아이반호>에 등장하는 색슨족 하인이 한 말이다.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암소는 영어로 카우(cow), 수소는 옥스(ox)라고 한다. 그런데 쇠고기는 프랑스에 어원을 둔 비프(beef)로 부른다. 이는 11세기에 유럽 북방의 노르만족이 남하하여 영국에 노르만 왕조를 세우고 원주민인 색슨족을 지배하면서 생겨난 언어 현상이다. 즉 피지배계층인 색슨족이 가축으로 소를 기를 때는 색슨말로 부르다가 고기가 되어 식탁에 오를 때는 지배계급인 프랑스 말로 부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언어에는 역사와 그 역사를 겪으며 살아간 사람들의 감정이 들어 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커다란 기준 가운데 하나가 '언어의 사용'이듯, 언어란 이렇게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정신분석에서 언어는 치료를 위한 제1의 수단
> 불교는 언어 불신… '선문답'으로 한계 극복

정신분석에서도 언어는 중요한 매개체다. 상담자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 즉 표정이나 몸짓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은 역시 언어다.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를 언어화해서 표현할 때 이미 절반쯤은 치료에 성공한 셈이다. 왜냐하면 내담자 스스로 감당해 내기에 너무도 힘겨운 경험이나 기억을 무의식 속에 가두어 두었기에 심리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언어로 표현하였다는 것은 무의식이 의식화했다는 의미이며, 감당해 낼 힘을 어느 정도 구축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분석에서는 언어가 없어서는 안 될 제1의 수단이다.

이심전심(以心傳心), 교외별전(敎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 언어도단(言語道斷) 등의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불교에서는 언어를 그리 신뢰하지 않으며,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은 언어뿐이므로, 언어를 방편으로 쓰긴 하되 언어의 일상적 용도를 뛰어넘는 대화를 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그것이 바로 간화선 선사들이 주고받는 선문답(禪問答)이다.

부처님께서도 정각을 이루고 나서 처음에는 '내가 증득한 법은 심히 깊고 미묘하고 가장 지극한 적정(寂靜)인지라 … 마음으로 헤아릴 바가 아니며, 말로 할 수도 없으며, 들을 수도 없으며,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걸리는 바도 없다. … 만약 이 법을 사람들에게 연설하면 그들은 모두 분명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 그러므로 나는 잠자코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러나 대범천왕의 간곡한 청에 따라 법을 설하기로 결심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애당초 인간 사량 능력의 한계, 언어의 한계를 간파하셨다. 그래서 가섭존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심중을 전하실 때 연꽃을 들어 보이셨던 것이다[염화시중(拈華示衆)].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사람들을 부처님 법으로 이끄는 초기 단계에서는 세속의 언어를 십분 활용하셨다. <잡아함경>에서 그 예시를 볼 수 있다. "그릇이 쓰일 때마다 명칭이 달라지듯, 나도 세상 사람이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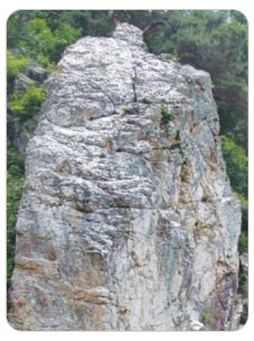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소원 성취 기도도량 계향산 미암사 성지순례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미암사에 모셨습니다.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불교성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요.



세계 최다층 진신사리탑
(33층)
세계 최다층 탑인,33층의 불사리 탑은 진신사리 1과가 자연 3과로 분과된 신비하고 영험이 있는 진신사리가 봉안되었습니다.



쌀바위 전설
(충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할머니가 공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미암(쌀바위)이라불렀으며, 바위에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건강한 기운을 느낄수 있게 해줍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천주사

참 생명의 모습을 나툴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바치는 산" 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받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서 밝고 훤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화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 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납골탑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死佛二)까닭입니다.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경주시 일원에서는
'천년의 빛, 천년의 장'이라는 주제로 9월 7일~10월 26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린다. 세계 공연예술 축제, 월드 비보이 페스티벌, 세계꼭두극축제, 캐릭터 판타지월드, 신라 왕경숲 축제, 앙코르·경주 특별기획전, 백남준 특별전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홈페이지(www.cultureexpo.or.kr)에서 자세한 내용 참고.

인천대공원에서는
인천대공원 안에 국내 최초의 환경미래관이 개관했다. 녹색자료실, 지구환경과 도시문제, 환경실험실, 체험학습장 등이 운영된다. 입장료 무료. 환경실험실 및 체험학습은 3일전 예약. 문의 환경미래관 홈페이지(grandpark.incheon.go.kr). (032)440-4967~9.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어린이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내걸었다. 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며 초·중·고등부 중 자신이 속한 그룹에 따라 독서감상문, 독서신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및 문의는 홈페이지(www.nlcy.go.kr)에서.

서울 여의도공원과 보라매공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우리 가락을 살린 공연을 펼친다. 9월 8일에는 야외인형극 '황소가 된 돌쇠'가 보라매공원에서, 9월 15일에는 체험무용극 '자연을 닮은 우리춤'이 여의도공원에서. 9월 29일에는 '타악열전'이 여의도공원에서 각각 펼쳐진다. (02)752-1946.

부산 벡스코에서는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이 9월5~8일까지 펼쳐진다. 에너지 정책관, 가스관, 원자력문화관, 지역난방관, 광물자원관 등 전시관과 에디슨 전기박물관, 지구온난화 체험 등을 볼 수 있다. 입장료 무료. 문의 (02)850-3590~1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연령별로 차별화시킨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는 의왕 용화사 법회 모습. 사진제공=용화사

조용한 것이 절집 같다 '옛 말'

절에 가면 웃음꽃 핀다

어린이청소년법회, 활성화 하려면?

"거긴 조용한 것이 꼭 '절집' 같아."

흔히 너무 조용한 곳을 두고 '절집 같다'는 표현을 쓴다. 그만큼 사찰은 속세와 떨어져 고요하고 맑은 기운이 고인 장소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 사찰, 특히 도심 사찰과 포교당이 '절집' 같기만 하다면 과연 좋은 일일까. 어린이들의 왁자지껄한 함성과 웃음소리가 이제는 '절집'에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찰이 아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터.

□ 절에 가면 뭘 할 수 있나요?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찰을 찾게 만드는 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불교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찰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일 것이다.

사찰은 아이들에게 '휴식'과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무작정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아이들의 특성을 잘 살펴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요즘 아이들을 덩그러니 '절집'에 데려다 놓고 휴식을 즐기라는 것은 요즘 아이들에게 고문이다. 무작정 "불교는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반감만 살 뿐이다.

아이들이 "절에 가면 뭘 할 수 있는데요?"라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너희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들"이라 답할 수 있어야 오는 아이들도, 준비한 사찰도 서로 민망하지 않다.

□ 요즘 사찰, 많이 변했어요!

이제 어린이청소년 법회에서도 시대의 조류에 맞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 무엇은 지역사회에 소속된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춤·노래·그림·영어·논술 등으로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주면서도 절에 와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요즘 사찰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 연등축제에서 인기를 끈 서울 보리사 비보이 댄스팀.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는 보리사 어린이법회에서 지난해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각각 비보이 댄스와 힙합댄스·장구·찬불가 등을 가르쳐 온 성과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아이들의 관심분야를 살려 재능교육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까지 가능해졌다.

> "불교는 이러니 이렇게 해" 반감만 사
> 영어법회·힙합댄스·장구 등 좋은 예
> 무엇보다 주지스님 관심도가 성패 좌우

절에서도 '춤'이라는 콘텐츠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의왕 용화사는 적절한 분반수업을 통해 각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용화사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 저학년 어린이에게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절에 오도록 만든다. 또 고학년 아동들은 한지공예, 오카리나 등의 수업으로 재미를 준다. 중학생에게는 좀 더 높은 차원인 '불화그리기 수업'을 열어준다. 매주 30분 정도 전문 불화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함께 섬세한 작업을 하며 미술교육은 물론 심성교육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정혜선원과 구룡사는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반긴다. 현장에서 10여 년 동안 어린이법회에 매진하고 있는 수영 스님이 두 사찰의 어린이법회 지도법사다. 두 사찰은 서예·도자기·리코더 등의 예능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해서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리·성교육 특강 등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3개월마다 프로그램을 바꿈으로써 지루할 새가 없이 만드는 것도 성공적인 어린이법회 노하우다.

이밖에도 서울 화계사는 이미 영어법회로 유명하다. 서울 봉은사도 연극, 합창 등으로 어린이들의 불심을 이끌고 있다.

□ 재밌는 법회를 위하여!

잘 되고 있는 사찰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전략은 약한 편이다.

수영 스님은 "법회를 하려면 세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귀띔한다. 예를 들면, 사찰 주위 주택지 형태를 통해 아이들의 연령대를 추산하고 그에 맞게 법회를 준비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게다가 ▲기존 신도들과의 마찰 ▲어린이법회 선생님들의 전문성 결여 ▲법회 유지비 문제 등도 늘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관계자들 상당수가 "사찰 주지스님의 의지가 가장 기본이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지스님의 관심도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법회의 성패가 좌우된다. 위의 사찰들도 모두 주지스님의 어린이청소년 법회 지원 의지가 어느 절 보다 뛰어난 사찰들이다.

또 관계자들은 자모회 구성도 필수적이라 입을 모은다. 사찰과 아이들, 부모가 모두 유대관계 속에서 서로 믿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송묵 스님은 "앞으로 어린이청소년 법회는 연극·성악 등의 다양한 형태로 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제 사찰은 어린이청소년에게 활짝 문을 열어야 한다. 현재 다양한 콘텐츠를 살려 '절집'을 어린이청소년 열기로 채우는 곳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는 꾸준히 연구돼야 할 것이다. 글=김강진 객원기자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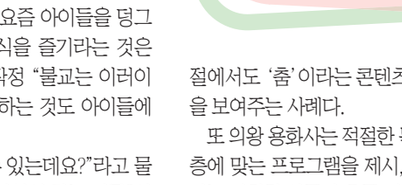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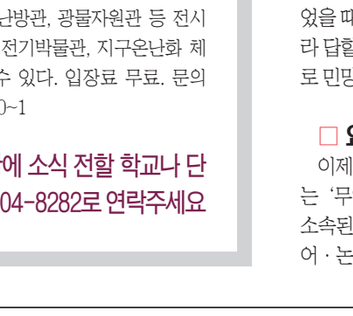
의왕 용화사는 저학년 어린이들에게는 각종 놀이프로그램(④)을, 고학년 어린이들에게는 한지공예(①) 오카리나 수업(②)을, 중학생들에게는 불화그리기(③) 등 세분화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0년 전통의 맥을 이어오는 목탁제조전문
영천목공예사
http://www.ycwoodart.co.kr
실용신안등록 · 디자인등록
2007년 한국불교박람회 출품작품

영천목공예사의 목탁은 자연 그대로를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국내산 살구나무로 제작한 수작업 목탁은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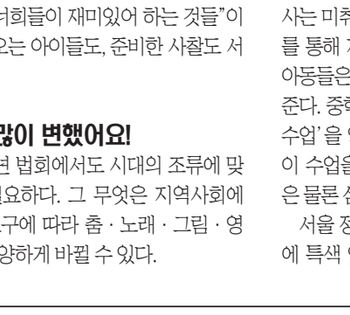

▲죽비

옻칠수작업목탁



수작업 목탁에 사용한 옻칠은 생칠로 일반적으로 바르는 방법이 아닌 나무속까지 침투시키는 칠을 먹이는 방법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무결을 자연그대로 살려주며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 반영구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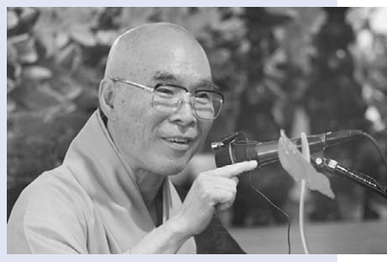
수작업목탁



약 100년~300년된 산살구나무로 작업한 제품
목탁제작 35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맑고 청아한 목탁소리를 찾기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 언하1동 167-1번지 054)334-9757 / 011-540-9757 [농협 757-12-096397 안종식]

"고우 큰스님 초청법회"



◆날 짜 : 불기 2551년 9월 16일 일요일
◆시 간 : 오전 10시 30분
◆장 소 : 공생선원 대웅전

공생선원 개원 5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위원 고우 큰스님을 모시고 특별 초청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불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선입문반 / 경전반 / 참선반 9월 大 모집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서울시 도봉구 쌍문 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Tel 02)900-2448
http://cafe.daum.net/zenmaster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무더위가 한창이군요. 가마솥 안에 앉아 있는 듯해요. 아 이럴 때 시원한 계곡에 가서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자맥질하다보면 애면글면했던 일 잊어질 것 같죠? 그런 날은 잉걸불에 삼겹살 구워먹으며 해거름 노을 보면 참 행복할 텐데.

자맥질 : 물속에 들어가서 팔다리를 놀리며 떴다 잠겼다 하는 짓.(오랜 자맥질 끝에 물을 벗어난 잠수부처럼 나는 길게 숨을 내쉰다.)(김성동<만다라>)

애면글면 : 몹시 힘에 겨운 일을 이루려고 갖은 애를 쓰는 모양.(그는 집에 돌아와 자기가 애면글면 장만해 놓은 그릇을 부수었다.)(김유정<생의 반려>)

잉걸불 : 다 타지 아니한 장작불.(아궁이에 남아 있는 잉걸불을 후후 불어 종이에 불을 붙였다.)

해거름 :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또는 그런 때. (이제 곧 떠나야 할 나그네만이 저 무는 해거름을 아쉬워하는 건 아니다.)(이문구<장한몽>)

아옹다옹 : 서로 트집을 잡아 자꾸 다투는 모양

아옹하다 : 속이 오망하게 들어가 있다. 마음에 덜 차서 기쁘게 여기는 기색이 없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자주독립·여권존중 등 개화기 시대상 그려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이인직 作 '혈의누'

이 작품은 1906년부터 1907년까지 <만세보>에 연재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이지요. 문명개화, 신교육 사상, 자유 결혼관 등을 주제로 청일전쟁(1884년) 직후부터 10년간 평양과 일본(오사카), 미국(워싱턴)일대를 배경으로 개화기의 시대상을 그리고 있지요. 청일전쟁 당시 한 가족의 삶과 개화사상을 다룬 신소설로 교훈적, 계몽적이죠.

청일 전쟁으로 옥련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다. 어머니는 가족을 기다리다가 자살을 결심하고 대동강에 뛰어들었으나 구출되어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유학을 떠난다. 일곱 살 난 옥련은 부모와 헤어져 헤매던 중 철환을 맞아 부상을 당하지만 이노우에 소좌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일본으로 가게 된다. 이노우에의 양녀가 되어 소학교에도 다니고 행복하게 지내던 옥련은 이노우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시련을 겪는다.

방황하던 옥련은 우연히 기차 안에서 미국 유학을 떠나는 구완서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화륜선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공부를 하게 된다. 옥련의 우수한 자질에 대한 칭찬과 기구한 과거의 이야기가 워싱턴 신문에 실리자 그 기사를 읽은 아버지 김관일이 옥련을 찾아 상봉한다. 옥련은 어머니 소식도 듣게 되고 구완서와 약혼을 한다. 그들은 귀국하여 우리나라를 문명 강대국으로 만드는 문제와 남녀평등 사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편 평양에 있던 옥련의 어머니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의 편지를 받고 꿈만 같이 생각하며 딸이 귀국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이 작품은 고소설과는 달리 형식면에서 언문일치, 내용면에서는 일상적인 일들을 소재로 하고 사실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친 이상주의는 한계지요. 신교육, 신문명에 의해 문명개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몇 명의 유학생 즉 지식인의 힘만으로 민족 전체를 계몽시키고 강대국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지요. 청일 전쟁을 일청 전쟁으로 명명한 것이나, 옥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일본 군인으로 설정하는 등 일본을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밖에 작품 전체에 우연이 남발되고 동기 유발이 없는 행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도 눈에 띄지요. 시간 역전 기법이나 언문일치 문장 등에도 불구하고 신소설이 근대 소설로 분류될 수 없는 한계들이죠. 따라서 최초의 신소설이면서 대표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인직의 '혈의 누'는 고전 소설적 요소와 근대 소설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보면 돼요.

교육적이며 계몽적인 신소설
권선징악 등 古소설 틀 한계

옥련을 구해 양딸을 삼은 이노우에 소좌를 긍정적으로 그리는 점은 이인직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짐작케 하죠.

신소설은 조선 말기 갑오경장 이후 개화기에 나타난 계몽주의적 소설로 우리 소설이 고소설에서 근대 문학으로 발전해가는 과도기에 창작된 소설들이죠. 이인직의 '혈의 누' 이해조의 '자유종', 최찬식의 '추월색' 등이 대표적이죠.

신소설은 고소설의 규격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방법을 시도했지요. 문장은 일상어로 된 구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사실적 묘사도 두드러졌죠. 작품의 구성에 있어서도 고소설이 주로 시간의 흐름에 병행하여 사건이 진전되는 이야기 중심의 구성방법을 취했다면 신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역행하거나, 사건 및 장면이 엇바뀌는 해부적 구성방법을 시도하였죠. 내용면에서 대다수의 신소설 작품은 서구의 근대의식을 받아들여 자주독립, 신교육, 여권존중, 계급타파, 자유결혼, 평민의식, 자아각성에 의한 현실고발 등을 담아내어 근대사상의 전파자 역할을 했지요. 그러면서도 신소설은 고소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점들도 있었지요. 작품이 권선징악의 주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요. 또한 신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평면적이고 선악 구도가 틀에 박혀 있어요. 어디 이뿐인가요. 결말에서 고소설적 해피엔딩의 유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지요.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 절에 가면 사람들이 탑 주위를 빙빙 도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ID:절에가면)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뜻 나타내

탑돌이의 유래와 의미

부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는 경배하는 것조차 금하셨어요. 이러한 정신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에 의하여 철저히 계승되었답니다.

하지만 재가 신도들은 부처님 생전의 자비하신 모습을 그리며 그분의 흔적을 찾으려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유일하게 남은 형상인 '사리'를 모신 탑을 보면서 생전의 부처님을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심화시키며 탑을 경배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탑 자체를 우상화한 것은 아니고 탑을 보면서 부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였죠.

탑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에 대한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마음의 표시로 탑 주위를 돌면서 부처님의 생전의 모습을 생각하고 자신의 서원을 세우며 신앙을 키워갔어요. 이것이 전래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민족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탑돌이를 하며 개인적인 소원은 물론 민족적인 기원을 해왔어요. 유래에서 보았듯이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으로, 항상 부처님을 뵙듯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해요. 우리는 절에 가면 불상이 모셔진 법당을 찾아 부처님의 모습을 찾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탑도 중요한 경배의 대상이랍니다. 불상은 탑이 만들어진 후에도 한참 뒤에야 조성된 것으로 탑을 통해서는 부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그릴 수 없었던 재가 신도들이 직접 부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개인적인 고민이나 갈등이 있을 때, 또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의 숭고한 모습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공덕에 감사를 드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랍니다.

탑돌이를 할 때는 부처님의 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이 좋겠지요?
(용화어린이까페)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무더위가 한창이군요. 가마솥 안에 앉아 있는 듯해요. 아 이럴 때 시원한 계곡에 가서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자맥질하다보면 애면글면했던 일 잊어질 것 같죠? 그런 날은 잉걸불에 삼겹살 구워먹으며 해거름 노을 보면 참 행복할 텐데.

자맥질 : 물속에 들어가서 팔다리를 놀리며 떴다 잠겼다 하는 짓.(오랜 자맥질 끝에 물을 벗어난 잠수부처럼 나는 길게 숨을 내쉰다.)(김성동<만다라>)

애면글면 : 몹시 힘에 겨운 일을 이루려고 갖은 애를 쓰는 모양.(그는 집에 돌아와 자기가 애면글면 장만해 놓은 그릇을 부수었다.)(김유정<생의 반려>)

잉걸불 : 다 타지 아니한 장작불.(아궁이에 남아 있는 잉걸불을 후후 불어 종이에 불을 붙였다.)

해거름 :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또는 그런 때. (이제 곧 떠나야 할 나그네만이 저 무는 해거름을 아쉬워하는 건 아니다.)(이문구<장한몽>)

아옹다옹 : 서로 트집을 잡아 자꾸 다투는 모양

아옹하다 : 속이 오망하게 들어가 있다. 마음에 덜 차서 기쁘게 여기는 기색이 없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자주독립·여권존중 등 개화기 시대상 그려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이인직 作 '혈의누'

이 작품은 1906년부터 1907년까지 <만세보>에 연재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이지요. 문명개화, 신교육 사상, 자유 결혼관 등을 주제로 청일전쟁(1884년) 직후부터 10년간 평양과 일본(오사카), 미국(워싱턴)일대를 배경으로 개화기의 시대상을 그리고 있지요. 청일전쟁 당시 한 가족의 삶과 개화사상을 다룬 신소설로 교훈적, 계몽적이죠.

청일 전쟁으로 옥련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다. 어머니는 가족을 기다리다가 자살을 결심하고 대동강에 뛰어들었으나 구출되어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유학을 떠난다. 일곱 살 난 옥련은 부모와 헤어져 헤매던 중 철환을 맞아 부상을 당하지만 이노우에 소좌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일본으로 가게 된다. 이노우에의 양녀가 되어 소학교에도 다니고 행복하게 지내던 옥련은 이노우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시련을 겪는다.

방황하던 옥련은 우연히 기차 안에서 미국 유학을 떠나는 구완서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화륜선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공부를 하게 된다. 옥련의 우수한 자질에 대한 칭찬과 기구한 과거의 이야기가 워싱턴 신문에 실리자 그 기사를 읽은 아버지 김관일이 옥련을 찾아 상봉한다. 옥련은 어머니 소식도 듣게 되고 구완서와 약혼을 한다. 그들은 귀국하여 우리나라를 문명 강대국으로 만드는 문제와 남녀평등 사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편 평양에 있던 옥련의 어머니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의 편지를 받고 꿈만 같이 생각하며 딸이 귀국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이 작품은 고소설과는 달리 형식면에서 언문일치, 내용면에서는 일상적인 일들을 소재로 하고 사실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친 이상주의는 한계지요. 신교육, 신문명에 의해 문명개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몇 명의 유학생 즉 지식인의 힘만으로 민족 전체를 계몽시키고 강대국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지요. 청일 전쟁을 일청 전쟁으로 명명한 것이나, 옥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일본 군인으로 설정하는 등 일본을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밖에 작품 전체에 우연이 남발되고 동기 유발이 없는 행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도 눈에 띄지요. 시간 역전 기법이나 언문일치 문장 등에도 불구하고 신소설이 근대 소설로 분류될 수 없는 한계들이죠. 따라서 최초의 신소설이면서 대표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인직의 '혈의 누'는 고전 소설적 요소와 근대 소설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보면 돼요.

교육적이며 계몽적인 신소설 권선징악 등 古소설 틀 한계

옥련을 구해 양딸을 삼은 이노우에 소좌를 긍정적으로 그리는 점은 이인직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짐작케 하죠.

신소설은 조선 말기 갑오경장 이후 개화기에 나타난 계몽주의적 소설로 우리 소설이 고소설에서 근대 문학으로 발전해가는 과도기에 창작된 소설들이죠. 이인직의 '혈의 누' 이해조의 '자유종', 최찬식의 '추월색' 등이 대표적이죠.

신소설은 고소설의 규격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방법을 시도했지요. 문장은 일상어로 된 구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사실적 묘사도 두드러졌죠. 작품의 구성에 있어서도 고소설이 주로 시간의 흐름에 병행하여 사건이 진전되는 이야기 중심의 구성방법을 취했다면 신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역행하거나, 사건 및 장면이 엇바뀌는 해부적 구성방법을 시도하였죠. 내용면에서 대다수의 신소설 작품은 서구의 근대의식을 받아들여 자주독립, 신교육, 여권존중, 계급타파, 자유결혼, 평민의식, 자아각성에 의한 현실고발 등을 담아내어 근대사상의 전파자 역할을 했지요. 그러면서도 신소설은 고소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점들도 있었지요. 작품이 권선징악의 주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요. 또한 신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평면적이고 선악 구도가 틀에 박혀 있어요. 어디 이뿐인가요. 결말에서 고소설적 해피엔딩의 유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지요.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 절에 가면 사람들이 탑 주위를 빙빙 도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ID:절에가면)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뜻 나타내

탑돌이의 유래와 의미

부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는 경배하는 것조차 금하셨어요. 이러한 정신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에 의하여 철저히 계승되었답니다.

하지만 재가 신도들은 부처님 생전의 자비하신 모습을 그리며 그분의 흔적을 찾으려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유일하게 남은 형상인 '사리'를 모신 탑을 보면서 생전의 부처님을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심화시키며 탑을 경배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탑 자체를 우상화한 것은 아니고 탑을 보면서 부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였죠.

탑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에 대한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마음의 표시로 탑 주위를 돌면서 부처님의 생전의 모습을 생각하고 자신의 서원을 세우며 신앙을 키워갔어요. 이것이 전래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민족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탑돌이를 하며 개인적인 소원은 물론 민족적인 기원을 해왔어요. 유래에서 보았듯이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으로, 항상 부처님을 뵙듯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해요. 우리는 절에 가면 불상이 모셔진 법당을 찾아 부처님의 모습을 찾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탑도 중요한 경배의 대상이랍니다. 불상은 탑이 만들어진 후에도 한참 뒤에야 조성된 것으로 탑을 통해서는 부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그릴 수 없었던 재가 신도들이 직접 부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개인적인 고민이나 갈등이 있을 때, 또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의 숭고한 모습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공덕에 감사를 드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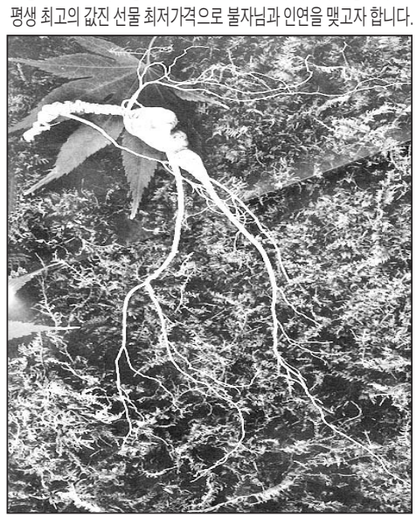
탑돌이를 할 때는 부처님의 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이 좋겠지요?
(용화어린이까페)

元 · 氣 · 回 · 復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713-7798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심 마 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 (분석 51160-150)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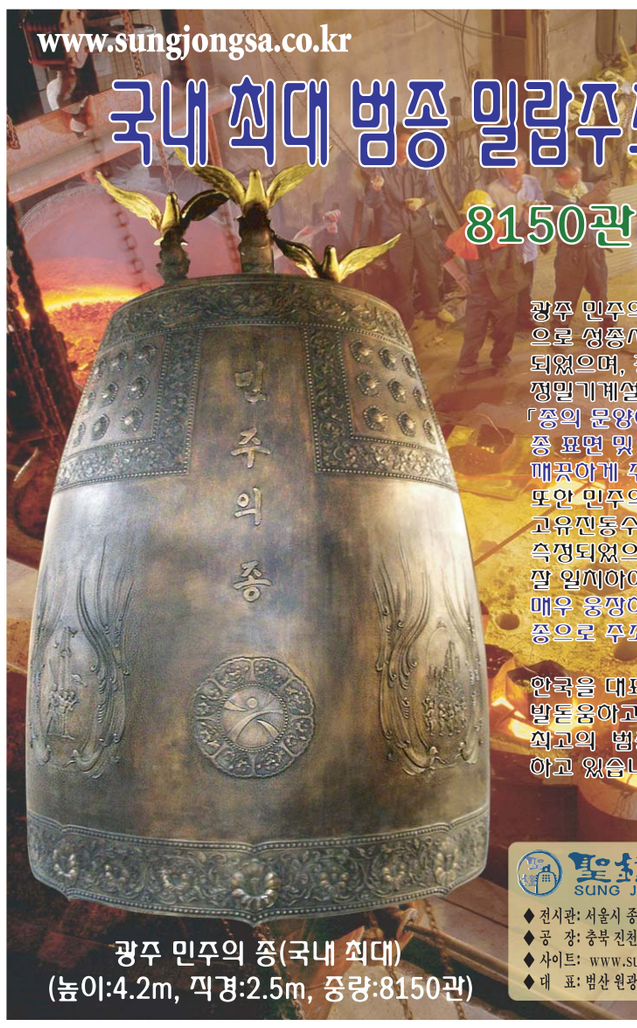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www.sungjongsa.co.kr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범종 밀랍주조공법으로 완성

8150관 초대형 범종 탄생

광주 민주의 종은 8150관(약 31ton)의 국내 최대 범종으로 성종사의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광주 민주의 종 감리를 맡았던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로부터 「종의 문양이 매우 아름답게 주조되었으며, 종 표면 및 몸체에는 주조결함이 전혀 없이 매우 깨끗하게 주조되었다. 또한 민주의 종의 진동, 음향을 분석한 결과 기본 고유진동수는 62.625Hz(low), 62.8125Hz(high)로 측정되었으며 이상적인 당짝위치와 실제 당짝 위치가 잘 일치하여 당짝 가진시 맥놀이가 잘 일어나,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으로 주조 되었다」는 감사를 받았습니다.



광주 민주의 종(국내 최대)
(높이:4.2m, 직경:2.5m, 중량:8150관)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제작사에서 이제 세계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저의 성종사는 오늘도 인류 최고의 범종을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공 장: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www.sungjongsa.co.kr / E-MAIL: sungjongsa@hotmail.com
◆ 대 표: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대한민국 명장)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부처님 호흡법



붓다의 호흡법 아나빠나삿띠
붓다다사 지음
김열권 · 이승훈 옮김
불광 펴냄 | 2만5000원

무거운 물건을 들기 전에 심호흡을 하는 것은 기운을 모으기 위함이고 달리기 선수에게 호흡은 절대적인 '과학'이다. 호흡에도(道)가 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모든 존재가 생멸을 거듭한다.

들숨과 날숨. 아나빠나삿띠는 바로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의 대상에 대한 마음챙김을 확립하는 수행법이다. 호흡 그 자체에 대한 마음챙김과 여러 종류의 느낌과 여러 가지 마음 상태들에 대한 마음챙김을 이루고 마침내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인 놓아버림(放下着)에 대한 마음챙김을 확립하는 수행법. 바로 부처님이 행했던 수행이다.

태국불교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붓다다사 스님은 평소 아나빠나삿띠의 소중함을 각별히 강조했다. <붓다의 호흡법 아나빠나삿띠>는 붓다다사 스님이 <안반수의경>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아나빠나삿띠 숫타>를 체험을 통해 풀어 쓴 해설서. 아나빠나삿띠 수행법 가운데 가장 상세하고 체계적인 지침서로 꼽혀왔다. 16가지에 이르는 수행단계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할 뿐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통한 친절한 안내가 책의 가치를 부양한다. 아나빠나삿띠의 수행은 1~4단계까지의 사마타(선정)수행, 5~12까지의 사마타(선정)와 위빠사나(지혜)의 동시 수행 단계, 13~16까지의 위빠사나 수행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이 수행법 하나로 선정과 지혜를 모두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불교가 대세를 이뤄 온 한국불교에서 아나빠나삿띠는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오해와 편견의 핵심은 아나빠나삿띠를 사마타 수행으로 한정짓거나 격하시키고 '과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냐'를 묻는 것. 언필칭 '하근기 수행법'으로 취급하던 상황에서 이 책은 아나빠나삿띠로 어떻게 사념처가 완성되며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그간의 오해와 사견을 불식시킨다는 의미다.

빠알리어로 된 경전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여 터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몸소 수행하고 지도했던 붓다다사 스님이 자신이 설립한 수련원인 '수완목'의 수행자들을 위해 쓴 서간문이 이 책의 근본이다. 이를 붓다다사 스님의 제자 나가세나 스님이 영역해 널리 보급했다. 우리나라에 위빠사나 수행을 뿌리내린 김열권 법사가 그 영역본의 번역을 주도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원저자가 철저한 자기수행의 체험을 바탕으로 삼았기에 역자(영역과 한역) 또한 한 경지를 이룬 수행자여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어려운 '수의 제작' 손쉽게 끝내기



수의만들기
남민이 지음 | 우리출판사 펴냄 | 2만5000원

우리 민족은 관혼상제(冠婚喪祭)중 상례를 중요시 생각해 죽은 사람을 극진하게 후장하여 존경과 추앙을 표시했다. 그중에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는 살아생전 최고의 예복이다. 수의는 자손이 미리 준비해 두면 부모가 장수 한다고 하여 윤달이나 윤년에 많이 준비한다. 이 책은 '수의 제작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충분히 깨트리며 '수의'를 이해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저자는 우선 수의의 개념과 특징부터 정립한다. 수의란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으로서 명주와 면, 삼베 등 새롭게 지어서 입히기도 하지만 생전의 예복을 입히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매장이나 화장시 공해를 유발시키지 않는 옷들이면 수의로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한국 대표적 선사들의 삶과 사상



경허와 만공의 선사상
태진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5000원

경허와 만공. 한국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선사다. 두 선사의 행적과 수행사상을 연구 정리한 <경허와 만공의 선사상>이 발간됐다.

저자 태진 스님(갑사 주지)은 "두 선사는 사회의 모든 문제까지도 불교적인 시각을 통해 타개하고자 했던 인물이기에 그들의 생애와 선사상을 통해 오늘날 한국불교 모든 문제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밝힌다

이 책에서는 근대 한국불교에 선풍(禪風)을 진작시킨 경허 선사의 선사상과 한국 전통의 선불교를 지킨 만공 선사가 수덕사 덕숭산문(德崇山門)을 확립한 배경과 역사 등이 소개된다.

김주일 기자



108 가지 불교 용어 해설서



상식으로 만나는 불교
계환 스님 지음
정우서적 펴냄 | 9000원

"불교가 어려운 이유는 용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환 스님(동국대 불교대학 교수)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를 '고유 용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꼽았다.

이 책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108개의 불교 용어에 대해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질문들이 때론 날카롭고 도발적이기까지 하다. "집착을 끊으라고 하는데 집착 없이 살다보면 삶의 의욕까지 잃지 않을까?" "불교에서는 모든 것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무아'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와 같은 식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불교적 시각과 삶의 경험에서 길어 올린 통찰로 차분히 설득하고 해결책을 건넨다. 가령 '무아'를 자동차에 비유해 설명한다. 자동차가 부품들의 결합에 대한 이름이듯 사람도 정신과 물질의 현상적인 결합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이것에 '나'라거나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조금 더 살펴보자. 오계를 수지해도 오롯이 지키며 살아가는 재가불자들은 적다. 계를 지키지 못할까 걱정돼 "계는 꼭 받아야 할까?"하는 의문을 가지는 초심자들에게 저자는 일침을 가한다. "일반사회에는 자유를 보장해주는 법이 있듯 불교에는 불자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가 있기에 반드시 수계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옛 어른의 말씀을 덧붙인다 "계는 앉아서 받고 서서 어기더라도 받아야 한다."

이 책은 단순히 용어해설서와 개론서를 넘어 인생을 고민하는 이까지도 늘 곁에 두고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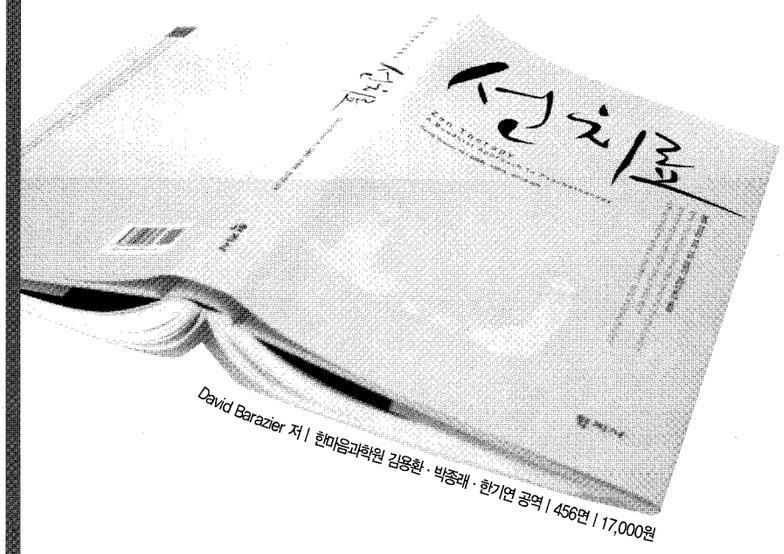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3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4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5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6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앙리 브뤼넬	솔바람
7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8	정진	지광	랜덤하우스
9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10	화, 욱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툽텐 초드론	미디어 윌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David Barazier 저 | 한마음과학원 김용환 · 박종래 · 한기연 공역 | 456면 | 17,000원

설치료

동양 정신인 선과 서양 과학인 심리치료의 융합

심리치료는 하나의 의식이다. 의식은 신성한 행위다.
현대생활은 그러한 신성함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선은 그것을 향상시킨다.
선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수행이며, 자아실현을 넘어서 있다. 매일매일의 선수행은 몸과 말과 마음의 모든 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Z·E·N·T·H·E·R·A·P·Y



David Brazier
오랫동안 불교의 가르침을 심리치료에 접목하는 방법론을 연구해 온 심리치료사로 유럽, 아프리카,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실천 불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선 수행자다. 아미타 트러스트(Amida Trust)라는 수행 단체(http://www.amidatrust.com)를 조직하여 불교 심리치료의 교육, 참여 불교 프로젝트의 추진, 현대적인 수행 공동체의 개발 등 불교의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이 단체의 정신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


마음챙김명상 수련 시 제기되는 물음과 답
마음챙김명상 108가지 물음
장현갑 외 공저 | 248면 | 12,000 원

내면에서 빛나야 할 직관을 찾아 떠나는 여행
명상심리치료입문
매튜 플릭스타인 저 | 고형일 외 공역 | 224면 | 13,000 원

붓다의 가르침과 서양 심리학의 통찰의 조화로운 만남
붓다의 심리학
Mark Epstein M.D 저 | 전현수 외 공역 | 300면 | 15,000원

완전한 자기 구현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존 카밧진 저 | 장현갑 외 공역 | 384/352면 | 10,000원

국내 최초의 동양상담학 개론서
동양상담학 시리즈 ①~⑨
박성희 저 | 각권 100면 내외 | 세트 63,000 원
❶ 마음과 상담 ❷ 불교와 상담 ❸ 선문답과 상담
❹ 논어와 상담 ❺ 퇴계유학과 상담 ❻ 도덕경과 상담
❼ 모리타 상담 ❽ 나이칸 상담 ❾ 동사섭 상담

"학지사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학지사 Tel 02-326-1500 Fax 02-324-2345 http://www.hakjisa.co.kr

만다라에 해답있었네

반초 신순호, 만다라 역인식체계로 새롭게 조명



성악설.



재현.

반초 신순호 작가는 18년 동안 조형언어를 통해 역인식체계(逆認識體系)라는 사물과 과정에 대한 새로운 메카니즘을 기록으로 남겨오는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조형언어로 메카니즘을 기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고통스런 작업이었다. 메카니즘의 기술을 위해서는 특정

기하학적 형상기법 일맥상통
자연 등 재해석 50여점 전시
'번안과 부호화'의 세계 경험

한 부호가 필요한데 조형언어에는 특징을 상징하는 부호만 있을 뿐 어떤 이론이나 논리적 수립에 적합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 작가가 선택한 것이 만다라다.

만다라는 철학적 토대나 형상기법 자체가 역인식체계의 기하학적 형상언어와 일맥상통한 점이 많고 오랜 세월 다양한 이미지로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신 작가가 만다라 재생 작업을 한 이유다. 신 작가의 손에 의해 재창조된 역인식체계의 부호들은 'Largo (느리게), Dolce(달콤하고 부드럽게)' 등의 음악 기호와 같이 우주 만물 세계를 표현하는 수단 역할을 한다.

한국농어업예술위원회(www.plantopia.org)는 농업과 예술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불교작가 신순호씨를 초청, 9월 5일부터 11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각에서 특별기획전 'FORWARD PARADIGM'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에서의 사물과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 메카니즘으로 명명한 역인식체계를 담은 '재현' '성악설' '모방' 등 50여점을 선보인다.

신 작가는 불교미술의 한 장르인 '만다라'의 토대 위에 미술계에서도 생소한 '번안과 부호화'라는 시도를 통해 창작과 재생, 재창조의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신 작가는 "만다라는 일반 언어에서 사용하는 기호(문자)처럼 그 자체로 같은 의미에 대한 재생이 가능하며, 조형언어로서는 드물게 부호로서의 높은 기능성까지 지니고 있다"며 "기존 만다라 미술의 차원을 넘어선 이색적인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 737-9965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화려함 속 전통美 물씬

정중동(靜中動)을 화폭에 담아 연화세상(蓮花世上)을 펼친다.

불(佛)을 마음에 담듯 그림에 담아 30년 동안 수행하는 마음으로 불화(佛畵)에 매진한 부산 금강암 성타 스님의 개인전이 열린다. 부산 금정문화회관 2전시실에서 '연꽃 그림전'을 주제로 9월 8일에서 14일까지 30여점이 벽에 걸린다.

성타 스님은 이번 개인전을 맞아 "불교에서 깨달음을 상징하는 연꽃과 깨끗하고 맑은 호수 가운데 흐르는 잉어의 움직임을 통해 '고요함 속의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며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맑아지고 연꽃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명한 원색을 담았으나 한지를 사용하여 전통의 맛을 살린 성타 스님만의 독특한 화폭을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얻는 수익은 문화 포교를 위해 사용된다. (051)519-565 하성미 기자

성타 스님 '연꽃 그림전'

부산 금정문화회관, 9월8~14일



연꽃과 잉어, 맑은 물이 어우러진 연꽃화.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수상작 발표

회화 최점복 공예 박명옥 최우수상 수상

조계종 문화부는 '제22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불미전에는 회화 70점, 조각 28점, 공예 17점 등 총 세 부문에 걸쳐 115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최우수상 2점, 최우수상급 문화관광부 장관상 1점, 우수상 4점 등 45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올해 대상은 선정에서 제외됐다.

최우수상 회화 부문에는 최점복씨의 '흥국사 관음전 관음탱(사진 왼쪽)'이, 공예 부문에는 박명옥씨의 '문수보살 종이조각(사진 오른쪽)'이, 최우수상급 문화관광부 장관상에는 이인호씨의 조각 'Message 2007'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 1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또 수상작은 시상일인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와 박물관 시청각실 등에 전시된다.

한편 조계종 문화부는 그동안 격년제로 시행해 온 불미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는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김주일 기자

인류 최고 교역로 차마고도를 가다

KBS 1 TV서 9월 5일 첫 방송
5000여km 전 구간 소개
소수민족 문화 등 가득 담아

티베트인은 하루에도 수십 잔씩 차(茶)를 마신다. 차가 나지 않는 티베트에서 차가 생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차마고도(茶馬古道)'를 통한 교역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교역로인 차마고도는 중국 서남부 운남, 사천에서 티베트를 넘어 네팔, 인도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문명교역로다. 티베트인들은 이 길을 통해 중국의 차와 자신들의 말(馬)을 바꾸었던 것이다.

바로 이 차마고도가 다큐멘터리로 되살아났다. KBS 1TV의 '인사이트 아시아' 제작진이 2006년 4월부터 이달까지 1년 4개월 동안 차마고도를 따라 교역을 하는 마방의 행로를 밀착 취재한 영상이다. 9월 5일 첫 전파를 타는 '차마고도'(연출 신재국, 임세형, 서용하)는 총 6부작으로 제작됐다. 5일과 6일 오후 10시에 1~2편이 방송되고, 3~6편은 10월 경 'KBS 스페셜'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1편 '마지막 마방'은 차마고도의 주역인 마방들이 어떻게 길을 열고 교역을 했는지 살펴본다. 2편 '순례의 길'은 7개월 동안 1500여㎞에 달하는 고행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밀착 취재한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KBS가 편당 2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해 세계 최초로 차마고도의 5000여㎞ 전 구간을 촬영한 프로젝트. 마방의 행렬을 따라 차마고도 곳곳의 모습을 생생히 카메라에 담았다. 차마고도는 평균 해발고도가 4000㎞ 이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높고 험준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힌다. 화면 속에는 고산준봉들과 깎아지른 듯한 협곡 속에서 대자연과 소수민족들의 종교와 문화가 어우러진다. 세계 시장을 겨냥해 제작된 '차마고도'는 완성 전 이미 일본, 스페인, 대만, 태국, 카타르, 홍콩 등 8개국에 수출됐다. 방송 시점에 맞춰 촬영 내용을 담은 책 <차마고도-천상의 길 5,000㎞를 가다>도 발간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㉑

낙산사 홍련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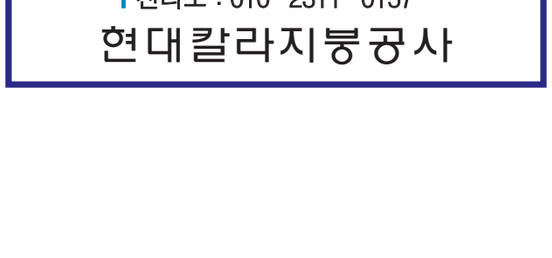
장인성 시인

낙산 바닷가에
불타듯 피어있는 홍련꽃을 봐!
연꽃을 쓰다듬는 아침 해처럼
환하게 다가오는 관음세상(觀音世上)을 봐!



홍련암(紅蓮庵)-양양 낙산 아래 동해를 끌어안고 있는 낙산사 부속암자 그림 : 이상배 화백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대한불교 조계종 만인회 약수사 만탑 불사 모연문

탑이란 누겁다생으로 갈고 닦아 이룬 소원성취의 결정체이며 옛부터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소원성취 만탑불사에 신남신녀 여러분의 수희동참을 앙망하옵니다.

일체중생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만탑불사는 역사이래 보기드문 대작 불사이며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다라니 기도를 매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국내최초, 최다 만탑 불사에 두루 동참하시어 자손대대로 무량대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

◆동 참 금 : 1인 1탑 30만원(10회 분할가능)
◆구좌번호 : 농 협 525-01-176510 (예금주 : 약수사)
우체국 400051-01-007539 (예금주 : 조계종만인회)

◈ 만인회 회원도 모집합니다. (월회비 1만원)
◈ 회원 가입시 각종 혜택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문의시 만인회 책자 무료우송

◆동참문의 : 063)625-6831/010-9115-6831

약사여래기도도량
지리산 약수암
전북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 183-2번지

※약수사 참배시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습니다.

설법 연수생 모집

15년의 전통을 지닌 본원에서는 "실기위주의 맞춤식 개인지도"를 원칙으로 하는 연수생을 모집 합니다.

● 교육목적
◇불교계 지도자의 정체성 확립
◇설법을 잘 할 수 있는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함.

● 교육내용
◇인간관계에 필요충분조건인 **화술**(스피치 기법)
◇상담과 설법에 필요한 **최면요법**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토의, 토론, 회의 등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모집 : 수시모집 - 맞춤씩 개인지도 2개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 - 10권:105,000원(30%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선가귀감
*바로보인 반야심경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출간)
*영원한 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전10권 중 2권 출간)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부왕의 펄펄한 정기 잇지 못하고 스무살에 요절



8대 예종 - 창릉

예종 1450~1469년(20세)
재위 1년2개월, 1468년 9월(19세)~1469년 11월(20세)

제8대 예종 가계도



서오릉(西五陵)은…

'서쪽에 다섯 개의 능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오릉에는 5릉(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 2원(순창원, 수경원) 1묘(대빈묘)가 있다. 동구릉 다음으로 큰 규모의 조선 왕실 가족묘다. 경릉은 덕종과 소혜왕후 한씨(인수대비), 창릉은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 한씨, 익릉은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 김씨, 명릉은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민씨와 제2계비 인원왕후 김씨, 홍릉은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 서씨의 묘다. 순창원은 명종의 맏아들 순회세자와 부인 윤씨, 수경원에는 사도세자의 어머니 선희궁 영빈 이씨, 대빈묘에는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가 묻혀 있다. 사적 제198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 30-1번지. 면적 82만 9792㎡(55만 3512평)

창릉(昌陵)은…

8대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 한씨의 능이다. 서오릉 능역 안에 있다. 예종은 14개월의 짧은 재위 기간 동안 남이(南怡)의 옥사 등 정치적 격동을 겪었다. 세조 때부터 시작한 경국대전을 완성했으나 반포하지 못하고 1469년 승하했다. 안순왕후 한씨는 청주부원군 한백륜의 딸이다. 1460년 한명회의 딸이었던 세자빈 한씨(장순왕후)가 병사하자 1462년 예종과 가례를 올려 세자빈에 책봉되었다. 1468년 예종이 즉위하자 왕비에 책봉되었으나, 이듬해 예종이 병사해 1471년 인혜대비에 봉해졌다. 1497년(연산군3년)에 명의대비로 개봉되고 그 이듬해 승하했다. 원비 장순왕후 한씨는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공순영릉이라 불리는 능역 안, 공릉에 있다.

아비의 업보를 지고 꽃다운 스무 살에 종생한 의경형 만한 아우가 없다. 아비만한 자식도 없다. 부는 대물림될 수 있지만 건강은 대물림되지 않는다. 세조의 아픔은 자식복 없음이다. 온갖 공을 들인 맏아들 의경세자 20세 요절, 부랴부랴 둘째 놈을 여덟 살에 세자로 책봉했다. 그러나 그도 즉위 14개월만에 20세로 역시 요절했다. 아비의 펄펄한 정기를 잇지 못하고, 못난 놈들. 창릉에는 세조의 비통이 자욱하게 서려 있다.

모든 생명은 안락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를 해치는 자는/ 자신의 안락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안락을 얻지 못한다. 〈법구경, 131〉

허공중에서도 바다 가운데서도/ 혹은 산속의 동굴에 들어갈지라도/ 악업의 갚음에서 벗어날/ 그런 세계는 어디에도 없다. 〈법구경, 127〉

요절한 임금은 업적을 남길 틈이 없다. 몇 개의 기록만 남겼을 뿐이다. 예종은 두 명의 부인(장순왕후 한씨, 안순왕후 한씨)에게서 2남1녀를 낳았다. 예종의 나이 12세 때 장순왕후가 첫 아들 인성대군을 낳았다. 장순왕후는 대군을 낳고 건강이 악화되어 17세로 요절했다. 조선 역대 제왕 중 가장 어린 나이에 아들을 낳은 이가 예종이다. 그러나 그렇게 낳은 인성대군은 4세 때 죽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박복함이여!

왕릉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 예종의 창릉은 화재의 기록도 갖고 있다. 왕릉은 산세가 좋고 주변에 수목이 울창하다. 부드러운 잔디 이불이 풍성하다. 산불나기 좋은 여건이다. 민가에 불이 나거나 일반 백성의 무덤에 불이 나도 큰일이거늘, 왕릉에 불이 나면 나라의 변고라 하여 왕은 정사를 폐하고 사흘간 소복을 입고 참회한다.

인조 3년 2월 28일 창릉에 불이 나자 인조는 조회를 폐하고 백관과 함께 3일간 소복을 입었다(인조실록 권8). 이듬해 1월 26일 또 불이 나자 임금과 백관은 다시 소복을 입었다(인조실록 권11). 고종 33년(1896) 4월 23일 능상에 화재가 발생하다(고종실록 권34). 기이한 기록이다. 화기가 센 것만은 틀림없다. 능에 불이 나면 책임을 물어 능을 지키는 수복(관리)의 목을 베거나 중벌로 다스린다.

'남아 20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어찌 대장부라고 할 수 있으랴' 라는 시를 남긴 남이 장군의 옥사가 일어난 것이 예종 때다. 남이는 태종의 외손자로, 세조 시대 최대 위기를 몰고 온 이시애의 난(1467년)을 평정하여 적개공신 1등에 책록 되고, 서북면의 여진족을 토벌하는 등 무공을 세운 무인이다. 세조의 총애를 받아 27세에 오위도총부 도총관과 공조판서를 겸하다가 병권의 수장인 병조판서에 발탁되었으나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자 그의 승승장구에 제동이 걸린다.

1468년 세조가 죽자 한명회, 신숙주, 강희맹 등 훈구대신들의 노골적인 견제를 받는다. 그들이 남이가 병조판서를 수행할 그릇이 못된다고 비판하자 예종은 남이를 병조판서에서 해임시키고 왕궁을 호위하는 금군의 수장인 겸사복장에 임명한다. 일종의 좌천이다.

예종은 애초부터 남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남이는 성격이 강직하고 무예에 뛰어나 세조의 총애를 받은 반면, 예종은 유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하여 세조의 신뢰가 두텁지 않았다. 그래서 예종은 당숙뻘인 남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차에 훈구대신들이 비판하고 나서자 즉시 병조판서직에서 해임시켜 버렸다.

남이가 겸사복장으로 궐내에서 숙직을 하던 중 혜성이 나타나자, '허허! 혜성이 나타남은 묵은 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징조로다' 라고 중얼거렸다. 이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 화근이다. 병조참지 유자광이 이 말을 엿듣고 남이가 역모를 꾀한다고 왕에게 고변했다. 역모자로 전락한 남이는 즉시 의금부로 잡혀가 문초를 받는다. 강도 높은 문초와 관련 증언으로 '남이의 역모사건' 은 윤곽이 드러난다. 사건에 관련된 자는 남이를 위시하여 강순, 조경치, 변영수, 변자의, 문효량, 고복로, 오치권, 박자하 등으로 모두 처형되었다.

이 사건은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역모사건으로 인식되었으나 그 이후 일부 야사에는 유자광의 모함으로 날조된 옥사라고 규정하고 남이를 누명으로 억울하게 죽은 젊은 영웅으로 기술하고 있다(연려실기술). 용맹스럽고 드라마틱한 인물이기에 남이가 신통력을 발휘하는 설화들이 많이 남아 있다. 때문에, 남이장군신을 떠받드는 무속 신앙이 지금도 많다.

몇 개의 기록만 남기고 예종은 20세에 승하했다. 사인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조선의 왕들은 과반수가 독살되었다는 설도 있다. 권좌는 건강을 유지하고 천수를 누리기에는 불편하고 부적합하다. 그가 원비 장순왕후에게서 얻은 첫아들 인성대군은 네 살에 죽었고, 계비 안순왕후가 낳은 둘째 아들 제안대군은 예종 승하 당시 네 살에 불과해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천수를 누렸다. 다음 왕위는 결정권자인 정희왕후에 의해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성종에게 돌아갔다. 예종은 계비와 함께 창릉에 누워 있다.


서오능의 예종 능에서 바라 본 안순왕후 한씨의 능.

조선 왕 중 가장 어린 나이인 12세 때 대군 낳아
재위 기간 짧아 '남이 역모사건' 등 기록 몇 안돼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원주생식에는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www.wonjulife.co.kr
현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2.56%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손길과 정성,
자연건강법까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그대로의 방법대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제대로 살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원주참생식 2개월분 90,000원
원주발아생식 2개월분 80,000원
원주흑선식 2개월분 90,000원
히말라야 석청 1kg 300,000원
원주장류
원주청국장환(1kg): 25,000원
원주청국장분말(1kg): 20,000원
원주된장(2kg): 20,000원
원주고추장(2kg): 25,000원
무상사 현진암
주문처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1111-1번지
소비자상담실 (053)986-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 무상사)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채용공고
한국불교의 요람, '재단법인 선학원' 이
유능한 불교인재를 모집합니다.
학력 대졸이상 / 경력 무관 / 성별 남자 / 종교 불교 / 인원 0명 / 직급 과장 / 근무형태 정규직
◈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자기소개서 A4 1장 분량)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면접자에 한해 최종 면접 시 제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면접자에 한해 최종 면접 시 제출함)
※ 이력서에 긴급연락처 기재
※ 사진 첨부
◈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합격자에 한해 면접일 개별통보)
※ 접수기간 : 2007년 9월 5일(수) ~ 9월 12일(수)
※ 서류접수 : (110-240)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재)선학원 총무과
※ 문의전화 : 02)734-9654~6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사항
가. 근무지역은 서울 종로구
나. 급여는 본 재단의 규정에 의함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향다원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17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아넨)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516-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행사 문의 바랍니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서울 강동구
011-445-9549
기원 합장

친환경 한지 영가옷
순수 한지로 만들어서 그을음이나 냄새가 나지 않아 도심지 사찰에서 사용하기 좋으며 우리한지는 질겨 잘 찢어지지 않으며 환경과 공해를 생각하시는 스님께서 많이 사용하는 영가옷 입니다
※치수는 일반영가옷과 동일합니다
※주문즉시 택배로 발송합니다
054)972-9933
017-503-3503
(꼭 필요한 번호입니다. 메모하세요~)

물어보세요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기도 회향방법 지도
꿈바위 불교교육원
016-787-3977

빙 의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픈 분
신병 · 무병 · 알콜중독 · 우울증 · 컴퓨터오락중독
www.jijangsw.com
054)383-8553
(부처골 지장선원)

채식요리 식이요법 **자연건강법 강의**
3개월과정,주1회,월20만원
•대상 : 주부, 건강관리사, 요가지도사, 성인병환자
•강의 : '영혼의 음식' 저자 이도경 선생
019-527-3587
02)576-3589

범음 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49재, 천도재,
각종행사
천수바라, 사다라니다라,
승무작법
010-2570-3847

세계최면치유연구소
부산,경남,전국 최고!!
전생체험, 빙의제거!
실습위주의 최면전수
저서 : 최면치유법
051)803-7208
www.choimyun.com

명리학 · 사주 · 역학 배우실 분
철학원, 포교원, 암자 운영할 분
스님, 무속인, 일반 출퇴근, 숙식가능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발급
031)511-7183

운영이 안되는
포교당이나
사찰 무보시로
도와드립니다
▷경남북 지역 원함
(50대 비구승)
010-5573-363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하)
041)673-233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지역
053)313-590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세 이상 60세 전후)
서울 구파발(전철에서 10분거리)
02)352-0572
011-261-0572

도반을 같이 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60세전후)
055)883-884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합니다
(60세 이하) ▷서울 정릉
02)917-3363

신축절 백옥사에서
평생계실 비구니 스님을
모시고자 합니다(55~65세 까지)
신심깊은 보살님도 모십니다
(55세 이상)
▷충남 대천시내에서 10분거리
011-340-4478
041)933-885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011-820-3046
054)284-660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서대문구
010-7273-321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포교당)
010-3137-889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같이 불사와 포교를
함께하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707-3490

조계종 고려고찰임
소백산 내원암 지장보궁
번거롭지 아니하고 조용한
기도처에서 자기기도 하면서
법당을 관리할 보살님과
40-50대의 공양주구합
▷경북 소백한 내원암
054)653-118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경주 산사
054)772-4133

조용한 산사에서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863-4143
011-392-688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북 영주지역)
011-539-115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세 전후)
▷대구 근교
010-5255-038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숙식제공 (부산지역)
051)542-4848
011-551-171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0-4469-7227

사주운세 전화상담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02)826-5067
명리학 통달 [사주첩경 이석영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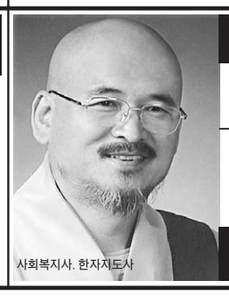
부처님께 귀의해서
출가하여 스님이 될
행자(女)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9199-709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011-515-5843

사찰 행사 49재, 천도재, 불상점안, 산사음악회 (범음범패, 바라, 작법무, 화청, 전통무용)
영산회상 예술포교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일겸합장)
문의 051)557-1130/011-482-2091
홈페이지 : www.천도재.kr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스님들이나 법사들의 포교방편 최고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1. 기로써 퇴마를 치유한다
2. 즉석에서 우주와 결합시킨다
3. 손 끝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다
※ 세상에 이런 신통기공사는 한명 뿐
※ 사찰 입종 환영, 행자승 모집!!
▸웰빙 건강 최고의 건강 수련법◂
각종 질병이 수련시 치유되며
즉석에서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수기간 :3개월 완성 •속성반 :2개월 완성
*연락주시면 동영상 CD를 보내 드립니다.
*스님들 법사님들 우선순위 환영 하며
*타종교와 일반인도 환영 합니다.
대한선랭불교조계종총무원
•법인 : 삼삼구 불기공 전국 총 연합 본부 (5호선 명일역 3번 출구 부근)
TEL 02)426-4774 / FAX 02)426-5585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행자(예비스님) 모집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산중 감포군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 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2007년 1학년 경전반 편입생 모집 - 반야심경, 금강경
•회주 우학스님 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이런 분 찾아오세요.
고질병으로 굿이나 영가천도해도 효과 없는 분
학업성적 부진, 가출, 아는 문제 잘 틀리는 학생,
부부간의 갈등, 혼사 지연, 부모자식간의 불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사업 고민이 많으신 분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삼재 등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하지만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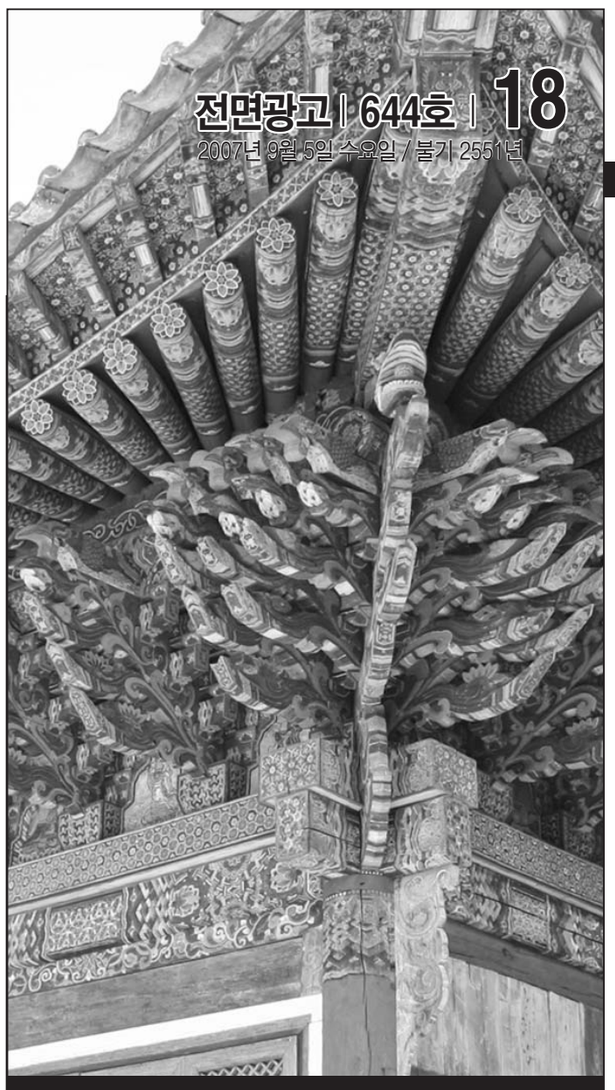
탈 종 공 고
● 법명 : 대현(大鉉)
● 속명 : 이대영
● 승려번호 : 011-0366
상기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5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대중포교 친견고민 끝!
"효사육임록변집"
- 드디어 공부할 필요없이 쉽게 활용되도록 해 놨습니다 -
이 육임활용서는 효사 육임래정비법 의 최신 "완결판" 입니다.
60갑자를 매일별로 3장 6면에 편성, 독립제본(A4,A3용지크기 2종류)
하여 ①왔는가? ②어떤 정황인간? ③형이상각법 (작사귀 병귀 침범여부 및 그명칭, 부정빌미침범여부 및 그 명칭, 산소탈 침범여부 및 그 망자육친, 산소탈 이유, 후손재해, 묘지경관, 묘지물형좌, 묘지속상태, 각각의 해소지침) ④당면운세 판단 ⑤띠별 나이별 길흉 ⑥묻는 목적사 23항목별 성부 ⑦1년 월별 신수 ⑧원전 육임직지요결 등등을 또박또박 기입해 놓아
■정확도 ■효과성 ■간편성을 담보시켰습니다.
표시된 방문시간과 표시된 해당국수만 주-욱 보고서 보듯 보아나가면 정곡을 찌르는 위력 이 있게 됩니다.
이외, 실생활에 적용되는 즉시적 능동적 육임활용간단비법들을 순서에 맞춰 적시해 놓았습니다.
이 책 60갑자 60권, 동일한 각일치 3장 6면의 양식구성에만 무려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것은, 정확도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학습하지 않고도 만족스럽게 활용하여 효과가 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굳이 말씀 드립니다.
■ 주문 : 02)993-8680 (60갑자일 각 순 10권씩, 6순 60권 독립제본, 8월 20일부터 1-6차 발송함)
■ 입금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주)
농 협 170338-56-155880 김나형
■ 대금 : 250만원
(100만원 입금후 3개월 분할가능, 카드결제가능, 교환 할인 접수는 마감됨)
육 임 나 라
www.taoetmple.net
효사육임강론 序六版과 기존 강론 · 강의록 교환접수합니다.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판 CD프로그램과 기존 Ⅰ·Ⅱ·Ⅲ 과 교환접수합니다.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개인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 초 과 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뼈교정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7. 9. 3(월요일반) / 9. 8(토요일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매주 금요일 임상 및 개인지도(무료)
매주 화요일 무료 공개강좌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기초에서 백법 까지 실전에
임할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람에 일을 판단하는데는
옛부터 육임이 제일이라 했습니다.
720 국수에 당긴 비술만 터득하면
어떠한 점사도 가능한것이
육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학문을 배우실분들을 원합니다.
◆ 직강수강료 : 100만원

처음할말 = 문서 시험은 후에는 길로된다
가정을 잘다스리고 화합하세요
그래도 가정이 제일입니다 나를 구해주고
의지할 곳은 가정입니다
육임 동영상 CD판매 판매가 100만원
거리가 멀어서 직강을 들을수 없는 분들은 동영상 CD와 교제로 육임을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실 수 없어도 ID와 비밀번호만 치시면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공부는 직강과 동일 합니다.
720 국수 CD 판매 판매가 100만원
육임에 진수인 "초사(왜 왔는가?, 하고자 하는 일은 될까 안될까?)"를 그날에 시간만으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수 있는 육임만에 비법을 그날 시간만 택하여 국수만 찾으면 모든 점사가 명확히 수록된 CD입니다.
육임에 용어와 시간간택법, 보는 요령등을 CD에 담아 같이 보내드리며 직강이 가능한 분들은 4회 수강권을 같이드립니다.
※직강신청+육임동영상+720국수CD 구매시 특별가(200만원) 적용
공념학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동해
- 법당 : 82㎡(25)목조
- 요사 : 217㎡(66)목조
- 부지 : 891㎡(270)목조
- 가액 : 4억(급양도)

- 위치: 마산
- 법당 : 82㎡(25)
- 요사 : 132㎡(40)
- 부지 : 1,155㎡(350)
- 가액 : 7억3천

- 위치: 마산지역
- 법당 : 79㎡(24)목조
- 요사 : 36㎡(120)목조
- 명부전 : 660㎡(200)
- 부지 : 3,960㎡(1,200)
  국 4950㎡(1500)
- 가액 : 2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부산 영도 바닷가
- 부지 : 130평
  (시유지30평 포함)
- 법당 목조 25평, 요사채2동
- 주변경관 바다전망 최고
- 120년 역사 전통 사찰
- 가액 : 3억 2천

- 위치 : 삼랑진역 10분 거리
- 총평수 : 110,000㎡(3만3천평)
- 종교용지 : 1,530평+밭550평+임야
- 법당 15평 ● 요사채 20+20평
- 120년 역사(기도도량 최고)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 가액 : 4억원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연희동(대로+소로)
- 3층 건물중 2, 3층 전관 90평
- 5불 · 후불, 신중, 산신탱화(예술작품)
  (비로자나 아미타불 -각108불)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170만원)
  시설비 5천만원(절충가능-협의조정)

010-2580-011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역 부근 ● 평수 : 약 45평
- 4층 건물중 3,4층(옥상사용)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단,
  주불 약사불 100불, 영가단
-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1-225-8344

사찰 포교당 안내

- 울산 신축사찰
  엘리베이터(유) 9억5천
- 해운대구 50년 전통사찰
  320평 10억
- 수영구 30년전통사찰 100평 5억
- 해운대구 반송 포교당 40평
  1억6천5백
- ※부산경남근교 2억~10억 사찰
  긴급구함(신속처리 비밀보장)

부산경남 연산불사 010-2460-336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마산 산호시장 앞
- 평수 : 30평
- 4층 중 2층 전체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시설 최상급
  즉시입주 법회가능

055)232-7151
055)243-3758
011-599-84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402평, 임야 30평
  (실사용평수 약 600평)
- 대웅전 33평,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7층 석탑, 정남향,
- 산세수려, 진입로 포장
- 가액 : 7억5천만원

011-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근교,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남(서울 50분)
- 부지: 약 2000평, 법당2개,
  방9개, 교육관(큰방1)
- 특징: 기도성취 대불
  <노천법당, 시설 최우수>
  진신사리봉안(탑), 전망이
  좋으며 경관수려
- 가액: 12억

016-9757-5608
033)257-7124

사 찰 안 내

- 평수 120평
- 1층 16평, 2층 법당 20평
- 요사채 1, 산신각 1
- 경주 터미널 15분 거리
- 집기 일체
- 가액 : 9천만원

011-544-977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포항시육거리
  (구, 시청앞)
- 건평 35평(2층)
- 법당 잘 꾸며져 있음
- 몸만들어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옆 건물은 다방(살림도 가능)
- 가액 : 시설비 1300만원
  보증금 200만원, 월32만원

011-9798-8460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 600평
- 법당 25평(단청),
  요사채(2동) 30평, 20평
- 가액 : 3억3천만원
  (가격절충가능)
  (1억5천 융자가능)
- 즉시 법회가능, 마당 연못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4583-20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지하철 4호선 길음역
  4번출구 1분거리
- 4층 건물 3층 20평
- 보증금 :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1-358-4252

포 교 원 안 내

신축 불사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경기도 안성시 2층 건물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및 화장실
- 옥상 20평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특징: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앞
  역학하시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 최고 위치

017-297-4097
043)211-057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경기도 경계
  (원 도봉산)
- 시위지 약 300평
- 임법당
  건평 45평, 별채 18평
- 경내에 칠층석탑,
  관음석불 있음. 심야보일러
- 4호선 망월사 전철역에서
  5분거리
- 공기청정, 조용하고 산세수려함

016-337-9518

사찰(급) 안내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 부지 : 200평
- 가건물 임법당
  뒷쪽은 야산, 앞쪽은 시내와
  바다가 보임. 아주 조용함
- 가액 : 1억

011-693-5324
-오후에 통화 가능-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순천
- 대지 : 250평
- 대웅전 25평
- 요사채 : 20평
- 화장실 3칸외 시설완비
- 가액 : 2억 5천만원
- 꼭 하실분 전화요망

010-9333-847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영동 IC에서 20분 거리
- 대지 : 300평
- 건물 4동(임법당)
- 시설 일체 완비
  산세수려한 수행처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6472-792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내에서 5분거리
- 평수 : 450평
- 대웅전, 미타전,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방4개
- 가액 : 답사 후 절충
- 산세수려, 수행처로 적합

010-9870-108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남천동
  (중심지)
- 대지 : 80평
- 한옥 임법당 20평
- 요사채(슬라브)15평
- 가액 : 1억3천5백만원
  (전세도 가능)
- 주인보살직접

010-9311-6788

사찰(급)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자모사
- 평수 : 70평
  (3층건물 중 3층)
- 전세 500만원, 월50만원
- 사정상 급 안내합니다

010-2707-677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울산 북구
- 평수 : 57평,법당 20평
- 방4개, 공양간, 창고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6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특징 : 신흥 주거지역
  대단위아파트인접
  즉시법회가능

017-517-0097

사 찰 안 내

- 위치 : 단양
- 대지 : 270평
- 요사채 : 50평
- 법당 : 30평
- 가액 : 1억 6백만원

010-9959-1026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법당 목조 단청 필
  삼성각, 한옥 황토집 1동,
- 요사 30평 1동,
- 지하수, 마당에 연못있음,
  조경 완결
- 모든시설은 최상급
- 급 양도 및 전세

011-575-0396

암 자 안 내

- 위치 : 마산
- 가액 : 4200만원
- 몸만오시면됨

010-9235-931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의정부 신곡2동
- 83평(12층 단독).
- 보증금 5000. 월 90만원
  시설비 2천 5백

010-5698-876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 보증금 2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1-600-312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200평, 법당 30평(목조)
  산신각 10평(목조)
- 납골 200기 시설
  (100기 미분양), 요사완비,
  지장대불, 사리탑 완비
- 가액 : 2억5천만원

010-9115-6831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수원시 고등동
  5거리부근
- 법당 30평(2층)
  주방1, 방2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398-481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031)405-4181
010-6321-1639

인천지역 포교원 안내

- 건물 37평(계단, 화장실,
  주차공간 제한평수)
- 3층 신건물, 2층 전체사용
- 삼존불, 신중탱화, 칠성탱화,
  산신탱화(佛), 영가단
- 사무실, 접견실 겸 공양실,
  주방, 에어컨 2대 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2500만원
  보증금포함 시설비
  합 : 4500만원

010-6261-6117
진공스님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소재지
- 대지 : 70평
- 가액 : 3천 9백만원
- 법당, 요사
  바다가 보이는 마을

055)672-2874

도심지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로변
  2층(4층건물)
- 삼존불, 소불 별도봉안
  법당 30평, 방, 주방 등
  총 46평
- 주민밀집 · 시장, 대학교 인접
- 보증금 5백만원, 월45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6208-2271
053)629-6227

구 합 니 다

- 사찰 월세나 전세
  (지역 관계없음)

010-8828-3002

사 찰 안 내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약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 요사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4천만원, 월 30만원

055)674-5978
011-864-669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창원시 소계동
- 30평,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55)297-9108

사찰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모라동
- 법당 26평
-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각 후불탱화
- 즉시법회가능
- 시설비, 전세 총 2천만원

016-557-20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율동
- 대지 : 120평
- 법당(삼존불 모셔져 있음)
- 시설 : 요사채(부엌, 방5)
- 특징 : 교통편리
- 가액 : 1억3천만원 또는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016-525-0324

토 굴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근처
- 평수 : 대지 500평, 건물 50평
- 5년 월세 350만원

010-9205-99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사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7억

- 위치 : 경기남부
- 부지 : 42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63평
- 가액 : 9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제주시 외도1동 부영2단지
  2천세대 대단지 앞
- 굿당으로 최적지
- 법당 15평, 요사완비
- 주차공간 300평 및 채소밭으로 활용가능
  시설비품 집세 합 1300만원

017-393-1127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삼태산
  옥여봉아래
- 계곡 암석바위
- 도로, 전기수도, 2차선에서 약 700미터
- 단양 20분, 제천 30분, 어상천면 5분거리
  펜션단지 5분, 서울 2시간
- 대지, 전 : 총 965평
- 평당 7만원(주인직접)

010-6460-1316

포교당 임법당 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온양터미널 뒤)
- 대지 60평, 건평 25평
- 방 3, 욕실, 거실
- 삼존불 봉안(시설완비)
- 가액 : 8천5백만원(아산시 공시지가임)

041)533-0853
010-3011-0853

사 찰 안 내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소재
- 부지 : 12,078㎡(366평)
- 기타 : 330㎡(100평)
- 법당 : 목조 기와 단청 39.6㎡(12평)
  요사채 : 181㎡(55평)
- 심야보일러, 주차장완비
- 가액 : 2억3천만원

016-820-7766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보증금, 시설비 포함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1.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 1만여평 부지,전각 10여동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7-373-5998

2. 위치 : 춘천시
- 대지 200여평, 조립식 임법당 30평 외
  부속건물 10여평
- 가액 : 1억5천만원

010-6739-6426

도심포교 사찰안내

- 위치 : 청주시 주산인 우암산 중턱 ● 대지 : 53평
- 건평 : 대지전체 건물축조 (※2005년리모델링건축함)
  ①1층-전통흙벽돌 및 목조건축 53평
  ②2층-준 2층이며 목조 및 캐노피발코니건축 25평
- 양도가 : 2억 7천만원 ① 승계가능한 융자5천만원 포함
  ② 현사찰기능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모두 포함
- 사찰특징 : ① 쾌적한 환경 및 시내조망권최상
  ② 현재 포교활동 및 사찰 운영 재정상태 원활함
  ③ 도심포교와 연계하여 공동체 마을 운영중
  ④ "공동체마을"까지 인수하실 경우 "도심선방"으로도
  연계 사용가능함
  ⑤ 충북 보은군 내북면 소재"공동체마을 규모"
- 대지 : 200평 건물 : 법당45평,공양간45평
- 공동체 마을 인수금 : 1억원

016-401-6254

보호장구 확실히 챙기세요~



"벌초하기 전 준비는 충분히 하셨나요?"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는만큼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진제공=농협 장례지원단

벌초 때 이런 것 조심하세요

추석을 한 달 여 앞두고 벌초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 부여군에서는 벌초 작업을 하던 유 모씨가 예초기의 날이 깨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전북 장수군에서는 정 모씨가 벌초를 하다 벌에 머리를 쏘여 목숨을 잃었다. 매년 하는 벌초지만, 준비 없이 산에 올랐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벌초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벌초대행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 독사 · 벌 등 대비, 한낮 피해야

해마다 명절을 앞둔 시점이면 벌초를 하다 벌이나 독사에 쏘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벌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9월은 사고 발생률이 더욱 높다. 올해는 특히 말벌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벌초를 하기 전 옷차림과 보호 장구를 갖추는 것은 기본. 덥다고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산에 오르면 벌이나 뱀의 공격을 받기 쉬우므로 긴팔 긴바지를 갖춰 입는다. 장화와 장갑을 챙기고 예초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모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옷은 빨간색, 노란색 등의 원색을 피하고 향수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한다. 벌초하기 전 술을 마시면 술 냄새가 벌을 자극해 쏘이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지혈대와 붕대, 항히스타민제, 생리식염수 등 간단한 구급약도 챙겨가도록 한다. 적은 수의 벌이 공격할 때 스프레이형 모기약을 뿌리는 것도 방법이다.

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벌초를 하기 전 막대기 등으로 산소나 풀무더기 주위를 건드리거나 흙을 뿌려 벌집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벌이 공격할 때 손이나 옷을 흔드는 행위는 절대 삼가고, 수많은 벌떼가 공격할 때는 그 자리에 엎드리지 말고 현장에서 가급적 멀리 달아나거나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좋다.

만약 벌에 쏘였을 때는 손이나 핀셋 대신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벌침을 빼내는 것이 좋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상처를 진정시키는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나 구토나 어지럼증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독사에 물렸다면 물린 사람을 눕혀 안정시키고 상처 부위 위쪽을 끈이나 고무줄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한다. 물린 즉시 입으로 독을 빨아내면 몸 안으로 들어간 독의 반 이상을 제거할 수 있다. 단, 입안이나 식도 등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독을 빨아내지 않도록 한다.

한편 무더위 속에 뙤약볕 아래서 장시간 벌초를 하다보면 탈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한낮의 더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

벌초시 긴팔 · 긴바지 등 갖춰야
술 냄새 벌 자극할 수 있어 조심
예초기는 15m 이내 접근 위험
대행서비스 작업 후 확인 해봐야



▷ 예초기 사용법 숙지 안전장비 착용

최근 벌초 중 많이 발생하는 것이 예초기 안전사고다. 예초기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않거나 예초기 날의 조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05~2007년 8월까지의 예초기 관련 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115건 중 7~9월에 74%인 85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예초기 안전사고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 시 보호덮개 등의 안전장구를 부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초기의 요란한 소음과 진동, 매연은 땅벌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므로 예초기 사용 전에 묘지 주위에 벌집이 있는지 잘 살피도록 한다. 또한 묘지 주위의 돌멩이나 나무뿌리 등 딱딱한 물질을 제거한 후 보호 장갑이나 안경, 안전모, 안전화 등을 갖추고 사용하도록 한다. 평평한 곳은 3도 날이나 기타 금속 날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초보자는 안전한 나일론 커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작업 중에는 반경 15m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예초기의 날이 돌에 부딪혀 부러지면 신체에 상처를 내거나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로 이어지므로 주의한다. 상처가 났을 경우 상처 부위에 흙이나 된장, 담배가루 등을 바르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벌초를 할 때는 묘지 둘레의 잡초를 제거한 후 봉분에서부터 먼 곳부터 원을 그리듯 나선형으로 예초기를 움직여 봉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대행서비스 업체 신뢰성 따져봐야

시간이 없거나 낫질이 서툴러 직접 벌초를 하기 어려운 도시민들을 위한 벌초대행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자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벌초 현장에 바로 찾아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부실 업체도 적지 않으므로 이용후기나 업체 정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최근 농협은 전국 지역농협에서 벌초대행서비스를 포함하는 '산소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벌초대행서비스 희망자는 농협장례지원단 홈페이지(www.jangrae.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벌초 전후의 묘지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주므로 벌초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역과 위치, 크기 등에 따라 가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5~15만원 선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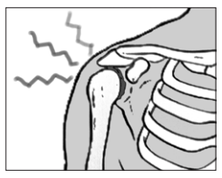


습한 기운 기혈을 어혈로…어깨 결림 동반
경혈점 지압 또는 온열요법으로 통증 완화

1. 오십견

가을의 문턱인 처서(8월 23일)가 지났는데도 무더위가 여전하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많이 쐬고 찬 음식을 자주 섭취하다 보면 몸 안에 냉기가 쌓이게 된다. 이렇게 냉기가 쌓인 채 가을철 찬바람을 쐬게 되면 그 누구보다 오십견을 앓고 있는 사람의 고통이 크다. 초가을에 오십견 환자들이 한의원을 많이 찾는 이유다.

오십견 환자에게 있어 찬 기운은 매우 위험하다. 찬 기운을 만나면 한방에서 오십견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어혈이 특히 잘 생기기 때문이다. 어혈은 혈액 순환이 잘 안되어 죽은피가 한 군데 고여 뭉친 것이다. 따라서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오십견 환자들이 어깨통증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오십견의 원인과 적절한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어깨결림의 주원인을 습(濕)이라고 했다. 몸에 습기가 차면 몸이 무거운 느낌을 갖게 된다. 실제로 몸 안에 탁한 습의 기운이 있으면 이로 인해 기혈이 잘 소통되지 못하고 어깨에 정체되면서 뻣뻣하고 묵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정체된 기혈이 어혈로 변하면서 어깨가 결리고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초기에는 팔이 저리는 통증이 있다가 관절 움직임이 유연하지 않게 느껴진다. 팔을 뒤로 돌리거나 위로 올릴 때 어깨의 특정 부위가 아프다. 주로 밤에 악화되며 목과 손가락까지 통증이 내려오기도 한다. 또한 어깨 및 팔의 움직임의 반경이 점점 좁아지게 되며, 심한 경우 통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거나, 옷을 입고 벗거나 머리를 감는 일 등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오십견은 한가지 원인으로만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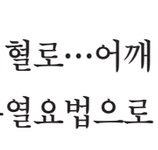
침과 서경탕은 오십견 발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오십견의 핵심치료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침의 경우에는 원인을 치료하는 혈자리를 오십견이 발병한 어깨의 반대편 팔이나 다리에서 찾아 자침하므로 효과를 높인다. 서경탕은 오십견의 10가지 원인과 증상에 따라 약재를 달리하는데, 주된 약은 어혈을 깨는 약으로 처방한다. 아울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즉 양기를 보하는 약재가 들어간다.

장시간동안 한 가지 자세로만 있게 되면 근육이 경직될 뿐 아니라 피의 순환이 막혀서 어혈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오랜 시간 컴퓨터를 작업하거나 책상에서 업무를 볼 때, 목과 어깨주위의 굳은 근육을 푸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운동하는 방법은 어깨 주위의 경혈점을 위주로 지압해 주는 방법과 어깨관절을 돌리거나 스트레칭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목을 앞으로 구부리면 목 뒤에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뼈(경추)가 있는데 이 점과 어깨 끝단의 가운데 부분에 견정이라는 경혈점이 있으므로 한 손으로 반대편 어깨의 이 경혈점을 5~10초 정도 지긋이 눌러주거나 마사지해 준다.

무엇보다 목과 어깨를 긴장시키는 자세나 과로 및 스트레스를 피해 기와 혈이 잘 통하게 하는 것이 오십견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여동현(소중한몸한의원 원장)
(WWW.1075LOVE.COM)



여동현 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를 졸업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내과 인정 전문의이며 팀닥터프로그램을

세계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도통사 神 치유의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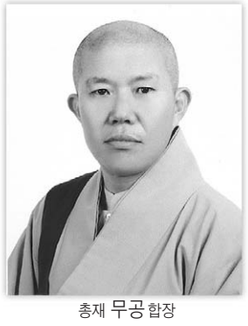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도통사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지도자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고 내공 외공을 소유하며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 **神치유의통사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총재 무공 합장

지도자고급과정
● 입제일 :
2007년 9월 8일 (토요반)
14:00 - 18:00 (10회 과정)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전 수 비 200만원

불교심리철학	서양 심리철학
사마타 수행법	위빠사나 수행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조상영가 보는법	육효 신 비법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 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세계최고정신지도자협회 국제참선공지도자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4번)

설법·가람·나라 지키는 위풍당당 수호신



그림4 : 지국천왕의 위엄 가득한 푸른 얼굴과 화려한 보관이 생동감 넘친다.

불화 속의 명장면 (32)

日 오사카 사천왕寺 소장- '영산회상도'



그림1 : 여의주를 든 서방 광목천, 일본 오사카 사천왕사소장 조선전기(1587년) <영산회상도>

"당나라 군사들이 수없이 우리나라 국경에 이르러 바다 위를 순회하고 있습니다"라고 정주고을 사람이 달려와 급히 아뢰었다. "일이 이미 절박하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라고 왕이 물으니, 명랑법사가 답하기를 "채색 비단으로 임시로 절을 만들면 됩니다"하여, 채색 비단으로 절을 만들고 풀(草)로 오방신상(五方神像)을 만들었다. 그리고 유가 명승 12명이 명랑법사를 우두머리로 하여 문두루 비법을 썼다. 그러자 그때 당나라 군사와 신라 군사가 아직 교전도 하기 전이었는데, 갑자기 바다에 거센 풍랑이 몰아닥쳐 당나라 배가 모두 침몰하였다. 후에 절을 고쳐 짓고 사천왕사(四天王寺)라 이름 하였고, 지금까지도 이 절의 법석(法席)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삼국유사 기이 제2: 문무왕 법민〉

가미카제(神風)다. 몽고군이 일본을 침략하려 할 때 신의 바람, 가미카제가 불었듯이 당나라 50만 대군이 신라를 공격하려 할 때 이미 그에 버금가는 신의 바람이 불었었다. 이름 하여 문두루 비법. 문두루는 산스크리트어 무드라(mudrā)의 음차인데, 그 뜻에 맞추어 의역하면 신인(神印)이다. (무드라는 좁은 의미로 부처님의 손 모양인 수인(手印)을 가리킨다) 신의 인장, 즉 신의 증표를 보이니 비바람이 일고 물결이 쳐서 당나라 군사는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몰살당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다. 그 후 다시 5만 군사로 침공해 왔으나, 다시 그 비법을 베푸니 당나라 배들이 또 속수무책 바다 속으로 침몰했다. "문두루로 산을 찍으면(印) 산이 무너지고 모든 수목을 찍으면 수목이 부러지고, 강이나 바다를 찍으면 물이 고갈되고, 물이나 불을 향해 찍으면 그것이 소멸되고, 돌풍이 불다가도 인(印)을 들어 향하면 곧 바람이 멈추고, 또 인(印)을 들어 땅을 향하면 땅이 움직인다. 사방에서 도적이 어지럽게 일어나도 인(印)을 향하면 곧 흩어져 버린다"라고 〈관정경〉(정식 경전 명칭, 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에는 쓰여 있다.

신라 통일의 대업을 마무리한 이 문두루 비법이 행해진 곳은 경주 남산의 남쪽 기슭, 예로부터 신성시된 신유림(神遊林)이라는 성지(聖地)였다. 채색 비단으로 급조하여 문두루 비법을 행한 이 장소에는 그 뒤 장장 5년의 공사 끝에 우람한 사천왕사가 완공된다. 풀로 만들었던 오방신상은 투구와 갑옷을 입고 활과 화살을 든 사천왕상으로, 문두루 비법은 사천왕법으로, 그리고 신유림 터에는 사천왕사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부처님이 설한 이 문두루 비법을 들은 제석천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한다. '제가 부처님의 위신을 받들어 사천왕에게 명하여 그 신의 이름과 아울러 문두루 비법을 돕도록 권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에 부처님의 허락을 얻어, 사천왕으로 하여금 '집의 사방에서 재난을 물리치고 화를 없애고 모든 삿된 귀신을 경계 밖으로 멀리 쫓아내도록' 하였다."〈관정경, 필자 편집인용〉

문두루 비법을 수행하고 비호하는 무장신장으로 사천왕이 지목되는데, 이렇듯 사천왕의 임무는, 부처님의 바른 법(正法)을 옹호 유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가와 국토를 수호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 당시 대표적 호국경전인 〈금광명경〉(경전 정식 명칭 金光明最勝王經) '사천왕품'에는, "(사천왕은) 궁전과 집과 도시와 촌락과 변두리의 국경을 옹호하여 그의 원수들을 모조리 물리쳐주고 액난을 소멸하여 안락을 얻게 하며, 남섬부주(인간 세상을 말함) 안에 있는 여러 국왕들로 하여금 흉변이나 쇠망이나 싸우는 일이 없게 한다"라고 쓰여 있고, 이 사천왕을 "세상을 보호하는 왕(護世王)"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통일 직후, 나라를 지키는 첫 호국사찰로 사천왕사가 건축되었고 또 이를 계기로 호국신앙으로서의 불교가 그 정식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은 고려시대로 이어져 여진, 몽고, 거란 등의 외병이 쳐들어 왔을 때에도 이를 물리치기위해



그림2 : 광목천은 용을 한 손을 누르고 그 입에서 여의주를 뺏아 들고 있다.

서경 등지에서 빈번하게 사천왕도량이 행해졌다.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사천왕상은 7세기 후반의 그 초기작(사천왕사지 출토 채유(彩釉)사천왕상전, 감은사 석탑 사리기의 금동사천왕상 등)부터 이미 완벽한 조형성을 자랑하며 등장한다. 신라 통일과 더불어 정립된 이러한 호국신앙으로서의 사천왕상의 조형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조선시대에는 사찰입구 천왕문의 거대한 소조 또는 목조상으로 만들어 세워진다. 그리고 대웅전에 걸리는 영산회상탱에도 어김없이 사천왕이 등장하는데, 석가모니 주변을 에워싼 성중(聖衆) 가운데 항상 가장 크게 강조되어 그려져 그 당당한 존재감을 과시하곤 한다. 본 작품에서 확인되는 사천왕은, 조선시대 불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천왕의 시원격에 해당하는 조선전기의 존상이라 하겠다.

조선전기 존상으로 사천왕의 시원격에 해당
설법 가장 잘 듣는 '다문천'은 우두머리 천왕
방향·색·지물 등 따라 원력과 역할 달라

작품의 가장 왼쪽의 동방 지국천(持國天)은 국토를 수호하는 신으로 푸른 얼굴을 하고 악기 비파를 타고 있다.(그림4) 얼굴이 푸른빛을 띠는 것은 오방색(五方色) 중 동쪽에 해당하는 색이 청색이기 때문이라 한다. 음악의 신 건달바를 거느리고 있는 관계로 비파를 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 옆의 남방 증장천(增長天)은 자신의 위덕을 증장시켜 베풀어 만물이 소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한다. 본 작품에서는 기다란 보검을 들고 서있다. 어깨의 견갑 장식이 매우 특이하다(그림3).



그림3 : 남방 증장천의 갑옷 어깨부분 문양

서방 광목천(廣目天)은 청정한 눈이란 뜻의 정안(淨眼)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부리부리한 눈으로 위엄을 과시하고 악귀를 몰아낸다(그림1). 권속으로 용을 부리는데, 그러한 이유에서 인지 용을 한 손으로 제압하고(그림2) 그 입에서 여의주를 뺏어 들고 있다(그림1).

북방 다문천(多聞天)은 본래 부(富)와 재물을 다스리는 신으로, 본 작품에서는 한 손에 오색 빛을 발하는 보탑(寶塔)을 들고 있다. 또 다른 한 손에는 당번(幢幡, 불전에나 불당 앞에 세워 불· 보살의 공덕을 나타내는 깃발)을 들어 부처님의 도량과 그 도량의 수호를 상징하고 있다. 이 다문천은 사천왕 중의 가장 우두머리 천왕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잘 듣는다하여 다문(多聞)이라 한다. 사천왕은 부처님의 설법을 수호하는 수호신에서, 가람의 지킴이, 나아가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으로, 우리 전통 속에 그 힘차고도 강건한 모습으로 위풍당당 살아있다.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고 만행화

사계절 단화 ■ 소재특징 : 초극세사, 방수원단 특·무명

풍산동 99%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풍산동 99% 지압식 깔창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진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조각·무명 풍산동 99%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무명 미끄럼 방지 (논스립 우레탄)

건강슬리퍼 발볼조절가능 바이오실리콘 초극세사 (방수원단) 풍산동 99%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10,000원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 단위) • 색상 : 진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을 검색하세요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전주 상운각 063)274-6639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영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영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대행스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진실하게 해 나가세요!

마음을 밝히고 안에서 구하려면…

문 스님께서는 늘 "자기 안에서 구해서 마음을 밝혀 나가고 깨쳐 나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해 가면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마음을 밝히고 안으로 잘 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 만날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주 진짜로 믿고 절감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주 급박할 때, 물에 빠져 다 죽어갈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 그 정도가 돼야 '아이고,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아주 그냥 절박하게 하죠.

미국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일본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나한테 전화를 할 때는 아주 절박하게 합니다. "알았어. 절박하게 관해 봐!" 그러면 그 이튿날이고 그 다음 날이고 전화가 또 뚜르르 옵니다. "아이구, 전화하고 나니까 그냥 멎었어요. 스님, 참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응, 네 전깃줄과 내 전깃줄이 둘이 아니게 돼서, 둘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왔을 뿐이지, 내 전깃줄이 제일이고 네 전깃줄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전깃줄하고 내 마음의 전깃줄하고 같이 합쳐 놨으니까 불이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네가 낫게 했다 내가 낫게 했다 하는 것도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진정으로 믿어야죠. 자기 뿌리를 자기가 안 믿으면 누굴 믿을 겁니까?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또 스님네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을 이끌어 가는 진실한 당신을 믿어야죠.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경이나 각처의 스님네들이 이끌어 주는 그것은 역시 길잡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부터도 길잡이밖에 안 되는데 방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스님네들이 방편을 안으로 두게끔 썼으면 좋겠는데 바깥으로 기도하고 빌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가톨릭교고 기독교고 전부 그래요. 하여튼 모두 바깥으로 기도하게 하고 바깥으로 믿게 하거든요. 주처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진짜 자기부터 알아야 일체를 다 알 수 있다고 가르치셨는데 모두 타의에서 구하고 있고 바깥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세계적으로 봐도 다 그래요. 알라신교니 티벳 불교니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그런 사람들 다 만나 봤고, 또 어떻게 하나 기웃거려 봤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엇나가는 격이 많거든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뜻을 아예 뒤바꿔 놓고 가르치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 우리가 경 한 번을 본다 하더라도 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그 이름을 알고 말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진실한 자기, 못났든 잘났든, 정말 왜소하고 못나서 애쓰는 그러한 사람도 역시 자기 원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원소 그 자체 불성은 변하지도 않는 거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주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자체의 불성은 사람이 못났든 잘났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거를 떠난 자립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고 공부 열심히들 하세요.

당장 급하신 분들이나 처음 선원에 나와서 마음공부를 접하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면으로 믿고, 당장 '주인공 뿌리야, 너만이 알고 있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길 믿고 진정코 진실한 마음으로 해 보세요, 안되나 되나!

되기 위해서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바로 방편이자 바로 부처님께서 불난 집에서 애들을 구하기 위해 "사탕 줄 테니 나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장난감 줄 테니 나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치심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줄도 모를 거고요. 그러니까 감사한 줄 아시고 하여튼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진실히 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그 괴로움을, 애고를, 번뇌를 번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시고 한번 열심히들 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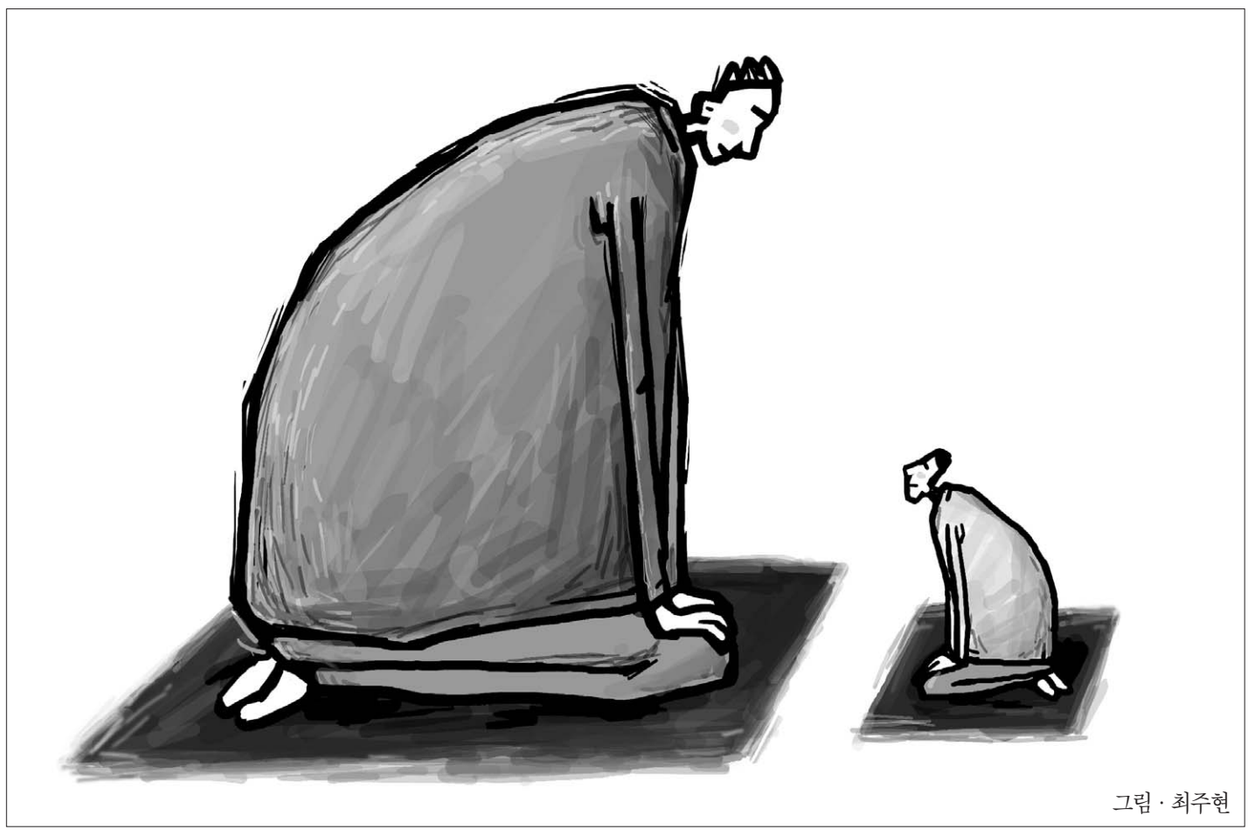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환자 수가 줄어 힘들어요

문 저는 현재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저 외에 6명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같이 근무하는데 서로 환자 수에 대한 경쟁이 보이지 않게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병원 측에서 은근히 월급 문제로 경쟁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한마음 공부 하는 사람으로서 정도를 지키려고 하는데 딴 과장들이 정도를 벗어나 좀 치사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환자 수를 늘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어차피 환자도 인연이 있어 만나는 것이라고 자위를 하기도 합니다만 환자 수나 수술 건수가 줄어들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한편으로는 내 전생의 업보가 현재에 술술 내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실과 한마음 공부와의 갈등 속에 고민이 많습니다. 스님의 큰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여러분이 다 자기 주인공을 의심하면 죄받죠. 자기 주인공을 믿지 않고 누굴 믿어요, 세상에? 죽는 것도 누가 대신 죽어 줄 수 없고, 아픈 것도 그렇고 먹는 것, 싸는 것, 자는 것, 깨치는 것, 이 여섯 가지를 아무도 대신 못해 주는데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만이 자기를, 자기 몸을 이끌어 가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 모든 생명들의 의식을 다스리고 나가는 선장이라고요. 다스리는 선장은 바로 그 체가 없는 마음의 입자를 그냥 수없이 내보내서 어떠한 용도라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신도가 말입니다, 애를 가졌는데 가서 보니까 쌍둥이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는 쌍둥이라는데 어떡하면 좋으냐고 그래요. 두 달이 좀 넘었다던가 그랬는데, 석 달이 채 못 됐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겁나서 애를 쓰니까 내 생각에 '쌍둥이는 무슨 놈의 쌍둥이!' 그러곤 말았거든요. 허어, 그랬는데 나중에 또 가 보니까 이제 쌍둥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낳을 달이 됐는데, 낳을 달이 지나도 안 나와서 병원에 가 보니까 애기가 거꾸로 섰다고 그러더래요, 또. 그래, 생각들 해 봐요. 돈이라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서면 바로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몸 망가질까 봐…, 바로 세우는 데도 아주 크게 뭐가 잘못될 수도 있대요. 하여튼 몸에도 그렇고 좋지 않대요.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소리 좀 봐요. 의사가 하는 소리가 "날더러 거꾸로 된 거 바로 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저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한테 가서 바로 서게 해 달라고 그래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그러고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곤 정말 전화가 왔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스님한테 말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2, 3일 후에 가서 검사해 봐!" 그랬죠. 그래 그 이튿날 가니까 "어! 바로 됐네." 이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요만한 거든지 큰 거든지 똑같아요. 실천하는 건 똑같다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건 너무 커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것까지도 바로 거기서 다 해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의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22면으로 계속

離緣公告

속 명 : 최기훈
법 명 : 상 진
법 호 : 경허(鏡虛)

상기자는 1999년 4월 일운스님의 법제자로 입실건당하여 鏡虛(경허)라는 법호를 받고도 다시 다른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건당하여 수봉 이라는 법호를 받는등 본 문도회의 뜻을 여법히 따르지 않는바 일운스님의 이연결정과 본 일운문도회에서 제명함을 공고합니다.

또한 향후 당호(鏡虛)사용을 일체 금지할것을 공고하며 가사 장삼 계문 조파 발우등 입실건당과 관련한 모든 사물을 9월 20일까지 문도회총무소 임자에게 반납 하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31일

일운문도회 일동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사암등록 및 행자모집

◆ 각 사암 등록을 받습니다. (서류절차 간단)
◆ 행자, 동자(예비스님)모집 합니다.

산세 수려한 청정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여 행자교육을 받고 스님이 되시고져 하는 분은 이 곳 고원사에서 건강하고 불심 가득한 행자 및 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행자 및 동자 자격기준
◆ 나이 : 남자 55세 이하, 여자 50세 이하
◆ 학력 : 고졸이상
◆ 나이 : 동자 5세이상 12세이하
◆ 6개월 교육후 수계(예비스님)
◆ 문의 : 총무실장 010-4802-5288
010-2039-5288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참선기도 도량 고 원 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전화 054)383-5005, 054)382-3397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화 054)464-4725 / 팩스 054)464-4735

수없이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을 모두 다 놔야!

☞21면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스님은 저렇게 뻥이나 치고,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고 그런다.' 고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대로 여여하게 초월해서 회전되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느냐, 저렇게 회전을 시키느냐, 그거에 따라서 살기가 평화롭기도 하고 살기가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도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인공을 찾아도 이렇게 안 된다고 할 때, 거기에 대고 내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알았다고 그냥 보낼 때도 있는데 그런 때는 그냥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 또 "관하세요!"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좀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왜 관하면 될 거를 그렇게 못 믿고선 못 관하고 그러느냐? 내가 산소에 가도 산소로 쫓아와 그거 해 달라고 그럴 테냐?" 하고 야단하죠. 때로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막 하니까요. 그렇지만 딱해서 그러지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좀 미련한 듯하게, 똑똑한 척하지 말고 미련한 듯하게 '무조건 너만이….' 그저 보면 보는 대로 이렇게 벌써 부(父)와 자(子)가, 주인공과 자기와 둘 아닐 때는 길에 지나가는 것만 봐도 그냥 '아, 저건 안됐다.' 이러면 그냥 천가가 되는 거예요. 꼭 주인공에다 맡기고 안 맡기고가 어딨습니까, 싹과 뿌리가 한데 붙었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되게끔 돼야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일은 나가서 할 수 있게끔 돼야 됩니다. 구경을 하면서도 벌써 천백억화신으로 나투면서 화해서, 이 우주 전체를 그냥 한 찰나에 다닐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단 얘깁니다.

그리고 이 공부라는 건 아무리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진짜로 믿는다면 겁낼 필요가 없어요. 겁내지 마세요. 지금 당장 죽는대도 겁내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깨치고 안 깨치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진짜로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의 문제입니다. 딴 사람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자기를 자기가 믿으라면 왜 못 믿습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둘로 보지도 말아야죠. 진짜로 믿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모두 하고 나가니까 이런 것도 당신은 다 할 거다.' 하고 믿고 나간다면 '아이구,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좀 잘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참다운 태교를 하려면…

문 참다운 태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 법우입니다. 사람 하나 잘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는 것도 인류 사회를 향한 큰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스님 법문에서 진정 중요한 태교는 임신하기 전에 하는 것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법우들이 좋은 인연의 배필을 만나서 가족과 집안을 화합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이익 되게 할 수 있는, 선종의 자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어린애를 낳으려면 임신하기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둥을 세우려면 먼저 마당을 다듬고 공구리를 쳐야 하듯이 어린애가 생기기 이전부터 해야 할 태교가 있는데, 거기에 일곱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곱 번의 태교가 아니라면 차원이 높은 인연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즉 먼저 터를 다듬어야 하듯이, 공자님 어머니가 좋은 영가님을 달라고 해서 공자님을 낳았듯이 임신하기 이전부터 태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기보다 좀더 나은 인연, 차원이 높은 인연을 만나게 돼서 자식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일체의 물이
바다로 들어가서 합쳐지듯
입력된 모든 것을
보임을 하려면
생활 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내 안의 근본자리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애가 생기면 거기에서부터 또 태교를 해야 합니다. 즉 석 달 일곱 달 아홉 달, 이렇게 세 번이 태교에 너무나 중요한 이치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다고 하느냐 하면 그 영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수에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자꾸 나와서 그대로 벌어지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고 팔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입력됐기 때문에 현실로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던 그대로 받는 건데 이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니저러니 하고 야단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부 없애고 어린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일체의 물이 바다로 들어가서 합쳐지듯이 입력된 모든 거를 보임을 하려면 생활 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일체를 제놈이 한 거고 제놈이 몸뚱이도 형성시킨 거니까 그냥 모든 거를 보임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기 싹이 자기 뿌리한테 의지하고 거기다 보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거짓이 아니니까요. 진정한 공부이자 진실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듯이 이 집을 짓는 것도 역시 일곱 번의 과정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터를 닦고 기초를 하고, 그러고선 그게 굳으면 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면 그뿐입니까? 기와를 올리고 또 안과 밖의 모든 거를 갖추어야 되죠. 이런 일곱 번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는 거와 같이 집도 그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꼭 한마디 해야 할 것은 이 부처님 법이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세요! 우리가 모든 걸 거기다 관하면, 깊은 데다가 진정코 관하면 바로 정수,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데 말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 있거든요. 입력된 대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오는 거를 되집어서 거기다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운 입력이 바로 현실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뜻을 잘 아시면 지금 이 험난한 세월에도 무난히 대로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참회의 삶을 살고 싶어요

문 스님께 삼 배를 올리오며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쯤 전에 사고로 몸을 심하게 다친 후 관하며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를 돌이켜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제가 잘못하였던 부분들이 다가옵니다. 참으로 참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어가야 하며 가난과 고독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잘못한 일에 대한 회한이 한꺼번에 올 때는 어떻게 관하여 가야 하는 것인지요?

답 내가 항상 저 나무들 뿌리하고 싹에 대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무 싹이 있으면 뿌리가 있듯이 누구나가 다 본래 그렇게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네 뿌리는 바로 네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하자면 일체 우주 전체를 한데 싸서 콩 알갱이 하나로도 할 수 있고, 한 사발로도 할 수 있고 한 주먹으로도 할 수 있고, 아주 없이도 할 수 있단 얘깁니다.

그 모두를 콩 하나로 해서 짊어지니까 짊어질 수도 없이 무겁더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떡하면 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나. 그래서 그냥 무조건 관하라고 그런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믿는 것만치 없어질 거고, 믿지 못하고 뭐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자기 정성에 의해서 그것이 조금 나을 뿐이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세세생생을 살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걸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짊어진 콩 한 알갱이를 산더미 같은 산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산 하나를 짊어지고 다니는 셈이죠. 그런데 '그 무거운 거를 그냥 다 놔라.' 이 소린데, 그러면 그렇게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주인공이라는 자기 자불을 진짜 꼭 믿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

가난하든 부자든
돈이 있든 없든
밥을 굶든 먹든
굶지 않게 해 주는 것도
살리는 것도
전부 다
내 주인공이 하는 것임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죠. 눈 뜨고 보고 귀를 기울여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형성시켜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만든 자가 누구냐는 얘깁니다. 자기 종자인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종자라는 근본인데, 그 근본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겼다면 그 근본에다가 다 놔야죠. 진짜로 믿고 놔야죠. 하는 것도 먹는 것도, 똥 누는 거, 뭐 일상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놈 때문에 움죽거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산 하나다 해도 되고 콩 한 알갱이다 해도 되는데, 그 콩 한 알갱이가 짊어질 수가 없으리만큼 무겁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를 없애려고 한다면 진짜로 믿고 무조건, 가난하든 부자든, 돈이 있든 없든, 밥을 굶든 먹든, '굶지 않게 해 주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고, 길을 걷게 하는 것도 너고….' 이렇게 전부 다 주인공이 하는 것임을 믿어야죠. 자기 모습이 자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머리 위에 상투를 이렇게 하나 해 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처님을 이마에다 새겨 놓기도 하고, 지금도 해 놨지만 때로는 금으로 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바로 그게 크고 좋아서가 아니죠. 그 뜻으로 볼 때는 '텅텅 빈 모습이다. 텅텅 빈 모습인데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도 갖추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죠. 텅텅 비고 없기 때문에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거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오장 육부가 다 있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손도 빈 손 부처님 손도 빈 손, 내 발도 빈 발 부처님 발도 빈 발, 부처님 몸도 빈 몸 나도 빈 몸, 빈 몸이니까 빈 마음, 함도 없이 하고 가는구나.' 하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이 모두를 알 양으로 애를 쓰지 말고 모두가 공했다는 거, 우리가 공해서 함이 없이 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수억겁 전년서부터 인과로써, 인연으로써 둘이 아니게끔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 그 뜻만 대략 알면 그냥 믿고 가도 된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바보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니까 빗자루를 하나 줬단 말입니다. '너는 이 빗자루 하나 가지고 항상 쓸고 털고 그래라.' 하고요. 거기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수없이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을 다 놔야 된다. 아는 것을 다 놓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 때문에 길고 짧고, 이렇고 저렇고, 이론이 많아서 외려 갈 길을 더디게 만든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해라. 공했으니까 너는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 텔레비전이나 극장 스크린에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화면에서 별짓 다 하죠? 그렇게 연기한 사람이 집에 앉아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별짓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거는 내 환상이 저렇게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그걸 보고 있다고 하겠죠. 그렇게 온통 모든 것을 환상으로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진짜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어디 다치거나 그런다면 그냥 야단나죠. 그러나 환상인 것을 알면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이런 것이 다 무심하게 돌아가죠. 알게 되면 얼음판을 걸어와도 아주 편안하게 걸어올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데 얼음이 두껍게 얼었더랍니다. 그런데 고기들을 잡느라고 얼음을 깨 놓은 자리가 큰 것들이 있어서 잘못 걸으면 풍덩 빠져서 야단들이 나니까 조심스럽게 걸어오는데, 스님네 둘은 하나도 거침없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냥 오거든요. 옆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두 두리번두리번거리고 간이 콩알만 해서 오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다 건너와서 물었어요. "스님, 스님! 스님네들은 이 강을 건너오시는데 겁이 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이 강을 건너온 사이도 없는데 어떻게 겁이 나겠소?" 하더랍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그냥 사는 바 없이 사는 거죠.

보은사 울산포교원 통명정사

기초의식 및 범음 범패 교육생 모집

불교의식을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까지 체계적으로 배우실분을 모집합니다.
교육생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 스님, 법사, 보살님, 일반인 누구도 가능합니다.
모든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기초과정 (3개월)	도량석 · 종성 · 조석예불 · 사시불공 · 각단예불 및 불공 (매주 월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전문과정 (1년)	천도재(49재) · 점안의식 · 구병시식 · 작법 〈나비춤, 바라춤, 도량게, 다게, 요집바라, 사다라니 바라〉 사물다루는 法
기초과정을 이수한 분에 한함	◆개강일 : 2007. 9. 3 (월요일 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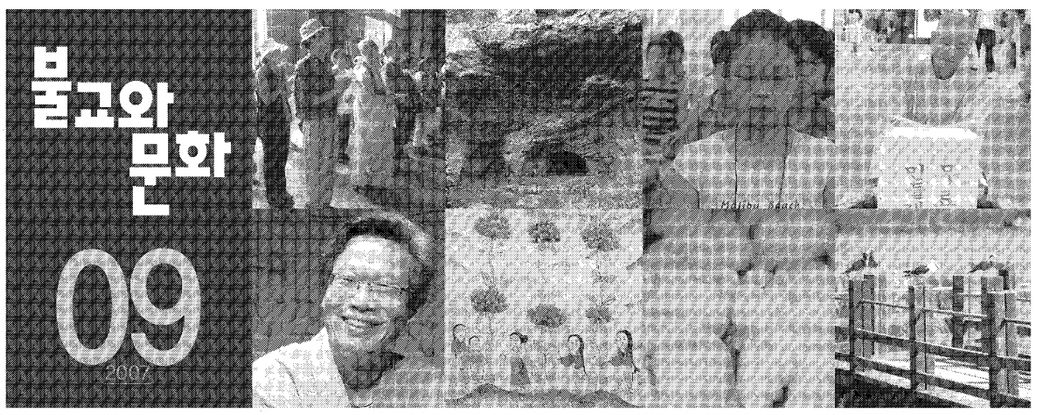
■ 구비서류 : 수강신청서 1부, 사진 2매

생활 역학 지리 강좌 (수시모집)

◆개강일 : 2007. 9. 7 (금요일 오후 2-4시) ◆강의 : 운산스님

■ 문의전화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 2동 618-14(울산대학교 정문 맞은편)
052)247-8883, 238-8819, 010-4554-1412

보은사 울산 교육원 통명정사



이 땅에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삶의 위안을 주는 문화포교지
월간 『불교와 문화』가 불교와 문화의 풍성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지상 전시회 | **전각 예술가 고암 정병례** 전통을 이어 세계와 소통한다
현장 속으로
1 현장 스님이 인솔하는 일본 속의 불교문화 탐방
2 다보수련원, 제5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 캠프
연속기획 | **행복 시리즈를 마감하며, 불교가 세상을 향한다 – 사섭법과 행복**
행복은 욕망을 덜어 내고자 하는 수행을 통해
달라이 라마와 탁낫한 스님이 전하는 사섭법과 행복
향기로운 말 한마디에 행복이 온다
사섭법을 실천하는 사람들
– 선원사 공양주 보살, 대불련 후원자 이향 거사, 교사 유윤식, 대학생 해외봉사자 이어진, 무료 급식소 만들레 밥집의 두타 스님, 부산의료원 불교 호스피스 봉사자들, 불교 여성 노숙인 쉼터 화엄동산
러브레터 | **사랑, 그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
사랑이란 이름의 실천 수행 I – 평생의 도반이 될 배우자를 찾아라
종범 스님의 재가불자를 위한 기초교리(경전편) | 『법화경』
소설가 정찬주와 떠나는 명상여행 | **인도에서 본 팔상록(수하항마상)**
보리수 아래 가부좌를 트니 신심이 솟구치는구나
생활불교 가이드 | 4대 재일은 무슨 날입니까?
숲길 |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에서 여름을 잊다
문태준 시인의 치유포토에세이 | 한 통의 편지를 오는 가을에게
테마가 있는 사찰, 그곳에 가고 싶다
원효의 시대와 마을을 헤아리다(개암사 | 내소사)
집중인터뷰 | 하찮고 무의미한 일상에 깨달음을 주는 배우 연극인 유순웅
작은 박물관을 찾아서 | 가회박물관
젊은 소설가 박성원이 쓰는 유쾌한 콩트 | 「인연과 연인」
독자기자의 세계음식문화기행 |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중국의 음식문화
칭찬합니다 | 추운 겨울, 청소부 아저씨를 도운 젊은 친구들
법현 스님의 숫자로 보는 불교 | 일곱 종류의 예불(七種禮佛)
건강 요가, 내 몸 내가 다스린다 | 웃음요가
2007 테마로 읽는 좋은 책 | 사섭법(四攝法)과 행복

월간 『불교와 문화』 1년 구독료 30,000원(1권 3,000원) 구독문의 : 02-706-1570(『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www.buddhistculture.co.kr



불자 세상보기

문 형 렬
소설가 · 본지논설위원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불타던 사랑같이 급하고 격렬하던 여름이 끝나간다. 아직 남은 것은 여름의 잔해같은 태풍의 소식일 것이다. 뙤약볕에는 가을 냄새가 묻어오고 밤바람은 문득 차갑기조차 하다. 조금씩 바닷물이 차가워지고 백사장에는 소란스러웠던 피서객들의 들뜬 목소리들이 물거품처럼 남아 있다. 누가 모르겠는가? 뜨거운 여름이 있었기에 가을에 거둘 것이 있다는 것을.

여름의 노역과 인내가 과일을 여물게 하고 곡식들을 알차게 만든다. 그렇지만 느닷없는 우박과 풍우에 과일나무의 가지가 부러지고 꽃잎들이 처참하게 찢기기도 한다. 누군가는 물놀이를 나갔다가 빠져 죽고 어디선가 물이 넘쳐 산사태가 나고 집이 떠내려가기도 한다. 해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만 그 흐름을 살펴보면 변하지 않는 게 없다. 똑같은 이가 두 번 죽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과일이 두 번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여름은 풍성한 결실을 준비하듯 불행에 대해서도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

무상한 일이나 바라보는 마음이 아프다. 여름은 불처럼 모든 것을 태웠다. 태양이 황도를 걸어와 세상에 여름을 선사할 때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어디론가 달아난다. 마음에 일어나는 불길과 몸에서 일어나는 불길이 여름에 가장 거세다. 때로 추억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 추억을 위한 행로가 오랜 고통과 상실 속에 파묻히게 한다. 가족이 물놀이를 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여름에는 너무 흔하다. 내년 여름에도 또다른 이에게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불길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운 일만 찾게 된다. 마음의 멈춤이며 몸의 한적함을 만나기 어렵다.

불길이 널리 퍼지면 재난이 뒤따른다.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고 앞날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두 번 다시 여름이 돌아오지 않을 듯이, 최후의 여름을 즐기기 위해 어리석음의 불길을 한껏 지핀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부박한 변화 속에서 어떤 이는 즐거운 기억을 가져올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가슴에 상처를 입고 돌아오기도 할 것이며 영영 세상과 이별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행복에 눈이 멀면 삶에 두려움이 없고 현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곤 한다.

지금 행복하다면, 지금과 똑같은 마음과 몸을 유지한다면, 행복도 똑같이 거듭할 것이라고 믿는다. 여름은 우리를 감정과 인상과 감각으로 내몰고, 가을이 오기 전에 수많은 일들을 마음의 그물에 걸리게 만든다.

한때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 추억하는 이들은 그 좋은 시절이 바로 행복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이리라. 송나라 때의 무문 혜개(無門 慧開) 선사는 "마음에 걸릴 것이 없으면 그것이 좋은 시절"이라고 했다. 마음에 걸림이 없는 여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해 여름, 나는 회화나무 꽃잎이 수도 없이 떨어지는 이국의 거리 속에 있었다.

머리 위로 툭툭 떨어지고 발 아래로 밟히는 회화나무 꽃잎을 보며 나는 문득 슬퍼하곤 했다. "지혜로운 이는 바람이 솜털을 날려보내듯이 솟구치는 슬픔을 빠르게 몰아낼 수 있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지만, 나는 솟구치는 슬픔을 몰아낼 수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올 여름에 나는 지난 해 여름의 슬픔을 다시 떠올려 본다. 미래에 대한 환상과 인연의 애처로움에서 불가해한 슬픔이 비롯되었는지. 어제 벗었던 신발을 오늘 다시 신어보듯.

아직 여름은 끝나지 않았다. 가을이 온다 해도 여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듯 9월에도 태풍이 찾아오고 마른 번개가 바다를 비출 것이다.

여름이 완전히 가기 전에 멈춰서서 자연의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몸을 기울여 바라보자. 대자연이 주는 상처처럼 큰 스승은 없다. 그리하여 다음에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좋은 시절의 여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다려 본다.

불자의 눈

관람료 문제 '답' 내 놓아라

전통사찰의 문화재관람료(이하 관람료) 징수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관람료 징수를 반대해 온 일부 시민단체가 지리산 천은사를 고발했고 해인사와 법주사도 환경단체들과 마찰을 빚었다. 사실 관람료를 놓고 사찰과 시민단체가 부닥친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입장료와 합동징수를 하던 때도 심심찮게 불거져 나왔던 문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올 초 공원입장료 징수를 전격 철폐할 때에 불교계에서는 관람료와 관련한 대안을 발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조계종도 정부도 관람료 징수의 지속여부 검토와 대안 모색 등에 늑장을 부려왔다.

이제 단풍 관광 철을 앞두고 관람료문제는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원입장료가 폐지된 뒤로 꾸준히 관람료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그 폭을 넓혀 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계종 종책 모임인 금강회와 보림회가 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두 모임이 내놓은 총 4단계에 걸친 대안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적절해 보인다. 또 불교미래포럼이 토론회를 통해 관람료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한 것도 주목된다. 토론회는 관람료 문제의 핵심과 대책마련의 기조를 충분히 도출해 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종단과 정부가 나설 차례다. 불교계에 형성돼 있는 여론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답을 내 놓아야 한다. 관람료는 사찰의 수익 사업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문화재를 잘 보존하기 위한 필수 재원임에도 이를 두고 마찰이 이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통사 관광 '월1회 제한' 재고를

천태종이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천태종은 2003년 남북합작으로 영통사를 복원했고 올 6월에는 북한과 횟수 제한 없는 자유왕래를 합의했다. 천태종은 기본적으로 주 3회에 걸친 당일코스 성지순례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런 의욕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통일부였다. 속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통일부는 천태종에 월1회 제한을 통보했고 '변형된 관광'이라는 용어로 천태종을 자극하기도 했다.

천태종은 8월 25일 성명을 통해 "통일부가 남북의 순수한 종교문화 교류를 방해하고, 나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지순례 제한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통일부가 월1회 제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오늘(25일)을 마지막으로 성지순례를 중단할 것"임을 밝혔다.

이같은 천태종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6일이 지난 31일까지 통일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대화를 아예 안하겠다는 것인지 나름대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통일부도 월1회 제한조치를 내놓은데 충분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일방적인 통보와 천태종과의 합의절차를 거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이제 천태종이 초강수를 내놓은 만큼 통일부도 불자와 국민이 납득할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27.정교유착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공직 이용한 특정종교 결합 시도 중단해야

공직 신분을 망각하고 특정종교에 편향됨으로써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종교대립을 조장하는 사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이명박, 정장식, 문봉주의 경우와 같이 공직자가 종교계를 직접 찾아가 공직 신분을 과시하거나 지나친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그 첫 번째이다.

올해 1월 26일 안상수 인천시장이 '성시화운동 법인설립 감사예배'에서 한 발언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그는 "세계선교센터 건립 추진으로 인천은 전 세계에 파송한 1만6000여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도시로 세계복음화의 관문이 될 것이며, 성시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천에 성시화운동본부가 설립된 것을 270만 인천시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해, 인천시를 끌어들여 성시화운동을 축하하고 독려한 바 있다. 시민의 동의 없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 이명박 前 서울시장의 경우와 흡사한 예이다.

물론 공직자가 먼저 종교계로 달려가는 경우와는 반대로, 종교인이 권력을 향해 손짓하는 정교유착의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조찬기도회'로서, 1966년 '대통령 조찬기도회'로 시작해 2003년에 문광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고 매년 한 차례 '국가의 장래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행사'를 개최해 왔다.

그러나 유신독재 찬양 등 역대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또는 개신교의 적극적인 '권력 교두보' 확보 전략의 일환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국가를 위한 기도는 종교계 전체가 따로따로 알아서 할 일이다. 최고 권력층을 초청한 개신교인들만의 기도행사를 굳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것은 종교와 국가권력의 결탁이란 인상이 짙다.

공직자의 능동적인 종교편향 행위의 두 번째 유형은, 선교를 염두에 두면서 공적인 일에 특정종교를 끌어들이는 경우이다.

2003년 12월 이국진 당시 예산경찰서장은 경찰청사 옥상에 기독교 신자들을 위한 예배공간을 마련해 주어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샀다. 불교신도들은 "서장이 '성시화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등 특정종교에 적극적인데 어떻게 법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알게 모르게 크다"고 말함으로써 불만을 토로했다. 개인적으로 무심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



안상수 인천시장.

도급 인사로서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임에 틀림없다.

더 노골적으로 종교를 공공업무에 연결시킨 예는 서찬교 성북구청장의 경우일 것이다. 2006년 9월 27일 성북구는 "지역의 종교단체와 관이 하나가 되어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종교단체가 모두 교회인 것으로 밝혀져 숨은 의도가 선교가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추진기구 이름도 '교(敎)-동(洞)협의회' 즉, 교회와 동사무소의 협력체임이 드러나 복지행정을 빙자한 선교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교동협의회'는 그해 8월 7일 서 구청장이 추진을 지시 · 독려한 후 직원들이 성북구 전체 260개 교회를 일일이 방문하여 그 중 84%인 218개 교회가 동참하는 조직으로 탄생되었다. 반면에 성북구 내에는 170여 개의 사찰이 있는데도 사암연합회장 스님 한 번 만난 것으로 면죄부를 삼으려 했고, 천주교나 원불교 등 다른 교단은 아예 접촉이나 상담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 구청장은 "교회의 맞춤형 복지가 복음으로 연결되면 결국 교회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복음사업이 아니겠느냐"며 구의 복지행정을 선교의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당당히 드러내기도 했다.

그뿐이 아니다. 그는 평소에도 핸드폰으로 선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공식 석상에서도 자신의 종교관을 말하면서 "교회에 나가보라"고 권하기도 하며,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자손인 여호와가 보낸 민선 구청장"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등 선교활동을 했다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신을 뽑아 준 국민의 심부름꾼보다 개신교 전도사임을 앞세울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불교계는 12월 20일 성북구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차라리 공직을 떠나 장로 역할에 충실하거나, 아예 이스라엘에 가서 살라"며 공조직을 이용한 노골적인 선교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퇴진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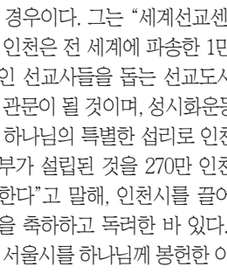
다행히 불교계의 항의를 받아들여 '교동협의회'를 해체했지만, 시민들의 저항 없이는 이런 몰상식한 행태가 그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국민들은 피곤하기만 하다.

공직자의 균형감각은 꼭 검증되어야 할 자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은 공직자 개인의 대오각성을 기다려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검증이 있을 때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공직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 없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치 바다(국민) 없이 배(공직자)를 띄울 수 없듯이.

사찰 법당 음향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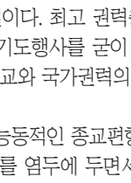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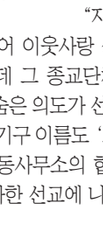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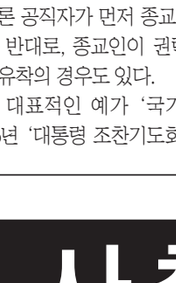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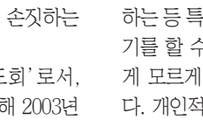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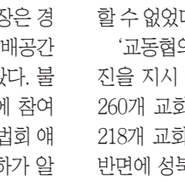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행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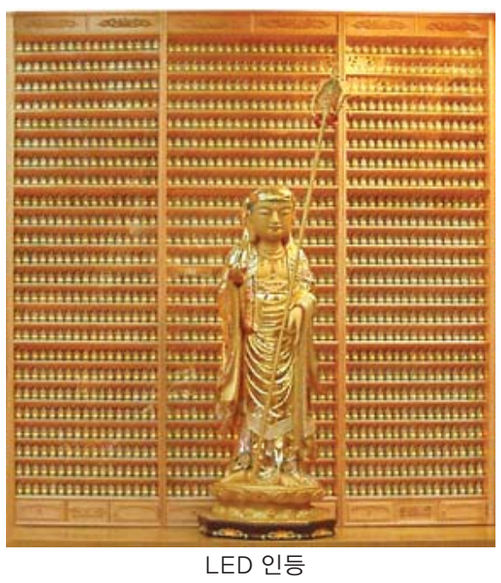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영구위패


LED 인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바닥에서시공하여 올리기 전 모습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 사찰명 인쇄시 30일 전에 미리 전화신청 바랍니다.





연등 작업 현장

※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설치 작업


▷신갈 대덕사 연등 설치 모습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가구 웰빙가구의 대명사 - 다심

마지막 남은 소나무(육송) 茶心마루 공장직판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 잔의 茶 처럼...
현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가구 - 다심마루

도매가세일 한정판매

구 분	크 기(mm)	판매가(원)	할인가(원)
육송좌탁	1200×600×300 (小)	300,000	160,000
	1300×770×300 (中)	400,000	200,000
	1500×770×300 (大)	500,000	260,000
	1800×770×300 (특大)	600,000	300,000
침대	2100×1700×320	2,000,000	1,400,00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 곡선침대


• 직선좌탁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무늬목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 ▶육송좌탁은 완전 수공 짜맞춤 방식으로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100% 수작업으로 제작.
- ▶소재 :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 육송(춘향목) 사용
- ▶사용 : 차탁, 거실의 좌탁, 소파대용 의자, 개인침대, 학생공부상, 제사상 등
- ▶사용법 : 물걸레질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기름칠(들기름)을 해주면 나무가 기름을 빨아들여 윤기가 돌고 손때가 묻으면 반질반질해져 쓸수록 그 가치가 더해짐.

주문처 080-999-1080
입금계좌:농협 177483-51-071977(예금주:천소현)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괄사 · 발란스 테이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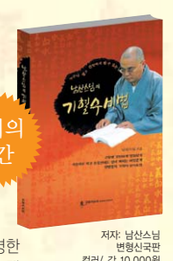

물소뿔 괄사
10cmX7cm(15,000원)

물소뿔로 제작된 괄사는 수공으로 직접 만들어 부작용이 없다.
관절염과 비만, 변비, 뱃살, 혈액순환, 당뇨병, 고혈압, 잔주름 제거에 괄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45도 각도로 긁어주면 된다.
또한 긁은 자리에 붉은 피멍이 드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나쁜 사가 나오는 것으로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매일 30회씩 괄사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긁어주면 된다.


발란스 테이핑
5cmX10m(25,000원)

정형외과나 한의원등에서 많이 쓰이는 테이핑 요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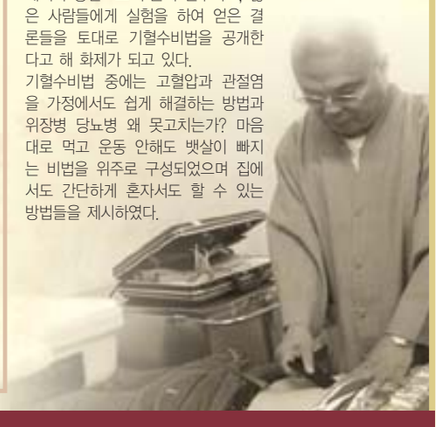
테이핑을 붙이기 전에 부위에 따라 15cm 간격으로 잘라놓고 어깨결림, 관절, 오십견, 좌골신경통, 근육통 등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여주어야 한다.
또한 피부를 깨끗하게 닦은 뒤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화제의 신간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컬러/ 값 10,000원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국부카르마 문의:080-999-1080 우체국 601161-01-005632(예금주:불타암)